

# 슈타지: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나?

동독 국가안전보위성의 실체

발행인 카르스텐 뢰멜 (Karsten Dürmel)

멜라니 피펜슈나이더 (Melanie Piepenschneider)

번역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슈타지: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나?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비매품

기획디자인·인쇄  (주) 늘품플러스

전화 070-7090-1177

© 통일연구원, 2010

슈타지: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나?

동독 국가안전보위성의 실체

# Contents

역자 서문	8
필자 서문	10
01. “사회주의통일당의 창과 방패”: 슈타지의 정체 카르스텐 뢰멜 (Karsten Dümmel)	15
02. 권력의 장악과 견고화: 슈타지 역사의 두 단계 지그프리트 라이프리히 (Siegfried Reiprich)	21
03. 감시 카르스텐 뢰멜 (Karsten Dümmel)	33
04. 형법에 근거하지 않은 처벌: 동독의 불법적 억압 형태 후베르투스 크나베 (Hubertus Knabe)	39
05. 심리적 테러 후베르투스 크나베 (Hubertus Knabe)	41
06. 슈타지와 동독 내무성의 출국 제한 조치 카르스텐 뢰멜 (Karsten Dümmel)	51
07. 슈타지와 정치범 석방거래 카르스텐 뢰멜 (Karsten Dümmel)	57

08. 슈타지의 격리수용 계획	65
토마스 아우에르바흐 (Thomas Auerbach)	
09. 슈타지의 만행: 공작조치(OV)	75
볼프강 템플린 (Wolfgang Templin)	
10. 슈타지 요원이 본 슈타지	97
볼프강 템플린 (Wolfgang Templin)	
11. 슈타지 공식 요원	103
엔스 기제케 (Jens Gieseke)	
12. 슈타지 비공식 요원	115
헬무트 뮐러-엔베르그스 (Helmut Müller-Enbergs)	
13. 사회보안요원	121
헬무트 뮐러-엔베르그스 (Helmut Müller-Enbergs)	
14. 슈타지 공조 파트너(Partner des operativen Zusammenwirkens)	123
볼프강 템플린 (Wolfgang Templin)	
카르스텐 뉘멜 (Karsten Dümmel)	
15. 슈타지와 동독의 청소년 문제	131
토마스 아우에르바흐 (Thomas Auerbach)	

# Contents

- |   |     |
|---|-----|
| 16. 아동 및 청소년 슈타지 요원 선발<br>카르스텐 뢰멜 (Karsten Dümmel)      | 143 |
| 17. 일상생활 속의 슈타지<br>우도 쉐어 (Udo Scheer)                   | 151 |
| 18. 슈타지 지원 동기와 요원 자격<br>카르스텐 뢰멜 (Karsten Dümmel)        | 161 |
| 19. 슈타지 활동 거부<br>카르스텐 뢰멜 (Karsten Dümmel)               | 167 |
| 20. 사회주의통일당과 슈타지의 교회정책<br>클레멘스 폴른할스 (Clemens Vollnhals) | 169 |
| 21. 환경단체와 슈타지<br>외른 모테스 (Jörn Mothes)                   | 175 |
| 22. 예술, 문화 그리고 슈타지<br>카르스텐 뢰멜 (Karsten Dümmel)          | 187 |
| 23. 문학과 슈타지<br>요아힘 발터 (Joachim Walther)                 | 195 |

24. 사례: 게라 – 루산 문학공동체와 슈타지 카르스텐 뉘멜 (Karsten Dümmel)	203
25. 슈타지의 대서독 사업 후베르투스 크나베 (Hubertus Knabe)	215
26. 슈타지와 네오나치스: 불인정의 상호관계 베라 령스펠트 (Vera Lengsfeld)	233
27. 슈타지 행동의 결과 지그마르 파우스트 (Siegmar Faust)	241
28. 슈타지 문서: 공작조치 Sinus 1과 Sinus 2 프레야 클리에르 (Freya Klier)	245
참고문헌(발췌)	255
인터넷 사이트(발췌)	260
발행인과 필자 소개	261

# 역자 서문

이 책은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이 발간한 “슈타지의 정체(Was war die Stasi?)”를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가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동기는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면서 구동독에서 비밀경찰의 역할을 한 국가안전보위성(슈타지)이 구동독 주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에서도 구동독 지역의 비밀경찰과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그 실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본 책자의 대표 집필자인 카르스텐 뫼멜 박사를 직접 면담한 적이 있다. 뫼멜 박사는 구동독 당시 반체제 인사로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 거래 대상자의 한 사람으로써 서독으로 온 사람이었다. 뫼멜 박사와의 면담시, 구동독 정권이 당시 외교적 관계를 밀접하게 갖고 있었던 북한에 슈타지의 기술을 전수하였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밀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의 번역제안은 뫼멜 박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며, 책을 발간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허락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이 책이 번역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 주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독일어 통번역 강의를 하고 있는 안미라 선생과 정연진 선생이 초벌번역을 해주었다. 초벌 번역을 바탕으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김영윤 박사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들여 한 문



장 한 문장씩 총체적으로 다시 번역했다. 김영운 박사는 독일에  
서 수학한 연구자로 한국외국어대학 통번역대학원에서 장기간  
강의를 한 바 있다. 그 때의 경험과 통일연구원에서의 근무를 바  
탕으로 이 책을 번역·감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독자들이 궁  
금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역자 주를 넣어 이해의 정도를 높  
이는 수고도 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슈타지의 활동과 관련된 영화를 소개하는  
것이 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영화의 제목은  
Das Leben Der Anderen(The Lives of Others : 타인의 삶, Florian Henckel Von  
Donnermarck 각본·감독, 2007년 아카데미 수상작 Best Foreign Language Film) 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번역하여 한국에 알릴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이 책의 대표 집필자인 뉘벨박사에  
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북한인권을  
연구하는 사람은 물론, 구동독의 슈타지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 필자서문

이 세상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인간이 겪는 사건, 이야기, 불행과 행복, 고통이나 불의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기록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마치 강물처럼 구전을 통해, 글을 통해, 또 학술적인 문서를 통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책에서 보여줄 기록은 다르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필자들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분석한 것들이다. 집단과 개인이 어떻게 동독이라는 사회에 적응할 것을 강요받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독일 역사상 두 번째 독재(히틀러 독재 후 동독 사회주의 독재: 역자 주)에 대한 그 실체를 보여주는 비판적 분석이자 독재에 대항한 인간의 무력감에 대한 기록이다.

이 책에 수록된 글은 무엇보다도 동독의 비밀경찰이었던 국가안전보위성(Ministerium für Sicherheit: MfS, 일명 “슈타지,” 이하에서는 슈타지로도 칭하여 병행·표현함: 역자 주)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는지 간결하고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다. 슈타지는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SED)의 명령 하에 자국민을 탄압했던 국가기관이었다. 동독정권은 사회주의통일당과 슈타지라는 비밀경찰 활동 덕분에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슈타지의 검은 손은 마치 거미줄처럼 동독 전역에 퍼져 있었다.

슈타지는 “사회통일당의 창과 방패”였다. 구동독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정보를 캐냈다. 사회의 모든 사안에 개입하고, 통제하기 위해 억압적이고도 조작적인 방법을 사용, 수십 만 주민의 삶 속에 개입했다. 슈타지는 비밀경찰로서의 첩보기술과 공식

및 소위 비공식 요원이라는 인적요소를 사용했다. 동독 주민의 삶 속에서 접근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었다. 슈타지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주민들의 삶은 파괴되었고, 깊은 상처를 입었다.

슈타지 관련 주제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은 2002년 처음으로 이 책의 제1판을 출간했다. 그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제1판은 이미 절판되었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동독에서의 평화혁명 제20주년(독일통일을 의미: 역자 주)을 맞아 그 내용의 일부를 최신정보로 수정하고 5편의 글을 추가하여 “슈타지 -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나?”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슈타지가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방법과 동독 정권의 만행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구동독 정권을 “몇 가지 정책에서 유감스럽게도 실패”한 “느긋한 독재”라고 변호하는 우(愚)는 절대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슈타지에 관한 왜곡된 인식과 미화된 행위를 바로 잡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슈타지에 관한 여러 시각을 기술한 기고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고문은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담론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의 눈높이에만 맞춘 것은 아니다. 본문 내용에 주석을 달지 않은 것은 글의 보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다만, 보다 심도 깊은 연구에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해서 책 말미에 참고문헌 및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개했다. 또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에서 발행한 다른 서적들과 온라인 출판물들도 검색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도 소개하고 있다.

제한된 지면을 통해 가급적 간결하고 명료하게 슈타지의 실상을 알리려고 하다 보니 모든 분야를 다루지는 못했다. 따라서 몇 주제는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또한 필자들의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는 뜻에서 몇몇 전문용어들이 통일되지 않고 각각 다르게 쓰게 된 점에 대해서도 독자의 이해를 바란다.

이 책의 필자들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민주주의 교육사업이 동독 과거사를 청산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이 책의 발행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민주교육원장 멜라니 피펜슈나이더 박사

함부르크 교육원장 카르스텐 뢰멜 박사

**WAS  
WAR  
DIE  
STASI?**



# 사회주의통일당의 창과 방패 : 슈타지의 정체

# 01

카르스텐 뒸멜 (Karsten Dümmel)

동독의 국가안전보위성(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들 입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회자되었다. 약어인 “MfS”로부터 “국가안전보위성(Staatssicherheitsdienst)”의 약어인 “SSD,” “엿듣고 엿보는 자(Horch und Guck),” “회사,” “멤피스,” “엿듣고 체포하는 자(Horch und Greif),”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온 사나이들(Jungs von der unsichtbaren Front)”까지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 중 가장 널리 통용되고, 끝까지 유지된 명칭은 단연 “슈타지(독어로 국가안전보위성을 뜻하는 Staatssicherheitsdienst의 줄임말: 역자 주)”였다.

슈타지가 주민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삶 속에 개입·침투하고, 그들을 억누르고, 심리적으로 “테리(Zersetzung, Zersetzung은 심리적 테러를

지칭하는 슈타지 용어 역자 주)를 가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부터였다. 1950년 이전 슈타지와 유사했던 기관으로는 동독 내무성 산하 독일민주공화국의 안전을 담당해 왔던 “제V총국(Hauptabteilung V)”이 있었다. 그 외 1945년에서 1949년 사이에 소련 내무성 산하의 정보국이 동독 정계인사들과 연계하여 첩보활동을 한 것을 들 수 있다.

1950년 2월 8일 소위 「국가안전보위성법(Gesetz über die Bildung ein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이 발효된 후, 동독 최고인민의회에서 ‘국민경제보호’라는 명목 하에 내무성 산하의 「보안본부(Hauptabteilung Staatssicherheit)」를 개별 부처로 독립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슈타지의 확실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슈타지가 수행해야 할 과제, 권한, 관할 범위, 통제 기능 등은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으며, 그런 상태는 결국 1989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 슈타지의 구조와 형태

슈타지는 여느 거대 부처와 마찬가지로 「선형원칙(Linienprinzip)」에 의거하여 조직·구축되었다. 즉, 베를린 중앙본부에 국외첩보(총국 A, HVA)나 미결구금(총국 제14실: HA XIV) 등을 처리하는 총국(Hauptabteilung)이 있었고, 그 산하에 15개 행정대도시에 분국들이 있었으며, 그 아래로 다시 209개 행정소도시 및 7개 대형사업장 보호·감시를 위한 부처들이 있는 형태였다. 각 국과 처는 다수의 부서(Referat)로 나뉘어 있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1989년 현재 슈타지에는 91,015명의 공식 요원(Hauptamtlicher



Mitarbeiter), 173,200명의 비공식 요원(noffizieller Mitarbeiter)들이 종사하고 있었다. 동독 역사 40년을 통틀어 비공식 요원으로 슈타지에 종사한 사람은 6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 요원들이 베를린 중앙본부, 시도 단위 지부(BV), 읍면 단위 지부(KD) 등 각 부서에서 정식 근무하는 반면, 비공식 요원들은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활동을 했다. 비공식 요원의 임무는 특정 정보를 수집하여 공식 요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들 두 부류 외에 정보 수집에 동원되었던 요원들로는 「사회안전요원(Gesellschaftlicher Mitarbeiter)」, 「접선요원(Kontaktperson)」, 동독 인민경찰 산하의 「K1 요원(Mitarbeiter K1)」 등이 있었다.

슈타지에 의해 서면 작성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색인카드와 문서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색인카드의 양만 하더라도 3,900만 장이나 된다. 이 문서들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그 길이가 180km에 달한다. 슈타지 문서의 효율적 열람을 위해서는 색인카드의 사용이 필수적이었다. 예를 들어, F16 카드는 실명목록(Klarnamenkartei)에 의해, F22 카드는 업무처리 방식에 의해 분류된 것이었다. F77 카드는 가명목록, '절단천공카드(Kerblochkartei)'라는 단어의 약어인 KK카드는 주민들의 취미, 직업, 당적, 취향, 습관, 관심사 등을 분류·정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슈타지 산하의 각 기관에서 사용된 색인 카드는 모두 통일된 양식에 의해 필요정보 및 지시사항을 담고 있었다. 이 밖에 코트부스(Cottbus)시(市)에서 발행한 여행허가 색인카드는 지역 고유의 수기(手記) 형태를 띠기도 했다. 문서를 열람하는 데에는 실명목록인 F16 카드 상에 기재된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했다. 일반적으로 색인카드와 문서는 각기 분리된 공간에 보관되었다.

문서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 문서에는 대체로 사건 혹은 인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때로는 너무나 일반적이다 못해 식상하기까지 한 개인의 취향, 생활습관 등에 대한 정보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슈타지는 그저 일반적 형태의 첩보기관에 지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았다. 슈타지는 일반적인 첩보기관과는 달리 별도의 자체 구급시설, 수사기관을 두었다. 또한 별도의 집달리(집행관), 판사, 검사(총국 제9실: HA XIV)를 두었다. 슈타지의 주 임무는 사회주의통일당(SED)의 권력을 보호·유지하는 데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슈타지가 자신의 임무나 도달해야 할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일은 없었다. 슈타지는 사회주의통일당이 내리는 지시, 과제, 투쟁임무(Kampfauftrag)를 정확하게 수행해야만 했다. 슈타지는 사실상 사회주의통일당과 정부 내 고위간부의 명령만을 따르면 되었다. 슈타지 직원은 대부분 사회주의통일당 당원이었다. 그들은 사회주의통일당의 사상에 대해 충성을 맹세했다. 이런 행위를 그들은 사회엘리트층의 상징적 행위로 믿었다. 슈타지로 활동한 군이나 민간분야의 고위간부들은 사회주의통일당 고위간부직을 맡는 일이 많았다. 또한 시도 단위 지부(BV), 읍면 단위 지부(KD) 등 슈타지의 지역 산하기관의 장은 사회주의통일당 내 각 지역부서의 장을 역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슈타지는 동독인민군(NVA)과 전투력을 갖춘 전투단위부대(Kampfgruppeneinheit)와 함께 사회주의통일당의 권력을 보위하는 중요기관의 하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통일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슈타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국내 세력뿐 아니라 국외의 적대적 세력도 견제했다. 1950년 슈타지가 내무성으로부터 독

립하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를 「사회주의통일당의 창과 방패」라고 규정했다. 슈타지는 흔히 말하는 ‘국가 내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통일당의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철저히 이용된 기관이었다.

Name		XII 615/74	
Geburts- und weitere Namen		Reg.-Nr./Erfassungsart 11111111	
Vorname		Bezirk	
geb. am		DE/Mitarbeiter	
in		Bei registrierten Vorgängen nur Reg.-Nr. und Bezirk, bei sonstigen Erfassungen Art, Bezirk, DE, evtl. Mitarbeiter angeben	
Staatangehörigkeit		DDR	
PKZ		Archiv-Nr.	
An-schriften		Bezirk/ablegende DE	
Beruf/Tätigkeit		Mitarbeiter nicht gesperrt	
Arbeits-stelle		Karte angelegt am	
K 182 372 2006.0 Form 16		Kopie BS	



## 권력의 장악과 견고화 : 슈타지 역사의 두 단계

# 02

지그프리드 라이프리히 (Siegfried Reiprich)

아렌트(H. Arendt), 프리드리히(C.F. Friedrich), 브레진스키(Z. Brzezinski) 등의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동독의 슈타지는 전체주의 독재정권의 테러도구로 역할을 하는 비밀경찰조직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즈음, 분단된 독일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과거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혁명이 아닌, 「적군(Rote Armee)」과의 충돌에 의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탄생했던 것이다. 동독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독일 공산주의자들이 세운 국가가 아니다. 히틀러의 박해를 극복하고 소비에트에서 망명시절을 보내며 스탈린의 인종청소를 견뎌내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국가였다. 볼프 비어만(Wolf Biermann)은 늘 스탈린의 하수인에 의해 죽임을 당

한 독일공산당(Kommunistischen Partei Deutschlands: KPD) 인사들의 수가 히틀러에 의해 죽임을 당한 독일공산당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독은 1946년 독일공산당이 사회주의통일당으로 강제 통합되는 과정에서 반대하지 않았고, 이를 오히려 반갑게 여기며 통합에 적극 가담한 적잖은 수의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세워졌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만의 사회주의로의 길’ 즉, 독일식 사회주의화는 모스크바가 보낸 울브리히트 부대에 의해 곧바로 통제되기 시작했다.

슈타지가 구소련의 비밀경찰에 의해 키워진 자식이나 마찬가지로는 점은 그렇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동독이 종말을 고하기까지 슈타지 요원들은 자신을 “체키스트(Tschekist)”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다. 그리고 소비에트 시절 “체카(Tscheka)”에 의해 1917년 10월 혁명의 도구로 사용된 바 있는 적군(Rote Armee)파가 견지했던 피비린내 나는 테러 전통을 이어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통일당과 슈타지는 동독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다. 다만, 권력을 견고히 하고 오랜 기간 유지하는 데만 성공했던 것이다.

1950년 베를린 호엔선하우젠(Berlin-Hohenschönhausen)에 위치한 구소련 비밀경찰의 중앙교도소가 슈타지에게 이양되었다. 슈타지는 소비에트 비밀경찰과 별 차이 없는 방법으로 수감자들을 대했다. 「심리적 압박」은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일상적인 도구였다.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1898.2~1956.8, 독일의 반전적이며 비사회주의적 시인이자 극작가: 역자 주)는 1930년대 말 악명 높은 모스크바 재판(1930년대 후반, 스탈린의 숙청재판을 총칭하는 재판: 역자 주)의 정당성에 관해 쓴 글에서 「고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기소된 과거 당대표들로부터 자백을 얻어냈으나, 브레히트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슈타지는 동독 포로들이 ‘사회주의의 길잡이’라고 부르는 고무몽둥이를 이용, 폭력을 일삼았다. 감시를 받던 시민들은 슈타지에 의해 죄가 있다고 규정되는 순간, 곧바로 체포되었다. 슈타지는 매사에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OV(Operative Vorgänge)」라는 ‘공작조치’를 발동했다.

1949년 동독 건국 이후 1970년 중반까지 슈타지는 폭압적 방식을 통한 업무를 계속했다. 슈타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점점 더 교활한 방법을 동원했다. 동독 주민들로부터 슈타지가 받은 평가는 “옛듣고 옛보고 체포하는 기업”이었다.

단편적으로 볼 때, 슈타지의 만행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긴 하지만 ‘스탈린식 테러’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1956년 소련 공산당 창당 20주년을 계기로 (당시 흐루시초프는 새 당수로 임명된 후 스탈린 시절 발생한 대량살생과 억압에 대해 반쪽짜리 진실만을 공개하고 형식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동독에서는 방법 면에서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슈타지는 스탈린식 테러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다. 스탈린의 가장 모범적인 제자로 인정을 받았던 동독의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는 소비에트에서 일어난 탈스탈린화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동독에서는 탈스탈린화가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다. 다른 중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탈스탈린화의 영향으로 정권 내부권력의 교체가 이뤄졌지만, 동독에서는 과거의 권력구조가 계속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동독의 공산주의자들은 동독이 처해있는 지리적 특성과 소련과의 정치관계 때문에 소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독의 국경은 서독을 향해 상당히 개방되어 있었다. 당시 동독은 주민들을 「신인간」으로 개조하려고 했는데, 이 때문에 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지도층은 공산주의 영향권을 라인강 유역까지 확대했다. 1970년대 초 동독은 독일을 공산주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까지 했다. 머지않아 동서독 전역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은 동서독 주민들로부터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으려고 했다. 따라서 슈타지 요원들도 더 이상 과거처럼 임의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1953년 6월 17일 폭동사태(구소련의 점령과 공산당 지배에 불만을 품은 동베를린 시민들이 공산당 본부와 기타 기관을 습격하고 반정부 운동으로 확대한 사건, 소련 전차부대에 의해 진압됨. 역사 주)가 일어난 후 처형된 주동자의 수는 그 이전 유사한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1961년 8월 사회주의통일당은 베를린 장벽을 세웠다. 그리고 서독과 접한 바이에른, 헤센, 니더작센,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와 ‘녹색경계(Grüne Grenze)’(동서독 경계에 일정한 넓이로 존재했던 녹색지대, 일명 Grünes Band, Green Belt라고 하며, 동독이 주민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를 철저히 했던 데 따르는 명칭. 역사 주)를 보다 강화, 동독정권 붕괴의 위험을 일차적으로 방지하였다. 동독 주민들은 더 이상 서독으로 이동할 수 없었고, 사회주의통일당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통일당의 권력은 견고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타지는 여전히 할 일이 많았다. 동독의 예술가, 지식인, 당원들은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이 “반파시즘 보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를린 장벽을 세웠기 때문에 서독이



라는 적대세력이 더 이상 동독 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건설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외부세계와 차단된 동독 내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음만큼 순진했다. 슈타지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위협하고 구금했다. 동독 주민들이 그들의 정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야만 했다. 동독 정권 수립 초기에는 누구든지 국가평의회 의장에 대해 농담만 해도 투옥되었다. 슈타지는 1960년대 서독의 유행과 음악에 매료되었던 동독 청소년들을 관리해야 했다. 이들 청소년들이야 말로 역사적 사명인 「새로운 사회」 건설을 담당해야 할 최초의 사회주의 세대였기 때문에 새로운 의식을 가진 세대로 육성해야만 했다. 그러나 동독의 청소년들은 갈수록 서구에 물들었고, 사회주의통일당의 기대에서 멀어져 갔다. 사회주의통일당은 그 원인이 동독의 청소년들을 조종하는 서독이라는 적대세력 때문이라고 보았다. 슈타지는 요원들을 동원하여 동독 청소년들을 선동하는 주모자를 색출하고, 「공작(OV)」을 퍼 그들을 심문하고 잡아들였다. 그 다음 전문가를 투입, 사회주의통일당이 원하는 자백을 받아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기 시작했다. 소련이라는 거대세력과 미국 및 서유럽국가들 간의 긴장관계가 해소되기 시작했다. 1975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Konferenz über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 KSZE)」에서 소련의 영향권 내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했다. 서유럽의 공산주의 정당들도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공표하면서 스스로를 “유럽공산주의자(Eurokommunisten)”라고 불렀다. 동독은 합법적인 독립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고,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동독을 주시했다. 동독을 방문한 사람들은 드디어 동독에서 보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서독의 기자들은 동독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리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동독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이상 숨길 수만은 없었다. 정치적 불순분자를 마구잡이로 체포하는 일은 동독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가능했다.

이와 같은 변화와 함께 슈타지의 임무도 변했다. “옛등고 옛보는” 임무는 그 비중이 현저히 떨어졌다. 또한 예전만큼 아무나 쉽게 ‘체포’할 수도 없었다. 1945년 동독의 초대 국가평의회 의장이었던 발터 울브리히트는 “민주주의처럼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우리 손바닥 안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울브리히트의 후임자였던 에리히 호네커는 1975년 이렇게 말했다. “합법적으로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모든 반대세력의 싹은 잘라내야 한다.”

사회주의통일당은 전 세계적 긴장완화 정책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독재”를 보장·확장하기 위한 “노동자 계급 투쟁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보았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사회주의통일당을 지칭했다. 레닌에 따르면 독재란 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력이다. 그리고 테러는 공포와 위협을 동반하면서도 학술적 근거가 있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상대에게 날카로운 이빨을 보여줄 수 있을 뿐, 상대를 물어버릴 수 없는 현실에서 점점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는 사회를 과연 어떻게 위협하고 통제한다 말인가?

슈타지의 정책이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된 결정적 계기는 (동독의 몰락 이후 세상에 공개된) “지침 제1/76호(Richtlinie 1/76)”의 발표였다. 지침 제1/76호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개념들이 탄생했다. “심리적 테러(독일어로는 *Zersetzung*(해체)로 표현: 역자 주), “억제,” “불안 조장,” “적대적·부정적 결탁관계의 해체” 등과 같은 개념들이 쏟아졌다. “음모, 간계, 협잡, 거짓” 등도 언급되었다. “심리적 테러(정신해체)”는 인간관계 속의 신뢰를 파괴하고, 공포와 불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산(巖)처럼 ‘부식’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이런 조치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누구든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동독 사회 내 만연되었기 때문이었다. 슈타지에 의해 실질적으로 “적으로 처리”된 사람의 수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긴 했으나, 줄어든 숫자마저 여전히 공포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슈타지에 의해 “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다음의 예가 잘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동독 젊은이 몇 명이 금서나 금지된 음악가의 음반을 몰래 동독에 들여오려고 하고, 이를 위해 부활절 연휴 기간 중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서독 친구들과 접촉하기로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고 하자. 슈타지는 즉각 기존의 「분산·통제」라는 공작방식을 적용한다. 젊은이들 중 몇몇은 여권을 빼앗기고 “PM 12”라는 대체 신분증(Ersatzausweis PM 12, PM-12는 동독 정부가 정치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politisch nicht tragbar’ 동독 주민에게 발급하는 임시 신분증명서, 주로 출옥한 사람이나 허가없이 월경한 자, 국가권력에 대항한 자들에게 발급했음. 신분증명서에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 경찰에 출두하여 신고해야 하거나, 특정 직장에만 근무하도록 명시해 놓거나, 거처하는 곳의 열쇠를 공안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거나, “자유”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두었음:

역자 주)을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여권을 빼앗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된다. 나머지 젊은이들에게는, 비록 슈타지로 볼 때 어찌면 더 위험한 인물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여권을 빼앗긴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동료들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혹시 내 친구가 첩자였나? 최근 회사로 두 명의 신사가 찾아와 친구를 차에 태우고 갔는데? 지난번에 슈타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의심이 시작된다.

슈타지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계획대로 체코슬로바키아로 갈 수 있게 된 젊은이들이 국경수비 경찰에 의해 아주 엄격한 조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 놓는다. 혹시 몸수색 과정에서 무엇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색 과정에서 서독의 동지들에게 전해 줄 편지를 입에 집어넣었으나, 미처 삼키지 못한 채 발각될 수도 있다. 그 편지에는 평화주의를 견지해서 입대를 거부해 결국 운터벨렌보른(Unterwellenborn) 수용소에 투옥된 후 어느 강철 제련소에서 위험한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 친구의 이름이 적혀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서독 정부에 석방거래를 통해 친구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적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는 비어만(Biermann), 폭스(Fuchs), 파나흐(Pannach)처럼 반체제 예술가들의 시나 노래가 적힌 전단지들을 시골에 뿌리고 다닌 새로운 반동분자에 대한 정보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동독 주민들 중에는 동독에 그대로 살면서 동독 체제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슈타지는 그런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동독을 떠나고 싶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구금이나 추방과 같은 수단이 동원되었다. R(라이

프리하: OV 공작조치 반대자, 1980년)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R이라는 사람은 수용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슈타지로부터 본인이 큰 희생을 당하더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그 어떤 조사나 그가 한 발언 중에는 동지들을 밀고하는 경우가 없었다. 어떤 방법으로 그의 입을 열게 할 수 있을까? 그를 체포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서독, 서베를린 등의 언론에서는 아직 R에 관한 보도가 없었지만, 국제적으로 긴장완화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R을 조사·구금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R의 한 친구가 슈타지 수용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R은 감옥살이를 할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었던 사람으로 말했다고 하자. 그런 그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즉, R을 슈타지에서 풀어(결정: 슈타지 게라시 단위 총국, 제IX실) 주면서 그가 슈타지와 타협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슈타지는 다른 조치들을 준비했다. 예를 들어 「직업실패조작」 또는 「억압」 등과 같은 조치들이었다. 슈타지의 ‘적’으로 간주된 사람들은 슈타지의 「공작(OV)」에 의해 직장에서 가장 고달픈 임무를 부여받게 만들었다. 그러면 직장에서 인정받고 진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직장상사가 슈타지의 비공식 요원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 ‘적’으로 낙인찍힌 한 락밴드의 단원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슈타지의 눈에 거슬리는 가사를 썼다고 하자. 슈타지는 이 밴드를 억압하기 위해 해당 시 문화부장을 통해 연습실 사용을 금지시키고, 다른 밴드 단원들은 문제의 단원에게 가창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밴드에서 나가달

라는 요청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제의 밴드 단원은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그 후 슈타지 관리들은 이 단원이 “알코올의 힘에 의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들은 모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했다. 또한 큰 인내심을 요하는 일이기도 했다. 슈타지는 그들의 활동을 지속할수록 그 규모는 점점 커져갔고, 문건과 자료는 쌓여만 갔다. 슈타지에서 일하는 요원들이 받는 보수는 상당히 좋았다. 슈타지는 규모면에서도 막강했을 뿐만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엄청난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83년 시민단체의 하나인 예나평화공동체(Jenaer Friedensgemeinschaft)를, 1988년에는 동베를린의 독립 환경도서관을 습격하기도 했다. 슈타지는 당시 체포한 사람들을 국제사회의 질타와 항의 때문에 풀어주고 대부분 서독에 넘겨주어야 했으나, 두 사건은 슈타지의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 후 상황이 변해 1980년대 중반에는 보통 시민들도 그들의 ‘모범적 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서독으로의 여행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슈타지 관리들은 동독 내 점점 커지는 사회적 불만과 시민들의 저항 때문에 골머리를 썩여야 했다. 그들은 첩자를 이용하여 적대적 단체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해체하게 만들었다. 물론 슈타지에게는 여행신청서를 제출한 일반인들을 마음대로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슈타지는 체포한 일반인을 서독과의 정치범석방거래(Freikauf)를 통해 높은 값에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슈타지 역사가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면서 적대적 세력을 과거와 같이 마음대로 제압하고 잡아들이지는 못했다.

슈타지 세력의 약화가 결국 동독사회의 변혁과 함께 1989년 평화로운 혁명으로 종결되게 했다는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이전 슈타지는 어쩌면 「밀케」가 말한대로 “최신기술을 적용한 대주민 혁명적 심판자”였다. 슈타지의 ‘적’을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심판·처단할 수 없다면, 그들은 아예 법을 무시하고 “혁명적”으로 처단했다(슈타지의 우두머리인 밀케의 실제발언). 여기서 최신기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슈타지의 활동을 위해 과학자들이 개발한 각종 살인기술을 의미한다. 슈타지는 독극물이나 방사능 등을 이용한 살인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1977년과 1979년 슈타지는 그 동안 구금했던 유명인사들, 예를 들어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위르겐 폭스(Jürgen Fuchs), 가수인 게룰프 파나흐(Gerulf Pannach), 철학자인 루돌프 바로(Rudolf Bahro) 등을 서독으로 보냈다. 슈타지는 그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슈타지가 서독으로 보낸 이들은 모두 암으로 사망했다. 위르겐 폭스는 자신이 쓴 「막달레나(Magdalena)」라는 소설과 슈타지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사진기 같은 기계 앞에 앉아 있어야 했다는 경험을 각종 인터뷰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그는 사진기 같은 기계 앞에 앉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사진에 찍힌 적이 없었다고 했다. 다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렇게 촬영을 하고 다시 수용소에 가면 몸이 아팠다고 했다. 그가 말한 증상은 방사능에 노출된 환자의 증상과 유사했다. 1990년 초 시민단체들은 슈타지 수용소에서 실제로 방사능 기계를 찾아냈다. 그러나 이 기계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통일되기 전 사라져버렸다(Spiegel지 20호/1999 참조). 어쩌면 당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

지 영원히 다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2000년 가우크-관청(슈타지 문서보관소 역자 주)의 「방사능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 참조).

슈타지는 자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 원했던 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자유를 갖지 못했다. 항상 사회주의통일당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의 기초가 되었던 적군(Rote Arme)과의 충돌이 사라지자 당과 국가는 몰락했고, 슈타지도 함께 해체되었다.



카르스텐 뒸멜 (Karsten Dümml)

동독 주민은 슈타지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지적되는 순간부터 “기관”에 이첩되어 슈타지가 동원하는 합법·비합법적 방식에 의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사적이며, 은밀한 개인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소위 “털어놓아야 할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슈타지 요원들의 지나친 사적 부문에 대한 개입행위를 제한하는 업무지시, 명령, 법 규정 등이 있었지만, 이는 겉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는 주민들의 사적 공간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명령을 발동, 사적 개입을 중용하는 행위까지 했다. 이런 명령을 내리기 위한 구실은 정치적 범법행위가 의심되는 행동 혹은 슈타지에 의해 정치적 범법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만으로도 충분했다.

사회주의통일당(SED)의 반체제 인사들은 슈타지에 의해 “적대적 인물,” “적대·부정적 인물,” “결정적 적대·부정적 인물”로 분류되었다. 그들은 각각 “OAM(Operative Ausgangsmaterialien: 공작착수조치),” “OPK(Operative Personenkontrollen: 인물공작),” “OV(Operative Vorgänge: 일반공작)” 대상으로 불리어졌다. OAM과 OPK는 대상 인물의 적대적 혹은 적대적·부정적 활동에 대해 검토하고 조사하는 조치인 반면, OV는 앞서 언급한 조사결과 적대적 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조치 대상에 대한 등급 변경 혹은 신규 조치대상으로 등록해 대상인물을 본격적으로 감시하는 작업이다. OV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그룹은 사상이 “확고한(verfestigt)” 자들로, “동독에 필요 없는(für die DDR verloren)” 자, 혹은 더 이상 “회유불가(nicht rückgewinnbar)”한 자나 그룹으로 취급되었다. 위 세 가지 경우로 분류된 대상에 대해서는 모두 “공공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저지시키고,” 공식·비공식 요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캐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첫 두 부류의 경우 즉, OAM과 OPK에서는 대상 인물들은 비공식 요원으로 신청을 받거나, 비공식 요원으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행해졌으나, OV에서는 그와 같은 시도가 없었다.

흔히 심리적 테러(Zersetzung) 조치와 함께 적용되었던 감시조치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전화감청(코드명 26 A), 감청장치설치(코드명 26 B), 비디오 감시장치설치(코드명 26 D), 비밀 또는 공개 촬영(코드명 26 F), 수신 및 발신 서신과 우편물 전면 검사(코드명 M), 출입국 및 국경왕래 인사에 대한 감시, 인민경찰에 의한 여권발급 및 주민등록처에 대한 감시, 감시대상의 인척, 친구, 방문자와 손님에 대한 감시, 비공식 요원을 통한 주거지 또는 직장에 대한 비밀 수색 외 다양한 조치들이 있었다.

슈타지가 행했던 체포, 격리, 즉각적인 국적 박탈, 서독으로의 추방, 혹은 의도적인 “심리적 테러” 조치는 소위 OV(일반공작조치)의 일환으로써, 사회주의통일당에 적대적인 자에게 취해졌던 조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 테러”란 넓은 의미에서 주민의 삶에 대한 개입 및 파괴, 사회적 격리를 의미했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주민이 슈타지에 의해 자신의 삶에 대한 제어력을 잃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슈타지는 이 과정에서 주민을 정신병이나 자살로 몰고 가는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동독 주민들을 억압했던 중심 및 책임기관은 슈타지 정치담당 총국(제20실, HA XX) 포함, 산하 부서들이었다. 정치총국의 업무를 기간별로 구분하면 1950~1976년과 1976~1989년의 두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기간은 슈타지가 동독의 적대자에 대해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했던 기간이다. 아주 부당하고 위협적인 방식을 통한 대응이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했다. 두 번째 기간은 소위 “심리적 테러” 조치가 주로 이루어졌던 기간이다. 대상자들을 실제 구금이나 판결없이 은밀하게 처벌했던 기간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문서는 “지침(Richtlinie) 제1/76호”였다. 본 지침에 따라 1976년 이후의 대상자 형사처벌은 “보다 높은 공익적 관점”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1950년대 및 1960년대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국제사회가 긴장완화 시대를 맞이했다는 점도 한 몫을 했다. 동독도 국가로서 국제법적인 승인을 받기 위해 새로운 통치 방식을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988년 당시 슈타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PK 조치의 대상으로 7,097건이 신규 등록되었고, 모두 19,169건이 진행되

었다. 이 중 7,908건이 종결되었다. 종결된 조치 중 87.5%는 무혐의로 밝혀졌고, 4%는 추후 비공식 요원 포섭대상으로 계획되었으며, 8.5%는 OV 조치로 그 수위가 상승되었다. OV 조치로는 총 4,543건이었으며, 이 중 1,660건이 신규 등록되었다. 1,750건은 종결·처리되었으며, 총 사건 중 28%가 형사처벌을 위한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슈타지가 동원했던 수단 중 특히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회주의통일당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수용소 건설, 방사선에 노출시키거나, 독극물(TOXDAT 실험)과 같은 방사능 물질에 노출시키는 것 등이었다. 이 밖에도 슈타지는 심리적 테러 조치의 일환으로 감시 대상자의 자살을 유도하거나, 협박, 유괴, 살해 등의 범법행위를 자행했다.





## 형법에 근거하지 않은 처벌 : 동독의 불법적 억압 형태

# 04

후베르투스 크나베 (Hubertus Knabe)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정권에 관한 논의에서 동독의 독재정권이 과거 국가사회주의 독재정권(나치 정권·역자 주)과 비교, 사회적 테러를 적게 자행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자들은 사상이 다른 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사용이 두 독재정권에서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들은 동독 전체주의 사회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테러 행위가 적어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동독을 전체주의적 사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국가사회주의 독재정권(NS-Diktatur)은 “시체 더미”를 남겼지만, 동독의 사회주의 독재정권은 “색인카드 더미”만을 남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넘게 주민을 지배하는데 성공한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은 국가사회주의 독재정권과는 전혀 다른 억압시스템을 이용했다. 동독 정권은 동독의 사회정책 실현에 요구되는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반파시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만 했다. 동시에 권력유지를 위해 감시와 억압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도 개발해야만 했다. 실제 동독이 개발한 감시와 억압 방법들은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다. 특히,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가 사회주의통일당의 제1서기로 재임했던 시절 억압메커니즘은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과학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교함을 갖추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메커니즘 개발의 목표는 체제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상에서 인식, 가능한 한 형사처벌을 거치지 않으면서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후베르투스 크나베 (Hubertus Knabe)

사회주의통일당이 국내적으로 정권을 공고히 하는 데는 국가보안성이 가장 큰 일을 했다. 물론, 사회주의통일당에 의해 통제를 받았던 다른 기관들도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국가보안성은 억압하거나 제재할 대상자들을 직접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또한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불법적 처벌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방법은 생물학적 개념으로 내려오는 “Zersetzung(심리적 테러)” (사전적 의미는 “해체”이나 통합적 의미로 ‘심리적 테러’로 지칭할 수 있음: 역자 주)이었다. 이 ‘심리적 테러’는 1970년대 초반 이후 국가보안성의 중심전략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조치였다. 그 이전에도 이미 동독 정부에 대해 ‘적대적인’ 서독의 기관이나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조치이기도 했다. 물론

그와 같은 기관이나 사람들에 대해 슈타지가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 '심리적 테러'라는 슈타지의 비밀작전은 소련 정보국이 독자 개발한 심리적 테러기구를 독일 바이마르 정부가 본 때 1920년대 당시 존재했던 무장단체에 잠입시켜 전투력을 마비시키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기도 했다.

슈타지의 '정치작전 용어사전'에 의하면 "심리적 테러작전"은 동독정부에 대해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적이며 부정적인 태도나 신념에 영향을 미쳐 그와 같은 태도나 신념들을 교란시키거나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다. 아니면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 사이에 모순과 불화를 야기하도록 한 뒤, 이를 역이용하거나 심화시키는 다양한 정치작전적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 작전적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지에 대해서는 지침 제1/76호(Richtlinie 1/76)에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총 7개의 "효과가 입증되고 적용가능한 심리적 테러 형태"와 이를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5개의 "효과가 입증된 수단과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체계적 명예실추 방법"에서부터 개인적 자신감을 떨어뜨려 직업생활과 사회생활이 실패하도록 하는 조직적 작업을 비롯하여, 신뢰할만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국가기관이나 사회기관이 피의자로 '소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작전 수행에는 믿을 만하고 능력이 입증된 비공식 요원(M)이 투입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본 지침에는 그 외에도 "적대적 집단으로부터 작전 대상의 개인을 분리시키는 방법," "거짓 이야기를 꾸미고 합성하는 방법," "다른 국가기관이나 경제 선도기관의 인력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슈타지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에는 위에서 소개한 박해의 방법들이 약 50페이지에 걸쳐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직업생활의 실패”에 이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그리고 상당 정도의 의심을 받게 함으로써 피의자는 직업과 사회생활에 정신적으로 강한 압박과 영향을 받게 된다. 그 결과 동요하게 되고 자기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피의자는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며,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결국 심각한 자기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느라 반국가적인 행위를 할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 반국가적인 행위를 할 만큼의 ‘정신력’을 갖지 못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소환(Vorladung)”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대상으로 하여금 왜, 무엇 때문에 … 등과 같은 물음을 통해 개인에 대한 의심과 심도 있는 고민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소환의 목적은 불안을 조장하고, 혼란과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소환 대상자를 불러 원래 공작대상으로 밝혀내고자 했던 내용이 아니거나,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 또는 아주 특별하고 낯선 내용에 대해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후 소환된 자가 이 이야기를 자신이 속한 단체나 그 단체의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들려주게 되면, 그 단체나 회원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진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지침서에는 심리적 테러에 대한 기타 형태나 방법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설명이 명시되어 있다.

슈타지 요원들은 실무에서 “어떤 일정한 정형이 아닌 각각의 상황

에 맞는 독자적인 방법을 통해 공작을 전개할 것”을 요구받는다. 작전을 펴는 데 있어 주어진 형식을 모방하거나, 주어진 요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 이유는 “각 사람과 상황에 적합한 심리적 테러 조치를 개발하고 조직하는 것이 창의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각 개별적 심리적 테러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대부분 그것을 추진한 문서를 통해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조치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부분에 한해 학술적 평가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 “연성” 형태의 테러 행위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를 통해 슈타지가 실제 현장에서 작전용 지침들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중 의도적인 심리적 테러 전략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유연한” 형태의 박해가 있다.

- 첫 번째, 체계적 감시나 엿담행위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체계적 감시와 엿담행위는 심리적 테러 작전 수행의 개시 수단이나 대상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 방법은 도청과 우편검열을 통해서 하거나, 슈타지 정규요원이나 비정규 요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슈타지 정규 또는 비정규 요원에 의한 감사와 엿담행위는 대부분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두 번째, 대상자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하는 의도적인 편의제공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서방국

가로 여행을 보내준다든가 휴가갈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표창, 직장에서의 승진기회 부여, 넓은 주거공간의 주택을 할당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세 번째, 체계적인 접촉 차단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서독 간의 접촉, 입국 또는 출국금지, 우편물의 유치 또는 압류, 전화통화 방해, 통화선 차단 등이 이에 속한다.
- 네 번째, 대상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거나 용기를 상실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끔 함으로써 직업적·정치적·개인적 실패를 조직적으로 유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다섯 번째, 비정규 요원(M)의 집요한 행위를 통해 작전 대상이 되는 자의 체제 적대적이며 부정적인 신념을 파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전 대상자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봉쇄하거나, 작전 대상자가 모범으로 삼았던 인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와해시키거나, 교회 단체가 정치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종교 자체에 충실하게 만드는 “신학화(Theologisierung)”를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과 같은 인식과 의견을 견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업무와 연결시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다른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제의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가지게 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 여섯 번째, 작전 대상자와 주위 사람과의 불신과 불화를 조성하거나, 조직을 와해시키고 각종 갈등을 유발·촉진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특히, 비공식 요원(IM) 및 정치적으로 연대 가능한(politische-operativen Zusammenwirkens: POZW) 파트너를 통해 체제에 대항하려는 자의 힘을 흡수하고, 정치적으로 소망스럽지 않은 활동을 제한하고, 각종 단체나 조직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거나 반대세력을 만들어 조직과 단체가 스스로 해체하려는 작업을 하게끔 유도하거나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들거나 그런 활동을 단념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일곱 번째, 작전 대상자를 빗대어 주위에 악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정보를 제공, 현혹시키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위로부터 격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전 대상자를 “직장에서 실패한 사람, 동성애자,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소문을 낸다든가, 외설적인 성향의 소유자, 이혼자, 돈에 집착하는 자, 알코올 중독자, 범법자, 성격장애자, 극우세력 연루자, 과거가 복잡한 자, 서방국가 비밀경찰 내통자 또는 가장 흔히 사용하는 슈타지를 위한 특수업무 수행자”로 소문을 내는 것이다.
- 여덟 번째, 심리적 테러의 형태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정기적이며 반복적인 (야간) 전화걸기, 협박하거나 모욕주기, 불신, 갈등, 소외감을 조장하거나 불륜관계를 의도적으로 꾸며서 애정관계나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일부 인신공격성 내용을 포함하여 허위로 이야기를 꾸며 대대적으로 유포하거나, “정서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히스테릭하게 만들거나, 기타 우울병적 행동을 유발”하는 방법도 사용되었다.

- 아홉 번째, 슈타지가 “정치적인 연대가 가능한 파트너(POZW)”를 통해 압박하는 방법도 있었다. 예를 들어 슈타지가 작전 대상자를 교육기관(학교, 대학)의 대표나 지도부 또는 사회주의통일당, 자유독일청년단(FDJ), 기타 정당이나 사회기관의 지도부에 소환하는 것이다. 소환된 자는 교회와 같은 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자가 조사를 받게 하고, 그 결과 해당자가 교육, 직업, 여행과 관련된 사안에서 부정적인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제재에는 인문계 중·고등학교(김나지움) 입학 불허, 대학 진학 불허, 정학 또는 대학 등록취소, 직장에서의 승진 저해, 출판금지, 취업금지, 여행신청 거부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대상자를 현역 군인이나 예비역으로 징집하거나, 정당 및 사회기관으로부터 축출하는 방법도 있다.

- 열 번째, 각종 형법적인 판결과 관계없는 형태의 억압 방법을 사용한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슈타지에 의한 취조, 가택수사, 송치, 심문, 차압, 압류, 국적취소, 주거제한(가택연금, 베를린 거주금지 등, Berlin-Verbot, ‘베를린 거주 금지’는 구동독 시절 특정인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대체로 수 년 동안 동독의 수도인 베를린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만든 조치임. 이의 대상자는 신분증명서에 그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음: 역자 주), 직장제한, 원거리 직장 배정, 관세 또는 조세기관으로부터의 심문, 슈타지 내무국에서의 진술, 범죄사건에 연루시키거나 법규를 위반하도록 유도, 임시증명서(PM 12), 운전 면허증 압수, 친자에 대한 양육권 박탈, 형법상의 제재를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위압감을 느끼게 만들기 등이 있었다.

- 열한 번째, 관세 및 세금 관련 부정행위와 같은 비정치적 불법 행위, “비사회적 행동”으로 공공질서와 공공안전을 저해했다는 명목(형법 제249조 위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죄를 씌워 대상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방법도 있었다.
- 열두 번째, 자동차의 의도적 파손, 범죄 행위(강도, 무단침입, 급습)의 조작, 의도적인 의료사고, 신체적 폭력, 음식물에 독극물 첨가, 자살 의도나 시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특수’하고, ‘공격적’이거나 ‘생생한’ 방법 등을 통해 대상자를 위협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심리적 테러에 대한 조치들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기 나열된 방법들은 결코 전부는 아니지만, 그나마 제시된 것만으로도 “낮은 강도”의 테러, 즉 소리 없는 테러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했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들을 전략적으로 상호 연결시켰을 때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왔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슈타지가 사용한 “심리적 테러가 그 방법 면에서 매우 다양하며, 실질적으로 그 한계가 없었다”라는 표현은 그 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슈타지가 사용한 테러의 효과는 대부분 비공식 요원(IM)에 의해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그 내용은 테러 방법 적용 실태보고서, 월간보고서, 감독보고서 등에 나타났다. 슈타지가 취한 조치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면, 해당 조치는 종료된다. 그러나 그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추가조치가 확정되었고, 추가조치는 감시 하에 실행된다. 테러 조치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사항이 보고서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

“테러 조치가 취해진 이후 대상자의 자살기도 횟수가 증가하였음. 이는 작전 대상자들이 테러 조치로 인해 절망감, 낙담, 체념감에 빠져 자신들이 개인적, 직업적, 사회적으로 당면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결론

1970년대와 1980년대 동독 슈타지에 의한 대주민 정치적·심리적 테러는 동독의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 이전보다 훨씬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슈타지는 형법이 주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적용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탄압했다. 여기에는 슈타지 비공식 요원(IM)과 소위 슈타지와 “정치적으로 연대 가능(POZW) 파트너”가 핵심 역할을 했다. 「정치적 연대 가능 파트너」의 범주에는 내무성이나 지역 의회, 대학 지도부, 기업 경영진, 주택관리단, 저축은행(슈파카세, Sparkasse)지점, 의사 등 다양한 기관과 사람들이 속해 있었다. 동독 주민에 대한 비형사적 탄압은 슈타지가 관여하는 것과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모든 탄압의 배후에는 슈타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슈타지가 관할했던 모든 탄압과 테러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개인적 면을 낱알이 파헤쳐 정신적인 영향을 가하고 이를 통해 그 대상자를 조종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슈타지는 자신이 사용한 조치에 대해 대상자가 나타내

는 반응에 따라 그들을 “회유 가능한 자,” “무력화 대상자” 또는 “교정 불가능한 수감자”로 분류했다.

비교 독재연구의 시각에서 볼 때 전략적으로 계획되고, 대규모로 조직되고 집중적으로 통제하는 형태의 비행사적인 탄압, 즉 심리적 테러는 그 질적인 차원에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형태의 탄압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 공산주의 정권이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기관에 직접 개입할 수 있었고, 첩보와 감시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서독 통일이 가까웠던 시기, 즉 집권 후반기의 동독 정권은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여 정치적인 복종을 이끌어냈던 소위 “전통적인 독재정권”들과는 달랐다. 그것은 동독 정권이 차별화된 사회 기술적인 조종 도구들을 이용, 직접적인 마찰 없이 주민들을 복종시키는 높은 수준의 사찰체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슈타지와 동독 내무성의 출국 제한 조치

카르스텐 뒸멜 (Karsten Dümmel)

동독에서는 1949년 동독 정권 수립 이후 1988년이 되기까지 동독을 계속적으로 떠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세워지지 않았었다. 아주 극소수 범주에 속하는 사람, 예를 들어 청년 퇴직자, 신체장애자와 불구자, 결혼을 통한 가족 구성을 위해 이주하는 사람들만이 외국으로의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서독으로 떠날 수 있었던 동독 주민의 수는 베를린 장벽이 구축된 1961년 8월부터 1989년 9월까지 50만 명 이상이나 되었다. 여기에는 33,755명이 정치범 석방거래를 통해 서독으로 보내진 사람들이었으며, 약 20만 명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주를 모색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나머지는 어떤 형태로든 이주나 해외여행을 신청하여 승인된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1970년 중반 당시 동독

공산당과 슈타지가 보기에 정치적으로 큰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 불안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자들이었다. 한편, 국제사회는 동독에 헬싱키 유럽안보회의와 UN가입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국제 차원의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에 따라 동독 주민들은 1975년 이후 계속적으로 여행의 자유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를 요구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동독국적을 포기하고 서독으로 이주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여행을 위한 출국신청이 기각될 경우, 당사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따라 동독 공산당과 슈타지는 해외여행을 하려는 주민들의 욕구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동독 주민들의 출국 신청과 관련된 작업은 해당 신청자가 거주하는 각 시청 혹은 군청에 있는 내무국(Abteilung Innere Angelegenheiten)에서 맡아 처리했다. 그러나 내무국이라고 하지만 실제 베를린 소재 내무성(Ministerium des Innern: Mdi)의 전위 위장 조직이었다. 다시 말해 비공식적 혹은 공식적으로 슈타지와 정보를 교환하는 기관이었던 것이다. 출국 신청인들에 대한 “구분작업(Differenzierungsprozess)”은 내무성 기밀 지시 제18/77호와 기밀 명령 제 6/77호에 따라 이루어졌다. 모든 작업은 카드 제 IA 30호의 개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일단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1. “이주를 위해 시도한” 주민
2. “국외로의 거주지 변경 심사를 신청했던” 주민

첫 번째 그룹은 다시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었다.

- a. 적극적으로 이주 노력을 기울인 주민
- b. 소극적으로 이주 노력을 기울인 주민
- c. 신청 기간 후에도 적극적으로 이주 노력을 기울인 주민
- d. 신청 기간 후에 소극적으로 행동한 주민
- e. 신청 시도를 포기한 주민
- f. 출국 허가가 난 주민

해외로의 출국을 의도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신청자를 구분하기 위한 면담(Differenzierungsgespräch)”과 “징계조치(Disziplinarmaßnahme)” 등을 동원하여 출국 신청서를 제출한 동기에 대해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서 해당자가 출국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었다. 구분을 위한 면담과 징계조치에는 당사자의 직장, 소속 당 혹은 단체와 같은 소위 “정치적 연대 가능 파트너(Partner des operativen Zusammenwirkens: POZW)” 뿐만 아니라 내무국 및 슈타지도 직접 개입했다. 구분 작업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했다.

- 첫째, 친 동독 성향으로 회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앞으로도 이주 시도를 하지 않을 진정성을 가진 사람”
- 둘째, 친 동독 성향으로 회유 가능성이 없고, “지속적으로 이주 시도를 할 사람”

슈타지가 관심을 기울였던 대상은 바로 두 번째 사람의 경우였다. 그 외의 모든 신청인들은 별도로 내무국으로 이첩되어 분류의 수위가 조정될 때까지 관리되었다. 물론, 신청인들은 자신이 어떤 그룹으로 분류되는지 알 수 없었다. “회유 가능성 없음”으로 분류된 신청인들에 대해 내무국과 슈타지는 또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류했다.

첫째, “개전의 가망성이 없거나” “개전의 의지가 없거나” “집요한 신청인”으로  
분류된 자

둘째, 사회주의 국가질서와 사회질서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대적이거나 혹은 적  
대적이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자

먼저 해외로의 출국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자에 대한 동독 국  
적 박탈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신청서에 대  
해 어떤 과정, 어떤 방식, 어느 기관과 어느 담당자를 통해 ‘허  
가’ 혹은 ‘기각’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유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게 했다.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자는 진정, 국가소원위원  
회에 이의 제기, 항의서한 전달, 재신청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  
었다. 슈타지는 출국 허가과정에서 개입, 불허할 수 있는 절대적  
인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사실상 결정권이 슈타지에 있었  
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의 경우에  
는 슈타지 의장인 밀케(Mielke)나 호네커(Honecker) 국가평의회 의장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출국 허가가 내려진 이  
후 과정에 대한 감시도 슈타지의 몫이었다. 1970년대 말, 출국 신  
청서가 쇄도하자 슈타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 담당부서를  
두었는데, 각 구역 및 동 단위 지부에 슈타지 분소 형태의 조정  
본부(Zentrale Koordinierungsgruppe: ZKG)가 그것이다. 슈타지와 내무국은 앞  
서 구분한 해외 여행신청자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류의 신청자  
들을 “공작적 통제(operative Kontrolle)”라는 이름으로 관리했다.

첫째, 공공의 주목을 받는 자 혹은 직업 및 사회지위적인 차원에서 예방할 필요  
가 있는 자

둘째, “비사회주의의 국가 기관이나 시설과 접촉한 자,” “서방세계의 언론매체와 기  
자와 접촉한 자” 또는 교회 단체와 접촉한 자

셋째, 과거 해외 출국이 허가되었거나 대동독 적대적 단체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구동독 주민과 접촉한 자

징계조치는 심리적 테러조치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형태 또한 다양했다. 당사자들은 직장에서 이유 없이 해고되거나 해고를 목적으로 특정 구실을 붙였다. 다른 징계 유형으로는 보조직 일자리에 근무하도록 제한하거나, 동독 내 여행 금지, 구금, 가택연금(공휴일 외출금지), 이의 신청 및 청원권 박탈, 유선전화선 차단(불법 사용 금지 명목), 수시 출두보고 의무 부여 등, 시민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했다(신분증 압수 후 PM 12 임시 신분증 발급 등).

슈타지는 동독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민들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고 스스로 여러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려는 사람들의 공민권을 박탈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또는 작전 수행 차원에서 선호했다. 이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대부분 반체제 활동을 했던 자들이거나, 슈타지가 볼 때 그들의 행동이 동독의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떨어뜨렸다고 간주되는 자들이었다. 출국 신청을 기각 당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결정을 쉽게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들은 여러 공공기관에 소원을 신청하고, 이의 제기와 재신청 절차를 밟았다. 또한 이들은 뜻이 맞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출국 의사를 수용해 줄 것을 공개 시위를 통해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슈타지로 하여금 별도의 조치를 다시 취하게 만들어 결국은 이들의 대부분이 체포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물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저항한 신청인 중에는 끝내 출국 허가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출국 허가가 어떤 규정

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는지, 투명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는 1989년까지 전혀 없었다. 내무국과 슈타지의 문건에는 출국 허가 관련 기관의 전횡이나 권력 남용의 사례가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독에서 출국 신청을 했던 주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한 채, 기관에 맡겨져 통제되는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이다.



카르스텐 뉘멜 (Karsten Dümmel)

1963년부터 1989년까지 서독은 거래를 통해 동독의 여러 지역에 수감되어 있던 33,755명의 정치범을 석방시켰다. 석방 막바지에 정치범 1인당 동독이 요구했던 금액은 95,847 서독 마르크(DM)에 달했다. 또한 이를 통해 2,000명 이상의 자녀들이 서독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올 수 있었고, 25만 건 이상의 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정치범 석방거래의 대상에는 소위 예외적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는 동독지역에 수감되어 있지 않거나, 서독 지역에 가족 구성원이 없어도 올 수 있던 특수상황(Härtefälle)의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강력 출국 희망자 내지는 대사관 점령자 등으로 분류되어 따로 관리되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언급한 두 그룹과는 다르게 분류된 사람들이었다. 서독 정부가 1989년 말까지 정치범 석방거래의 대가로 지불

했던 금액은 약 35억 마르크였다.

1963년 이전에도 이미 다양한 방식의 정치범 석방거래가 있었다는 기록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1962년 전후로 교회, 개인 독지가 또는 여러 첩보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다.

“첩보요원 교환”의 형태로 이뤄진 거래는 150건 이상이나 되었다. 민간 차원에서 정치범 석방거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실한 수치는 없다. 다만 1989년 가을이 되기까지 관계자들의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 낸 정보나 메모장의 내용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 경우 동독은 석방거래를 담당할 주체(“고객”) 혹은 서독 거주 석방거래 당사자의 친지로부터 부동산이나 골동품을 ‘추가지급금’ 형태로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석방거래는 개별적인 거래라는 점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책정되어 비용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따라서 동독이 정치범 석방거래를 통해 실제 얻은 수입은 35억 마르크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 공식적인 정치범 석방거래는 1963년 11월 프리드리히가(佛) 전 철역에서 변호사인 위르겐 슈탕에(서독)와 볼프강 포겔(동독), 그리고 몇몇 슈타지 관리들이 입회한 가운데 이뤄졌다. 8명의 동독 정치범이 현금 34만 마르크가 든 가방과 교환되었다. 1인당 평균 42,500마르크가 지불된 셈이었다. 첫 석방거래가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동독 측 변호사인 포겔은 서독 정부가 1,000명에서 12,000명의 동독 정치범들을 사들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1963년 11월 첫 석방거래가 이루어진 후 서독 정부는 더 이상 정치범 석방의 대가를 경화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재화를 통한 대가 지불에 합의했다. 동독이 이에 합의했던 이유는 결핍의 경제(Mangelwirtschaft)로 명명되는 동독 사회주의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재화를 구입, 경제를 지탱하려는 의도를 가졌었기 때문이었다. 대가 지불용 재화로는 의약품, 남방 과일, 동, 철강, 석유를 포함, 산업재 및 소비재 등이었다. 하지만 서독에서 온 원자재와 제품들은 동독 경제에 부분적으로 또는 개별분야에 한해 도움이 될 뿐이었다. 일반적으로 1966년 이전 제공된 재화들은 슈타지에 의해 설치한 상업조정(Kommerzielle Koordinierung: KoKo, KoKo는 1966년 합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막론하고 경화(Hard Currency)를 확보하기 위해 동독의 대외교역성에 설치된 부서. 경화확보의 방법으로는 동서독 국경 통과로 설치한 면세점(Intershop) 및 서독에서 동독으로 보내는 선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선물 위탁처(Genex) 운영, 동독산 자동차 수출(Trabant, Wartburg 등), 무기판매, 서독지역 쓰레기 반입, 외환시장이나 금 거래소에서의 투기를 비롯하여,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치범 석방거래 등도 있었다: 역자 주) 부서를 통해 국제시장에서 이익을 붙여 재판매되었고, 그 대금은 특별계좌 제528호 및 628호에 입금되었다. 본 특별계좌는 1972년까지는 울브리히트 국가평의회 의장, 그 후 슈타지 성장이었던 밀케, 1974년부터는 호네커 사회주의통일당 서기장이 관리했다. 울브리히트 의장에 의해 관리되었던 1967~68년 동안 본 자금은 동독 경제에 투입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슈타지 조직 증강에 사용되었다. 반면, 호네커 서기장 관할 시기부터는 특수 행사나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그냥 계좌에 예치된 상태로 보관되었다. 특수 행사나 목적은 공공기념일 등 국가 규모의 행사, 혹은 쿠바나 베트남 등 사회주의 ‘형제 국가’ 원조에 사용한 것 등을 의미한다. 1989년 말 기준으로 본 특별계좌에 예치되었던 자금은 무려 21억 마르크에 달했다.

성탄절 즈음에는 정치범 석방거래의 대가가 동독 주민들에게 제공될 남방 수입과일로 대체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빌어 구태여 단순 계산을 해 본다면 당시 동독 정치범 한사람의 가치가 석유 몇 배럴, 파인애플 몇 상자에 해당되었는지도 알 수 있다.

정치범 석방거래를 담당했던 서독 측 기관은 먼저 전독일관계성(전독성), 후에 연방내독성이었다. 반면, 동독은 사회주의통일당 내무국과 연계되었던 슈타지 중앙조정본부(ZKG)였지만, 때로는 호네커 서기장실 또는 호네커 서기장이 직접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거래는 대부분 슈타지 상업공조(KoKo) 본부를 통해 동서독 대표 변호사들의 참관 하에 이루어졌다.

1960년대와 1970년에 들어서까지 정치범 석방거래의 대상이 되었던 자는 우선 슈타지가 “동독의 적”으로 간주했거나 “동독을 탈출한 자”로서 국가에 대해 “적대적·부정적인 자”, “확실하게 적대적·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힌 자”들로서 더 이상 친 동독, 친 사회주의로 회유할 수 없는 대상으로 분류된 자들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이 같은 방침은 크게 바뀌었다. 다시 말해 정치범 석방거래의 주 대상이 “동독 탈출 의지를 강하게 가진 자” 또는 “동독 탈출을 시도한 자”들이 되었다. 물론, 정치범으로 체포되어 석방거래 대상에 오른 반체제 인사나 정권이 비선호하는 자들도 여전히 존재했다. 그러나 이들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슈타지는 때때로 정치범 거래에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또한 개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즉, 심리적 테러 계획에 의한 공작조치의 대상으로 수감된 사람들을 서독으로 보내 동독 내 반체제 인사들의 움직임을 제거하는 동시에 이들을 통해 서독 연방내독성으로부터 돈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정치범 석방거래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독이나 동독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석방 거래 대상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동서독의 변호사와 협상책임자가 만나 결정하게 된다. 협상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서독 연방내독성이 동독에 제시하는 명단에 올라가 있어야 했다. 이 명단은 서독 정부가 서독이나 서방국가에 있는 동독 주민의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또는 국제인권단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서독 연방의회 의원이나 주정부의회의원, 기타 동독 내에서 정치범으로 곤경에 처해 있거나 재판에 회부된 구체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호단체들로부터 입수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석방 대상자로 거론될 경우, 서독 정부 담당자가 이를 조사하고, 문서화한 다음 연방내독성에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동독 주민들은 비밀 전달 통로를 통해 또는 제3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서독 연방내독성으로 직접 서한을 보내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동독 지역 내에서 서독 방송을 청취할 수 있었던 여러 방송국 중 하나였던 리아스 베를린(RIAS Berlin)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동독 주민들이 서독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서독 주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그리고 각각 다른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내보냈다. 물론, 방송을 통해 언급되는 서독 사람은 실제 서독 사람이 아닌 단지 동독에서 온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허수아비(Strohman)” 주민이었다. 동독 슈타지도 그 방송을 들었으며, 동독 주민들의 편지를 중간에 가로채거나 편지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치범 석방리스트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별 소득이 없었다. 왜냐하면 슈타지가 작성한 정치범 석방대상자 협상명단에 결국은 그

런 사람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독은 그야말로 서독에 팔기 위한 정치범들을 “대량 생산”해 내기에 이른다. 예를 들어, 동독 주민들이 출국신청을 했다는 표시로 스스로 자가용이나 아파트 창문에 흰색 A자를 붙이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이 되었다. 또한 1987년에 “동독 탈출자”를 포함한 대거 사면조치에 따라 줄어들었던 구금자의 수를 1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의도적으로 되돌려 놓기도 했다.

동독의 정치범 석방거래를 위해 수감 지역에서 교환장소로 이동하는 데에는 1987년까지 특수 버스를 사용했다. 이 버스는 정치범들이 합동으로 수용되었던 켐니츠(CheMNitz) 지역의 칼 마르크스 슈타트(Karl-Marx-Stadt)에 있는 슈타지 교도소(동독 공식 지명 정보에 표시되지 않음)로부터 거래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태워 국경지역까지 수송했다. 그러나 가족 상봉이나 지체부자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대상자들을 태워 수송했다. 어떤 경우에는 석방거래 대상자가 24시간 내 동독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1987년 이후로는 정치범들도 동독 지역을 일단 벗어난 후 단시간내 “영구 동독 출국 허가”를 받기도 했다.

동서독 간 정치범 석방거래가 이루어졌던 배경은 이에 참여했던 주체에 따라 각각 달랐다. 서독 정부의 경우에는 독일 분단에 따른 동독 독재 체제하에서 고통 받는 동독 주민들이 생존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었다. 이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주민들은 법치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범법행위(예: 보이콧, 선동, 동독 이탈, 반국가적 선동, 반국가적 단체 조성 등)로 인해 처벌 받는 사람들이었다. 동독 정부는 정치범 석방거

래라는 주제가 추후 서독 지역 선거 유세에서 사용되고 기타 정치적인 고려의 수단이 되는 것에 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와 같은 행위가 양 측이 합의한 절대비밀(대언론 포함)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범 석방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잡음이 항상 끊이지 않았다.

동독 측에서 볼 때 정치범 석방거래는 자국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는 일종의 통풍구 역할을 했다. 정치범 석방거래를 통해 동독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국가의 적”을 제거할 수 있었고, 저항 세력의 약화와 사상적 지도자들을 격리시킬 수 있었으며, 동독 체제에 불만을 가진 출국 희망자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정치범 석방거래를 통해 서독으로부터 받는 수입에 대해 동독 정치가들은 거의 공개적으로 “동독 지역에서 학자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투입된 교육비용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체비용으로 생각했다.

00148 Ministerium des Innern	Arbeit der Organe des MfI	70 02 00
	- Übersiedlungen -	2
5. Austauschblatt (11. Ä. v. 24. 3. 88; i. K. 88)		
<u>Vertrauliche Versandsache</u>		
I 020 800		
NE 000773	. Ausf., 17a-42, 4a, 6a, 8a-8b, 11a, 12a-12h, 17a-17b, 26a, 33a-33b, 34a-34b, 37a-37c, 38a-38g, 38a und 35 Blatt offen	
<b>Ordnung Nr. 024/77</b>		
des Ministers des Innern und Chefs der Deutschen Volkspolizei über		
das Vorgehen bei der Unterbindung und Zurückdrängung von Ver- suchen von Bürgern der DDR, die Übersiedlung nach der BRD oder nach Westberlin zu erreichen, das Verfahren zur Genehmigung von Anträgen auf Wohnsitzänderung nach der BRD und nach West- berlin, das Verfahren bei Eheschließungen zwischen Bürgern der DDR und Ausländern, die Behandlung von Staatsbürgerschaftsfrag- en, den Verkehr mit Behörden und deren Einrichtungen der BRD und Westberlins sowie über die Behandlung von Anliegen aus der BRD und aus Westberlin		
- Vom 8. März 1977 -		
<p>1. Diese Ordnung bildet die Grundlage für die Gewährleistung eines ein- heitlichen und abgestimmten Vorgehens bei der Unterbindung und Zurückdrängung von Versuchen von Bürgern der DDR, die Über- siedlung nach der BRD oder nach Westberlin zu erreichen, die Durch- führung des Antrags-, Prüfungs- und Entscheidungsverfahrens zur Wohnsitzänderung von Bürgern der DDR nach der BRD oder nach Westberlin, Eheschließungen mit Bürgern anderer Staaten und West- berlin, die Behandlung von Staatsbürgerschaftsfragen, den Verkehr mit Behörden und deren Einrichtungen der BRD und Westberlins so- wie die Behandlung von Anliegen aus der BRD und aus Westberlin.</p> <p>Diese Ordnung tritt am 8. März 1977 in Kraft.</p> <p>Gleichzeitig treten außer Kraf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weisung Nr. 024/67 des Ministers des Innern und Chefs der Deutschen Volkspolizei über die Bearbeitung von Anträgen auf</li> </ul>		



## 슈타지의 격리수용 계획

토마스 아우에르바흐 (Thomas Auerbach)

슈타지의 격리수용 계획은 25년을 넘게 유효했던 계획이었다. 본 계획을 통해 약 86,000명의 동독 주민들이 일시에 비밀리,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수용되었다. 격리·수용 대상자들은 슈타지의 소위 “위기관리총괄본부(Vorbeugungskomplex)”에서 따로 분류해 놓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동독 내 긴장이 고조되거나 국가를 방어해야 하는 위기사태가 발생하면 곧바로 체포되고 격리되어야 할 대상들이었다. 다시 말해 전략적으로 보다 강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슈타지의 격리수용 계획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24시간 내 지정 건물들은 철조망이 둘러쳐지고 초소가 설치되는 등, 동독 지역 전체가 격리수용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게 된다. 수백 명의 슈타지 요원들은 수십 년째 이와 같은 조치에 대비해 왔으며, 언제라도 그와 같은 계획

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훈련되었다. 슈타지 산하 소도시 단위 지부의 보관고에는 동독 정권이 끝날 때까지 겹면에 암호명 “KZ 4.1.3.”이라고 표시되어 밀봉된 편지봉투가 건사되어 있었는데, 그 봉투에는 면밀하게 작성된 인적자료가 들어 있었다. 이 비밀 봉투는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암호를 사용하여 열어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 인적자료는 슈타지의 무장 체포부대가 예방차원에서 수천 명의 동독 시민들을 격리·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담고 있었다.

## 비밀지령 제/67호

1967년 6월 국가안전보위성장(슈타지성장) 에리히 밀케(Erich Mielke)는 “특수전략적 조치(spezifisch-operativen Maßnahmen)”와 관련, 차후 대비해야 할 모든 문서에 담아야 할 지침(Direktive)을 하달한 바 있다. 본 지침은 “위기관리총괄계획”에 포함된 격리 수용소들이 상호 암호 체계로 연결되어 전국가적 차원의 이동준비계획과 함께 국가비상사태시 슈타지 정권의 자체 무장계획도 담고 있었다. 물론, 이에 대한 최후 명령은 1971년 이후부터 동독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에리히 호네커에게 있었다.

격리수용 계획, 실천, 통제 및 격리수용소 설치에 요구되는 특수 전략적 조치 또한 슈타지가 관할하는 구역 지휘부가 담당했다. 지휘부의 구성 및 격리 수용계획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1953년 6월 17일에 동독지역에 있었던 시민봉기에 대한 동독 공산당 및 내각의 대응에 배경을 두고 있다. 1954년 1월,

당시 내무성 장관이었던 빌리 슈토프(Willi Stoph)은 슈타지 구획 지휘 부에 다음과 같은 중요 임무를 부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파업, 데모, 소요, 반란과 같은 적대적 도발행위를 저지하라”는 것이었다. 1967년 1월 26일에는 국가주석이었던 울브리히트(Ulbricht)의 주도 하에 국방위원회(Nationaler Verteidigungsrat: NVR)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앞서 언급한 밀령 제1/67호(Direktive 1/67)가 결의된 바 있다. 본 지령의 도입과 관장은 각 성의 관련 업무 담당 책임자가 하되, 실제 추진은 슈타지가 관할하는 구획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다.

## 격리와 감호의 구분

밀케가 하달한 밀령 제1/67조는 위기관리예방조치와 관련, “감호(Internierung)”(코드명 4.1.2.)와 “격리(Isolierung)”(코드명 4.1.3.)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 두 개념은 각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감호는 동독 내 긴장이 고조되고 국가방위가 요구될 때, 그 시점에 동독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동독 지역을 통과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였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감금과 관련된 책임은 동독 내무성(MdI)과 동독인민경찰(DVP)에 있었다.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각각 21,000명에서 최대 2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총 35개의 감호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물론, 슈타지가 본 계획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했다. 슈타지의 전략팀이 감금소의 심문 전문가 또는 비공식 요원(IM)의 관리자로 활동하게 되어 있었다. 게다가 855명의 외교관과 특파원을 감호하기 위한 동베를린 내 감호소

는 내무성이 아닌 슈타지 총국 제Ⅱ실(대간첩활동부서)에 의해 설치, 관리, 운영되도록 되어 있었다.

감호와 구분해야 할 개념은 위기관리기관이 담당하는 격리조치다. 격리는 오직 동독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즉,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국가위기시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1988년 12월 슈타지는 85,939명의 동독 주민을 국가위기시 격리대상자로 선정·관리하고 있었다. 그 중 2,955명은 슈타지의 조사를 위해 구금이 예정되었던 사람(분류번호 4.1.1.)이었으며, 10,726명은 격리수용소로 이송할 사람(분류번호 4.1.3.)이었다. 그 외 937명은 감시를 강화해야 할 소위 “신뢰할 수 없는(unzuverlässige)” 간부들로 차후 해고 대상자(코드명 4.1.4.)로 분류되어 있었다. 나머지 71,321명의 동독 주민은 슈타지에 의해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자(feindlich-negative Personen)”로 간주된 사람들이었다(코드명 4.1.5.). 이들 중 조금이라도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격리수용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 자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거시적 차원에서 슈타지가 직접 계획하고, 또 실제로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 그들이 동독 내 존재하는 수백 명에 달하는 저명 인사나 반체제 인사에 대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졌던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슈타지가 국가의 적으로 설정, 격리수용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정치적 신념에 의해 행동을 한 좁은 의미의

정치적 인사들뿐만이 아니었다. 슈타지는 조금이라도 체제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모든 동독 주민들을 격리수용의 대상으로 삼았다. 국가위기관리총괄본부의 조치라는 것은 사실상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선전선포나 마찬가지였다. 이는 그들이 만든 “특별작전을 통한 국가위기 예방조치 이행문서의 구체화 및 정교화 방안(Präzisierung und Kompletierung der Dokumentation der spezifisch-operativen Vorbeugungsmaßnahmen)”이라는 것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슈타지가 1984년 1월에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한 “방법론적 지침 안내”라는 것이 있는데, 이의 “제1별첨”에 체포기준이 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반체제적이고 저항적인 행위 모든 형태가 체포의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격리 수용의 대상은 “동독 사회주의 국가 및 사회질서에 대해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확고하게 보이고 평소의 행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발언, 인맥, 생활양식이나 행동방식 등에 있어 국가안전과 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보고도 묵인하거나 지원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격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범주도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다른 사고를 하는 사람이나 특정 주민집단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국가를 상대로 협상을 벌일 수 있는 비중을 가진 자, 둘째, 해외로 이주하기 위해 시도했거나 서독과 서베를린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과 연계되어 있거나 접촉한 사람, 국가에 대해 시위를 했거나, 즉흥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일 성향이 강한 사람, 셋째, 카톨릭 교회 내 반체제 성향의 성직자와 기타 동독 내부의 저항인사 또는 서독지역이나 기타 외국에 있는 적대적이고

대동독 부정적 기관이나 인사와 긴밀하고 슈타지의 작전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접촉을 한 자, 넷째, 동독동인민경찰청, K국 (Kriminalpolizei, 즉 범죄수사국의 약자로 보암·역자 주)에 의해 국가위기사태 시 공공질서와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의자 등이었다.

### 독일식 완벽성

동독에서는 ‘디데이 X일’로 결정이 되면 모든 분야에서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사전계획이 세워졌다. 그 어떤 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다. 독일 특유의 완벽성이 발휘되었다. 예를 들어 체포 대상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이름, 주소, 사진,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등을 낱낱이 파악하여 적고 항상 업데이트했다. 또한 본 서류에는 대상자 집의 초인종이 바깥문에 있는지 아니면 현관문에 있는지를 표시해 놓았으며, 집에 “다른 출구가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많은 다른 사항까지도 기록했다. 슈타지는 우연의 일치나 예상밖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포 대상자가 사는 집의 약도와 사진까지 확보해 두었다. 체포조의 규모와 장비도 미리 정해 놓았다. 체포조는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대의 승용차, 초단파 통신기, 두 자루의 기관총, 결박용 곤봉자루, 수갑, 방망이, 손전등, 필기구가 제공되었다. 체포과정은 두 단계로 나뉘어졌다. 체포 후 격리·수용될 자는 우선 “임시 격리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임시 격리수용소가 몇 개나 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1989년의 경우를 보면, 모든 슈타지 단위 구역에는 그와 같은 수용소(예를 들어 휴

양소, 훈련용기숙소, 여인숙, 박람회장과 같은 형태)가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거처들은 수용명령 발동, X + 8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의 단시간 내 수용소로 완전하게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슈타지의 단위 구역 지부 건물 내 임시 수용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제로브(Seelow) 지부의 경우 각기 25명과 10명의 인원이 수용 가능한 지부 내 두 개의 주차장을 임시 격리수용소로 만들어 놓았다. 이 주차장에 2미터 높이의 강철 창살을 두르고, 경비견을 배치했다. 내부에는 10m<sup>2</sup> 정도의 면적에 짚을 깔고, 이동식 화장실(변기통) 및 의자를 설치할 수 있게끔 계획해 놓았다. 12시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숙식규정(Verpflegungsnorm)”에 따라(일인당 0.50마르크 상당) 빵 300g과 온수 또는 냉수 2L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튀링엔 주 잘펠트(Saalfeld) 지부의 경우에는 격리수용자를 대상으로 자체 규칙까지도 마련해 놓았다. 이 규칙은 1989년 7월 26일에 제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데, 여기에는 체포된 사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교화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본인에게 유용한 작업에 투입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격리 수용된 사람은 “매일 실시되는 인원점검”에 어김없이 정확하게 참여하는 것 외, “수용소의 질서와 청결”을 유지해야 할 것을 임무로 부여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수용소에 구금된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 인간공동체 내 공존의 원칙을 숙지”하라는 규칙이다. 그 밖에도 격리 수용된 사람들에게 “충기사용규정을 숙지한다”는 규칙도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수용소 내 민간인 직원을 부를 때 수용자들이 사용할 호칭도 정해져 있었다. “직업명에 ‘씨’를 붙인다”는 규칙도 부여되어 있었다(예를 들어 요리사씨, 주방보조씨 등).

## 1개 수용소에 6천 명 수용

격리수용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임시 격리 수용소에 수용된 지 6일 이후 “중앙 격리기관”으로 수송되었다. 동독 지역 15개 행정 단위에는 이러한 중앙 격리수용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물론, 다른 임시 격리수용소와 마찬가지로 중앙 격리수용소의 설치 역시 비밀리에 계획되며 사진, 도면, 지도 등을 비치해 놓고 있었다. 인구밀도가 높은 행정 단위에는 두 개의 중앙 격리수용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대도시 행정 단위에는 고성과 요새가 수용소로 지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칼 마르크스 슈타트시(Karl-Marx-Stadt)와 같은 경우에는 아우구스투스부르크성(Festung Augustusburg)이 중앙 격리수용소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들 수용소 예정 건물들은 “감호소 1(Gitter 1)”이라고 불려졌다. 그 곳에는 6천 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었다. 제2의 수용소도 동일 행정 단위 내 추가로 지정되어 “감호소 2(Gitter 2)”의 이름으로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게 했다.

“격리를 위한 준비 및 실천에 관한 기본원칙(Grundsätze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Isolierung)”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예를 들어 수용소는 “서독 국경으로부터 최소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과 폐쇄된 지역에 위치해서는 안되며, “인력동원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수용소는 가능하면 강제노동수용소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세부적 기준이 세워져 있었다. “지문을 찍는 종이,” “구금자에 대한 평가를 적는 용지,” “의복상의 표식” 등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 밖에도 “각 방 및 숙소별 최고 연장자”는 “2cm 너비의



녹색 띠를 팔에 둘러야” 하며 “각 작업단위 대표”는 “SL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노란색 띠를 팔에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해 두었다. 더 나아가 이 띠를 어떤 위치에 착용해야 하는지, 어떤 색상의 어떤 이니셜을 어떤 위치에 부착해야 하는지도 상세하게 마련해 놓았다. 수용소 부지 앞에 설치될 “외부인 출입 금지 지역” 표지판의 크기까지도 정확하게 지정해 놓았다. “표지판: 675×400×4mm, 백색, 테두리 없음, 글자: 검정색, 표지판 기둥: 80×100×2,900mm, 총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100mm” 등이었다. 심지어 수색견 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 자국민을 두려워한 슈타지

이상과 같은 슈타지의 격리수용 계획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사회주의통일당 정권은 순식간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사회주의통일당이 수십 년 동안 우려했던 일이자, 슈타지가 그토록 철저하게 대비했던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1989년 8월 슈타지가 개최했던 마지막 회의에서 슈타지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밀케는 읊면 단위 지부(BV)대표들에게 두려움에 떨며 “우리는 내일 끝내 옛날 6월 17일의 비극(1953년 6월 17일 동독 주민이 베를린에서 동독 정부에 대항하여 일으킨 봉기. 소련군 탱크에 의해 진압된 사건. 역사 주)을 맞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물었다. 지역 단위 슈타지 대표들은 밀케에게 당시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답변을 했다. “아닙니다. 결코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밀케가 던진 질문의 이면에는 자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사실 격리수용소 설치를 계

획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국민에 대한 밑케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동독 주민에 대한 대규모 체포도 일어나지 않았고, 격리수용소도 설치되지 않았다. 슈타지의 유례없는 대규모의 격리수용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무산되었지만, 이는 사회주의통일당의 폭압정치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볼프강 템플린 (Wolfgang Templin)

이 글의 필자인 나(볼프강 템플린)는 동독 체제에 저항한 사람이자 시민운동가로 알려진 사람이다. 나는 대학 시절 슈타지와 협력했다가 추후 조직에서 탈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슈타지의 행동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그리고 동독 독재 하에서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1948년 튀링엔 대학으로 유명한 예나 시(耶那)에서 태어났다. 당시 동독이 아직 건국되기 전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3년이 지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동쪽 지역에서는 이미 새로운 정치적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미군은 1945년 4월 예나 시를 비롯한 튀링엔 주 전체를 점령한 적이 있다. 그 후로부

터 3개월 후, 튀링엔 주는 베를린 연합행정본부의 합의에 따라 전승국인 소련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된다. 소련 점령 지역에서 이루어진 탈나치화 작업과 재건 작업은 타 지역과 대부분 대동소이 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동독 지역에서는 나치 국가사회주의 범죄 청산,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재산몰수, 활약 중인 나치 잔존 세력 제거, 그리고 행정, 학교, 공공 요직에서의 친 나치 세력 제거 등의 대대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는 모두 합법적인 반파시즘적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역으로 공산주의 정권수립을 위한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1949년 10월이 되자, 독일민주공화국(DDR: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즉, 동독이 건국 되기에 이른다. 템플린의 성장배경이 되는 동독은 사실 스스로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민주주의를 갖추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실상으로 동독은 건국 초기부터 사회주의통일당(SPD)의 통치 하에 있었다. 내 가정에서는 정치라는 주제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나는 수많은 다른 전후 독일 세대의 아이들처럼 아버지 없이 성장했고, 홀어머니는 임시직으로 생계를 연명했다. 내 가족이 튀링엔에 머무른 건 솔직히 말해 서독으로 건너가 새 삶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가족은 사회주의통일당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가 학교에서 접한 교사들은 대부분 전쟁 이후 급히 교사양성교육을 받았거나 동독의 현실에 적응했던 사람들이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역사, 독일어, 국민교육 등 교과목 시간을 막론하고 동독이 반파시즘적 노동자 및 농민의 국가, 소련의 최강 동맹, 역사에 길이 남을 “나치 청산”의 국가라고 주입시켰다.

서방과 서독에 대해서는 “반동분자 국가,” “전쟁광”의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사회정의가 성립되는 사회주의 및 무계급 공산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하며, 축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시켰다. 또한 공식 교과 내용에서는 서독이 구나치 세력들에 의해 다시 장악되었다고 했다. 나는 학교에서 가르친 서독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동독이 역사적 선구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사실 다 믿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의가 수립되는 사회, 빈부 격차가 없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건국 정신에 대해서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는 소련의 아동문학, 브레히트의 공산주의 찬양, 젊은 시절의 마르크스 문학 같은 서적을 읽고 자랐다. 그러면서 인간은 궁핍하고 비참한 존재이며 언젠가는 이 세상이 바뀔 거라는 대문호들의 꿈에 공감했다. 나는 스스로 마르크스주의자라 여겼고, 독일 전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무계급 사회가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서관 사서교육을 받은 후 대학에 진학했다. 전공과목은 철학이었다. 지루한 마르크스나 레닌 교육서는 내 관심 밖이었다. 그보다는 유토피아주의자와 초기 사회주의자의 문학, 그리고 마르크스와 룩셈부르크의 철학 및 사회학 서적을 더 탐닉했다. 나는 수학의 장소로 대도시를 원했기에 동베를린에 있는 훔볼트 대학을 택했다. 동베를린은 장벽에 의해 단절되어 있고 주민 감시가 이뤄지는 도시였지만 나름 국제 도시였고, 대도시만이 줄 수 있는 익명성과 개인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무엇보다도 베를린은 전쟁의 역사가 도시, 그리고 시민들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는 장소로서, 인생 경험이 없는 젊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많은 비판적 시각을 안겨주는 곳이었다. “노동자간부(Arbeiterkader, 노동자 가정 출신의 미래지도자)”의 프로필을 가

진 나는 확신을 갖고 사회주의통일당에 가입했고, 베를린에서 얻은 경험을 동독에 대한 내 자신 속의 긍정적 이미지에 반영하려 했다. 당시 내 나이는 21세였다. 이제 막 첫 학기에 접어든 대학생이었고, 대학 내에서 사회주의통일당원으로서 활동했다. 슈타지 요원이 나에게 접근해 온 것도 그 때였다. 슈타지는 단순히 평범한 접자로 나를 찾은 게 아니었다. 그런 단순한 접자로서의 역할을 할 사람이라면 대학 내, 그리고 철학과에도 충분히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대해 갖고 있었던 계획은 좀 달랐다. 슈타지는 나에게 접근하기 전부터 그들의 업무원칙에 의거, “목표인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이미 마친 후였다. 나는 노동자 계급의 자녀이자, 확신과 비판성을 동시에 갖춘 사회주의통일당 당원이었고, 대학에서는 마르크스주의를 독단적 교리와 이론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뛰어난 학생이었으며, 출세주의자와 위선자를 멋지게 제압할 훌륭한 이상주의자였던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나의 배경은 슈타지로 하여금 “공작지역”인 서독에 대한 항할 지도자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슈타지 업무원칙의 특성은 접근 대상에게 조직의 의도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일단 비밀리에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포섭하는 것이었다. 나의 경우, 통일 이후인 1992년 슈타지 문건을 열람하고 나서야 슈타지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슈타지는 나에게 접근, 비공식 요원(IM)으로 포섭을 시도할 때부터 나를 시험대에 올려놓으려고 했다. 슈타지는 이미 나와 접촉하기 훨씬 전부터 자체 심리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소위 “신념에 찬 사람(Überzeugungstäter)”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른 인물의 경우처럼 돈으로 매수하거나, 온갖 장점들을 늘어놓는다던가, 압력

을 행사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곧바로 거부 반응을 보이고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슈타지는 내가 갖춘 정치의식과 공산주의에 대한 확신을 마음에 들어 했다. 슈타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 두 명의 요원을 내 기숙사로 보냈다. 그들은 나에게 “동지처럼 비판적이고도 적극적인 당원이 대학 내 슈타지 활동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의 특수 문제, 예를 들어 대학 개혁에 대한 내가 가진 시각, 입장, 평가가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했다. 나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슈타지에게 대학 문제와 대학 개혁에 관한 시사적이고 비판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슈타지가 “개혁 세력”을 지원할 수 있고, 그 결과 출세주의자들과 독단자들을 대학에서 축출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또한 그들은 슈타지에 대해 떠도는 소문과는 달리 슈타지가 실제로는 개혁세력을 지지한다고까지 했다.

슈타지 요원들과 접선을 마친 나는 매우 강한 심적 동요를 느꼈다. 나는 이미 슈타지의 행동에 대해 익히 들은 바 있었다. 따라서 슈타지와는 어떠한 접촉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였다. 다른 한 편으로 나는 사회주의통일당 당원이자 대학생으로서 뒷조사, 음모론, 이념평가 보고, 인물평가 보고 등에 익숙해져 있던 상태였다. 그렇다면 슈타지의 제안은 내가 그것으로도 큰 신임을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과연 내가 충실한 당원으로서 그와 같은 제안을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 생각했다. 결국 나는 악마와 거래를 맺기로 결심하게 된다. 나는 슈타지 요원과 비밀리에 식당이나 아파트에서 만나기 시작했고, 대학 내 상황에 대한 보고서 및 평가서를 쓰기 시작했다. 이어 나는

“페터(Peter)”라는 코드명을 부여 받아 비공식 요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기밀 유지 의무도 준수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은 확실히 그어 두었다. 다시 말해 나의 친구, 학우로 나를 믿고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 그리고 나를 훌륭한 비판적 동지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나중에 비공식 요원으로서 이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된다. 누군가 나에게 동독을 탈출하겠다는 계획을 털어놓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슈타지를 위해 친구나 학우를 배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친구와 학우를 위해 슈타지를 배반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나와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은 약 25명이었다. 이 중 몇몇은 나와 같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몰래 접한 문헌을 통해 스탈린의 만행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독재 사회주의의 차이에 대하여, 그리고 동독 역사 뒤안의 진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이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원칙에 계속 심취해 있는 동안 그들은 현실에서 보이는 동독의 모습과 자태로는 동독을 온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때는 무계급 사회를 약속했으면서도 반틀리츠(Wandlitz, 동 베를린에 있는 동독 고위층의 호화집단 주택촌: 역자 주) 너머에서 특권자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회주의통일당 간부들의 모습은 지각 있는 학생들의 눈에 왜곡된 관료주의이자 공산주의로 보였다. 당시 졸업 학기를 남겨두었던 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겉으로는 동베를린에서 열리는 1973년 세계청소년대학생 축제를 조



직하고 열심히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이자 당원 그룹의 책임자로 행동했다. 나는 동독이 세계청소년대학생 축제를 통해 연출하는 이념이 얼마나 큰 기만인지 비판했고, 이에 대해 거리낌 없이 친구들과 토론했다. 내가 속한 그룹에는 점차 뜻을 같이 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때 단순히 학급 친구들이 모여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던 모임이었으나 이제는 비밀스러운 정치적 모임이 된 것이다. 슈타지는 이 그룹 내에서 토론하고 계획하는 내용에 대해 이미 익히 알고 있었다. 나의 보고서를 통해서가 아니었다. 이 그룹에는 내가 아닌 다른 학생이 밀고자로 잠복하여 슈타지에게 모든 움직임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었다. 이 학생이 어떻게 해서 슈타지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는지, 1989년까지 어떤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동베를린 대학의 비열한 밀고자가 되었는지는 다른 기회에 소개할 것이다.

그렇다면 슈타지는 왜 이러한 은밀한 정보원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슈타지는 대학생 그룹의 활동과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내가 변절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왜 나의 뒤를 계속 추적하면서도 축출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왜 나를 불러 자신들의 정보를 들어대고 심문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슈타지가 자신의 뒷에 스스로 걸리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대학생 그룹 내의 정보원은 정보의 “소식통”을 살려두기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했다. 나를 심문하고 공격하면 그룹 내 밀고자가 누군지 곧장 발각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식통”이 위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동안 대학생 그룹

모임에서는 금서를 읽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선을 넘어 반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담은 첫 문헌을 만들기에 이른다. 서베를린 주재 좌파 저항세력의 일종인 트로츠키파와의 접촉도 시도되었다. 사실 이러한 저항적 행동을 하는 단체나 그룹은 다른 시절이라면 당장 체포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호네커 시대의 슈타지의 활동은 은밀했다. 그들은 이념을 교육하는 교수진을 비롯한 대학 내 저항세력을 일단 점 찍어두고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만약 심각한 수준의 사실이 밝혀지면 그 때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통일당 당원의 자녀가 저항세력에서 활동한다고 밝혀지더라도 동독 정권 제2시기에서는 그것을 들어 체포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만일 체포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이루어졌다. 저항세력 그룹들이 그들이 감시당한다는 것을 눈치 채지 않고 계속해서 문건을 작성하는 한, 그리고 굳이 공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슈타지는 은신하면서 그들을 계속 내버려 두었다. 다만, 지하에서 잠복하면서 체포계획을 비밀리에 꾸미고 있기는 했다.

그러던 중 나는 결국 이중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룹 내에 자신의 슈타지 활동에 대해 고백하게 된다. 그룹에서 마침 그들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몇 대학생들이 자신들에게도 슈타지가 포섭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나는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이다. 그룹의 대학생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현재 슈타지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은 슈타지에 대해 그룹의 무엇을 보고했는 지였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 때 친구들이 그 말을 믿어주었다는

점에 나는 안도했다. 내가 만일 친구들에 대한 배반행위를 이미 저질렀다면 그 사실을 먼저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날 밤, 대학생들이 고민했던 것은 단 하나. 어떻게 하면 이 난국에서 빠져나가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정치적 이유를 들어 슈타지와 협력을 단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찬성했다. 사적인 구실을 들어 처해 있는 상황을 탈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었다는 점도 거론되었다. 그러나 그 곳에 있던 어떤 누구도 그들이 했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문서로 작성되어 다음 날 아침 슈타지 관리의 책상에 놓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대학생 그룹 내의 “소식통”은 항상 그랬듯 이번에도 깔끔하게 일을 처리했다. 그럼에도 상황은 참으로 애매했다. 내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슈타지를 배신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슈타지는 나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보원”의 보호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나는 큰 멩에를 벗어버렸다는 생각에서 흥분한 기분으로 슈타지와 비공식 요원으로서의 마지막 접선을 하러 갔다. 그 때 나는 이것이 마지막 접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또한 나는 슈타지가 앞으로 나를 중요하고, 추적하고, “심리적 테러”를 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슈타지 내에서 어떤 경력을 쌓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나는 “미래의 서방 파견 지도자”로 양성되고 있지는 않았다. 슈타지는 일단 멀리서 나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려고 했다. 만일 내가 슈타지에 계속 충성을 했더라면, 언젠가 슈타지는 나에게 서방파견 지도자로서의 “투입 계획”을 공개했을 것이고, 나를 더 철저하게 준비시키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동독

에 비판적이었다는 점을 위장하여 서독으로 탈출한 것처럼 꾸민 후, 그곳에서 활동하게 하면서 서서히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만일 그와 같은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나는 언젠가 서베를린 자유대학에 취직하고, 그 후 동독의 첩자가 되어 서독 연방부처에 진출했을 지도 모른다.

내가 더듬거리며 슈타지 비공식 요원으로서의 활동 중단 구실을 설명하는 동안 슈타지 요원은 노한 표정으로 그저 듣고만 있었다. 나는 심리적 부담, 공부와 병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부인의 의심 등을 이유로 언급했다. 물론, 슈타지는 내가 활동을 중지하려는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소식통 보호의 원칙에 따라 침묵했다. 문서 양도 그다지 많지 않았던 비공식 요원 “페터” 문건은 이로써 종결되었다. 하지만 곧 이어 변절자 볼프강 템플린에 대한 작전적 감시를 위한 새로운 문건이 만들어졌다. 이 문건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는 1989년 기준, 15,000장이나 되었다. “배반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관리된 문건은 처음에는 “인물공작조치(Operative Personenkontrolle: OPK)”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추후에는 “공작조치(OV)” 단계로까지 그 수위가 높아졌다. 문건의 내용은 내가 참여했던 다양한 그룹 및 단체에 관한 정보로부터, 심문 기록, 내 자신과 주변인에 관한 비공식 요원의 보고서, 그리고 슈타지가 나에게 행했던 공작조치 및 심리적 테러 조치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했다.

1980년대는 심리적 테러조치를 비롯한 여러 조치에 의해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나는 다양한 평화운동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동료들과 함께 타 동유럽 국가의 민주주의 저항세력을 모델삼아 독자적 인권단체를

설립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1970년대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당시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 내가 친밀하게 교류했던 대학 내 정치 토론그룹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1976년 초에서 1977말까지 폴란드의 여러 대학에 머물면서 동독 주민 자격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외 체류를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슈타지는 내 활동과 관련,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동독 저항세력의 일원들이 서독과의 접촉을 강행했기 때문이었다. 슈타지는 체포 형식이 아닌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세력 일원들을 하나씩 불러 심문했다. 저항세력 일원들은 양자택일을 요구 당했다. 즉, 재판에 회부되어 구류를 살든지, 아니면 “생산직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Bewährung in der Produktion)” 처분을 받아들이고 대학을 떠나는 것이었다. 후자의 경우는 둘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대학 내 저항세력의 진원지를 제거하는 동시에 가혹한 처벌에 대한 대중적 비판이 형성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슈타지가 이들을 “선처”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띠는 것에는 또 다른 목적도 도사리고 있었다. 슈타지의 경험 상, 젊은 저항세력을 제때에 잡아들이고, 특정기간을 정해 집행유예로 처리해 버릴 경우, 그들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아주 온순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나와 저항세력에서 함께 했던 내 동료들의 경우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스스로 동독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응하려 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를 썼으며, 저항적 세력과는 접촉을 피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길을 갔다. 나는 폴란드 체류 기간 동안 문헌을 비교하고 비밀리에 글을 쓰는 것만이 저항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다. 1976~1977년은 폴란드에서 파업, 대규모 체포, 사회운동이 있었던 해였다. 파업 중인 노동자와 체포된 노동자를 변호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립될 즈음이었다. 본 위원회는 후에 잘 알려진 폴란드 자유노조(Solidarnosc)로 발전하게 된다. 나는 동독에서도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길 희망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희망은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았다. 호네커 시대 동독 정권은 소비재와 복지혜택 등의 선심성 행동으로 주민의 입을 막았다. 반면, 슈타지 기관은 그 세력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폴란드의 예를 본뜬 저항운동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내가 폴란드와 여타 동유럽 저항운동에서 배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식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어떤 공간이든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 비판적 공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또한 다양한 경험을 반영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일단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청소년 및 대학생 동아리와 교회 활동 단체를 방문했고, 점차 신학자 및 목사들과도 가까워졌다. 그 곳에서 나는 이미 오래 전 마르크스 이론에 대한 희망을 버린 자들과, 소외론(Entfremdungstheorie)보다 성경의 산상수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시민정신으로 무장되어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후 나는 수년 동안 프렌츨라우어 베르크(Prenzlauer Berg)에 거주하면서 토론회, 낭독회, 음악회와 교회의 행사에 참가하

면서 내가 머물러야 할 새로운 고향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졸업 후 마르크스 철학 전공을 살려 한 학술연구소에서 일도 했다. 나와 같은 해의 졸업생 중 일부는 그 곳에서 함께 일하면서 경력을 준비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철저히 숨기면서 일을 했거나, 스스로 사라진 동료들도 있었다. 나는 나중에 슈타지 문건을 보고서야 왜 슈타지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나에게 그와 같은 시간을 허락했는지 알게 되었다. 물론, 슈타지가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슈타지가 모든 것을 알기에는 내가 아주 자주 이동했고, 내 주변 인물의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무엇보다도 내가 “적대적 인물”로서의 중요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 개인적인 신상, 내가 방문했던 장소와 행사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면 슈타지는 단지 어떤 새로운 움직임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만을 짐작할 뿐이었다.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내가 그와 같은 움직임에 계속 가담할 것인지, 미래에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지, 슈타지 측에선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83년은 나에게나 슈타지에게나 모두 결정적인 해였다. 나는 그 이전 몇 년간 소위 “대안적 환경(Alternativmilieu)”에서 일하고, 독립적으로 평화운동을 벌이는 여러 그룹과 밀착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동독 정부가 금지하는 일을 공공연히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사회주의통일당에서 탈퇴하고, 당적수첩(Parteibuch)을 반납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이제는 연구소에서 쫓겨날 일만 남았으며, 다시는 대학에서 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을 잘 인식했다. 슈타지의 변절자이자 배반자로 마르크스 이론에 환멸을 느낀 당당한 저항세력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 때부터 나는 슈타지의 통제대상 인물에 있어 한 단계가 더 높은 “공작조치(ov)”의 대상이 되었다. 나에 대한 슈타지의 통제 및 감시목표도 “심리적 테러 및 제거”로 바뀌었다. 이는 모두 내가 그 후 10년이 지난 후 슈타지 문건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심리적 테러 조치”의 효과는 내 삶에 곧바로 나타났다. 한 번은 내가 주말에 있을 동베를린 평화시위를 준비하며 집에 있을 때였다. 금요일 저녁,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간 복장을 한 남성 몇 명이 스스로를 사법경찰이라 소개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이에 저항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이 “강제인도”의 목적지는 막달레넨가(街)에 위치한 슈타지 지부였다. 나는 그 곳에서 24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와 같은 강제인도는 그 후로도 반복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때로는 주말 내내 잡혀있어야만 했다. 나를 강제인도한 사람들은 자신을 사법경찰이나 때로는 치안경찰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예 드러내 놓고 슈타지라고도 했다. 슈타지는 수십 명, 백 명의 인물들을 강제인도 하기도 했고, 나를 비롯한 소위 “지도적 인물”만 강제로 인도해 가기도 했다. 그리고 구류 장소로 슈타지 사무실, 경찰서, 구치소를 사용했다. 동독법에 따르면 “예방적 조치(präventive Maßnahme)”를 상당 부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 혹은 판사와 면담을 요청하면 비웃음만을 살 뿐이었다. 슈타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우리도 법조인이니 우리에게 다 털어놓으라”는 농담으로 응수하곤 했다. 그렇다면 슈타지는 이러한 강제인도와 구금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한 걸까?



슈타지는 심문을 통해 정보만 얻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목표인물이 심리적 불안과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슈타지의 목표는 내가 심문을 받는 동안 앞으로는 친구, 가족, 자녀들과 함께 더 이상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여가 시간, 정상적인 주말을 보낼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하는 데 있었다. 또한 언제라도 불러 와서 심문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전략 외, 특수한 사례로서 지시받은 전략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이미 직업을 잃고, 새로운 직장도 못 얻고,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이웃국가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나는 슈타지가 어떤 방식으로 나의 목을 서서히 조여왔는지 똑똑히 관찰할 수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피심문자인 나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다. 그 다음, 나로 하여금 '실패자'라고 느끼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말로 나를 모욕하다가 갑자기 이해심 많은 척 돌변하는 때도 있었다. 나는 곧 그들이 하는 모든 심문 방식을 꿰뚫게 될 정도가 되었다. 슈타지는 아무 소용없는 소모성 심문을 계속해서 진행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나에게 어떤 지령과 지침을 내렸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슈타지는 사실 큰 착각 속에 있었다. 그들은 나와 같은 인물에 대해 그토록 많은 정보를 모으고 내 행동을 관찰했으면서도, 좁은 시각과 서투른 심리전만 전개했을 뿐,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갈등을 겪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안일한 삶을 박차고 일어나 선동을 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동독에서든, 향후 서독에서든 그 누구의 명령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슈타지가 나를

자주 의심했던 통화 내용이 있었다. 그것은 타의에 의해 서베를린으로 축출된 동향(예나) 친구였던 롤란드 얀(Roland Jan)과의 통화였다. 롤란드 얀과의 통화는 슈타지가 의심하는 것과는 달리 외부에서 지령을 전달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와 그 친구는 밤새도록 통화하면서 그저 담소하고, 다투기도 했다.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였다. 우리는 전화통화에서 지엽적인 주제만을 언급했다. 왜냐하면 전화 통화내용을 슈타지가 모두 엿듣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화에서 활동하는 장소와 접선인물들을 언급할 이유가 없었다. 그와 같은 접선 역할을 맡은 건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메신저들이 했다. 우리들은 감청의 부담 없이 서로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말하고 슈타지에 대해 비판을 했다. 그러나 슈타지는 존재하지 않은 지령 전달 체계를 찾아 헤매었다. 한 번은 슈타지가 심문하면서 빈정거리듯 “도대체 언제 지령자가 있는 곳(서독을 의미)으로 가느냐”고 물었다.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응수했다. “물론 나도 가고 싶다. 그러나 나를 아예 바르샤바나 프라하나 부다페스트로 보내주는 것이 어떨냐?”고 물었다. 이와 같은 대응은 내가 슈타지로부터 심문 중 그나마 느낄 수 있는 작은 만족의 순간이었다. 나는 서독으로 망명할 생각은 없었다. 나는 오기로라도 동독에 머물러서 독재의 종말을 지켜보고 싶었다. 서독이 나에게 대안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동독에서 일어나는 변혁의 물결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나는 동독에 머무르기로 했던 것이다.

내가 폴란드를 방문하고 난 다음, 꿈꾸었던 것은 그 후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나는 평화운동가 동료들과 친구들을 모아 “평화·인권계획(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이라는 이름의 인권단

체를 설립하고, 저항세력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내 활동은 주로 동독 및 동유럽 국가에 구금된 운동가의 구명운동을 벌이고 시위를 주체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시위를 자주 하기는 힘들었다. 그 밖에 “국경사례(Grenzfall)”라는 이름의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도 주요 활동 중 하나였다. “평화·인권계획” 단체는 공개적으로 드러내 놓고 서방의 평화운동단체, 서유럽 언론기자, 동유럽 저항세력, 녹색당 정치가들과의 친분을 가지고 과시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공성이 우리의 보호막”이라는 원칙을 두고 일했기 때문이었다. “국경사례(Grenzfall) 지(紙)”에는 매 호마다 편집진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했다. 교회에서 은신하고 있던 다른 평화 운동가들은 이것을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했다. 그리고 신분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곧 체포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우려는 동독 건국 이후 30년 동안의 기간에만 가능했다. 당시는 이미 1980년대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동독은 국제적인 인식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다. 적어도 저항세력 지도자였던 나와 내 아내를 체포하는 건 가장 최후의 결정으로 미뤄두었다. 대신 슈타지는 좀 더 강력하게 은밀한 투쟁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했다. 비공식 요원의 수를 더 늘렸으며, 그들이 행한 조치는 더욱 다양했다. 각 개인별 심리적 테러조치의 강도를 더욱 심화시켰다. 비공식 요원을 모집하고 그들을 저항세력 내에 침투시켜 광범위한 심리적인 테러를 강화시켰다. 비공식 요원을 모집하거나 침투시키는 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저항세력이 자신의 업무에 스스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다. “평화·인권계획” 단체가 그와 같이 명단을 밝히는 것은 이 단체의 활동의 목표를 교회

권, 그리고 소도시 차원에서 벗어나 동독 전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슈타지는 이를 통해 그 동향을 관찰하기가 쉬웠다. “평화·인권계획” 단체는 베를린 본부 외 동독 내 다른 도시에도 회원과 지지자들이 있었다. 슈타지는 요원들을 신입회원으로 위장하여 잠입시키는 일을 했다. 이들 위장 회원들은 이념적 확신을 가진 광적인 사회주의통일당 당원들로, ‘심리적 테러조치’를 통해 저항세력을 억압하는 행동을 즐기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금전 및 여타 혜택으로 슈타지에 의해 매수당한 사람들이었다. 슈타지는 때로 이들에게 협박을 통해 협력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평화·인권계획”에 침투된 비공식 요원 중에는 고아원 출신이 세 명이나 있었다. 슈타지는 이들에게 일종의 부모역할을 했고, 이들이 슈타지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침투된 비공식 요원들은 이 인권단체가 어떤 활동을 계획하는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단체 내 갈등 혹은 각 회원들의 개인사에 대해서도 밀고했다. 이들은 서로 누가 요원인지 몰랐고, 보고서도 각자 따로 써서 제출했다. 오직 슈타지 관리만이 이들을 통제하고 있었고, 누가 “정직한” 보고서를 썼고 누가 열심히 일했는지 알고 있었다. 추후 단체 내 비공식 요원들의 과제는 점차 다양해져서, 몰래 잠입해서 엿듣는 행위를 넘어서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등 과감한 행동도 불사했다. 그들은 전단지나 공개서한의 내용과 관련된 토론을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질질 끌어 전단지 및 공개서한의 작성을 방해하고, 활동을 무산시키는가 하면, 회원 사이의 분란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또한 무고한 회원을 슈타지 요원이라고 오해하도록 상황을 몰아가기도 했다. 물론, 단체에서도 밀고자가 내부에 있다는 것

을 알고 있었고, 이의 대처방안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그러나 단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겠는가? 사실 그와 같은 슈타지 요원들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슈타지의 의도대로 되는 셈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인권단체가 동독 체제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공개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당시 내 전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사실, 숙소에도 도청 장치가 가득하다는 사실, 그리고 길 건너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숙소 아래층에 슈타지 본부가 차려져 있을 것이라는 점도 어렵듯이 짐작하고 있었다. 집 앞에는 항상 슈타지 차량이 밤새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인 일로 아내 혹은 아이들과 집을 나설 때는 슈타지 요원이 미행하는 것도 알았다. 나를 감시해서 기를 꺾고 주눅 들게 만드는 것이 슈타지의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늦은 밤 전화를 건다던가, 위조된 공지로 나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던가, 물품이나 돈으로 나를 매수하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나를 지치게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하게 만들었다. 서독으로만 가면 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 번 내 자신이 슈타지로 인해 겪었던 고통과 경험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슈타지는 단순히 정신 나간 광신도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행동을 치밀한 계산 하에 실행에 옮겼고, 동독 전역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한 눈에 파악하고 있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 더 굳은 결심을 했다. 그리고 ‘슈타지가 우리 인권단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정말 중요한 존재다. 그들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중요한 존재가 된다. 슈타지가

우리를 그저 헛소리나 하는 좌파쯤으로 보지 않고 공공의 적으로 천명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이런 내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나는 1989년 가을 직전에 알게 되었다. 그 때 나는 내 자신의 희망과는 달리 서독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동독정부와 슈타지가 1987년 말, 우리 부부를 비롯한 “평화·인권 계획”의 지도자들을 체포한 후 서독으로 축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1988년 2월 5일, 나는 아내와 함께 호엔쇤하우젠(Hohenschönhausen) 구치소에서 수주 동안 구류된 후 풀려나 내 자식 사샤(Sascha)와 요제크(Jozek)를 데리고 국경역인 슈반하이데(Schwanheide) 역에 도착했다. 우리 부부는 구류 중에도 끝까지 출국신청 중용을 거부했으며, 동독 국민으로 남기를 원했다. 하지만 슈타지가 내 자식들을 이용해 협박을 해오자, 우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임시동독출국(zeitweiliges Verlassen des Staatsgebietes der DDR)”에 동의하고, 일반 동독 주민들에게는 그토록 선망의 대상이 되는 푸른 색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았다.

우리 가족은 1989년까지 서독 루르(Ruhr)지방에 머물렀다. 여기서도 나는 동독 단체들과 다시 연락을 취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런 나의 행동은 서방 세계 내 활동 중인 슈타지를 자극했다. 사실 서베를린, 보훔(Bochum) 등 서독 도시를 방문하러 온 동독 주민 중에는 적지 않은 수의 비공식 요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독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썼다. 슈타지는 서독에서도 이웃 사람들을 몰래 취조하는 방식으로 나를 감시했다. 하지만 슈타지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었다. “평화·인권계획”을 비롯한 동독 인권단체

의 공공활동, 그리고 폴란드와 동유럽의 저항세력이 강화되면서 결국 1989년 가을 대규모 주민시위로 발전해 나갔다. 내가 약 2년간의 서독 망명생활을 끝내고 가족과 함께 동독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슈타지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슈타지 조직이 사회에 뿌려놓은 “심리적 테러의 독(das Gift der Zersetzung)”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 슈타지 요원이 본 슈타지

볼프강 템플린 (Wolfgang Templin)

슈타지가 어떻게 동독 주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했는지에 대해 듣거나 읽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는 팔이 여러 개 달린 거대한 로봇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면서도 특정 인물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슈타지의 우두머리 격인 에리히 밀케 국가안전보위성장과 같은 인물이다. 밀케는 항상 소리 지르고, 욕박대는 행동 때문에 늘 폭행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밤이 되면 그에게 밍게 보인 수감자의 감방을 찾아가서 주먹질을 해댔던 행동으로도 유명하다. 그런가 하면 밀케의 범죄 행위에 대해 알면서도 그를 지지했던 조직 내 2인자였던 마르쿠스 볼프(Markus Wolf)의 온화한 얼굴도 떠오른다. 서방세계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볼프가 지극히 일반적인 첩보업무에만 관여했다고 믿고 있다.

슈타지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려면 거대한 로봇과 이를 조종하는 몇몇 유명한 얼굴들보다는 그 배경에 포진되어 조직을 움직였던 수만 명의 사람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슈타지는 그 역사상 1945년 체계를 구축했던 당시 소련 첩보기관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소련점령지역(SBZ)에서 군사 및 민간 행정을 맡고 있던 소련의 비밀요원들과 교관들은 슈타지가 조직원을 뽑는 과정을 조정하고 감시했다. 슈타지가 만들어지기 전 국가기관의 고위급 간부들은 모두 소련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의 악몽을 겪고 돌아온 구시대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배반과 밀고의 법칙, 심문과 고문이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하고 돌아온 자들이었다. 그들이 독일로 돌아와 조직원을 모집해 갈 때 이들은 비인간적이고 범죄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데에 서슴지 않았다. 또한 헌신적 공산주의자들, 혹은 재교육 기관인 반파시즘 학교에서 차출된 젊은 당간부들도 슈타지의 구성원으로 채워나갔다. 이들은 나치 독재 유산 청산에 큰 의지를 보이고 있던 자들이었다.

1950년 2월, 여러 첩보기관을 취합해 하나의 자체 공안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동독 중앙 집행부는 그 인력을 수천 명밖에 모으지 못했고, 그나마 대부분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 국가평의회 의장 임기 중에도 독일 공산주의자들은 아직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였다. 회사, 대학, 학교 등 동독 전 지역에서 공개적인 저항 행동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1953년 6월 17일에 있었던 동독 주민의 시위를 소련군의 도움으로 겨우 진압한 동독 정권은 공안을 담당할 부처 설립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일종의 “조기경고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직장, 가정 등 모든 주민의 삶 속에 비밀리에 스며들어 향후 예상치 못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했다. 따라서 비공식 요원을 뽑고, 지령을 내리고, 이들을 새로운 형태의 밀고자로 활용하고,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선별하려면 공식 요원, 즉, 슈타지 소속 정식요원들의 수를 늘려야 했다. 베를린 장벽이 구축되었던 1961년, 슈타지 본부는 약 2만 명의 요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대부분 관리계급을 부여 받았다. 이들은 투입될 분야에 맞추어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았고, 비밀리에 동독 각 전문대와 4년제 대학에 의뢰, 위탁교육을 받게 했다. 요원의 대부분은 남성이었지만, 여성만 요구되는 특정 과제를 위해 여성 요원들을 선발하기도 했다. 포츠담 시 근처에는 슈타지 간부 양성을 위한 대학도 두었다. 이들은 선별된 미래 지도자의 자격으로 법학 전문지식을 습득했다. 또한 심리학 과목을 통해 심문기술, 심리적 테러 방법, 비공식 요원의 관리 등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다.

동독이 자신의 잔혹한 독재 방식을 숨기려 들수록,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수록, 슈타지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동독 내부적으로 더욱 커져갔으며, 그럴 때마다 슈타지의 조직 또한 더욱 비대해져 갔다. 정치적 차원에서의 국내 감시 업무, 비공식 요원 선발 및 지도 업무 외에도 서독을 위시한 서방 국가에서의 작전 업무가 갈수록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슈타지는 외국어를 구사하고, 외국 체류에 문제가 없고, 해당 분야 전문가인 일반 요원 및 간부를 뽑거나, 새로 양성해 나갔다. 또한 최신 첩보 및 감청 기술을 소화하는 기술직 요원에 대한 수요도 증대했다.

슈타지는 요원들의 충성과 업무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내부적 통제 및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식 요원 중 의심이 가거나, 변절하거나 배반한 자가 생기면 본부에 의해 잔인하게 숙청당했다. 만약 공식 요원 중 동독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했거나, 시도에 성공해서 서독 기관에 정보를 발설한 자는 처형대상 목록에 올랐다. 슈타지는 이들을 가족을 담보로, 또는 거짓 약속을 해서라도 동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한 다음, 제거하려고 했다. 슈타지의 강제 재입국 시도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슈타지는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배반자를 동독으로 납치하거나, 서독 및 제3국에서 찾아내어 살해하기도 했다.

동독 역사에 십 년이 더해질 때마다 슈타지 요원의 수는 두 배, 세 배로 늘어났다. 당시 슈타지 요원의 수는 주민 180명에 1명 정도였다. 이는 소련의 첩보요원 비율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였으며, 동유럽 전 국가에서도 가장 많은 규모였다. 이에 비하면 나치 국가사회주의 통치 하의 게슈타포(Gestapo) 수가 오히려 적게 느껴질 정도였다.

수만 명에 이르는 슈타지 요원 중에는 군인, 관리, 베를린 주둔 경비군, 민간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밖에도 특수하게 이종으로 위장된 “특수목적 투입요원(Offiziere im besonderen Einsatz: OibE)”도 있었다. 이들 특수목적 요원들은 겉으로 보기엔 회사, 공공기관, 대학 등에 종사하는 일반시민 같은 모습을 띠었으나, 비공식 요원 혹은 공식 요원과는 다른 존재였다. 이들은 다른 요원들보다 두 배나 많은 보수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의 존재는 1989년 시민위원회(Bürgerkomitee)가 슈타지 내부 급여 문건을 발

견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슈타지 구축 초기의 요원들과는 달리 동독 말기의 공식 요원들은 매우 훌륭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최소한 2년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았다. 일부는 슈타지가 운영하는 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의 사회적 지위는 평균적인 동독 주민보다 훨씬 높았다. 이들은 일반민간직에서 받는 임금의 몇 배를 받고 일했다. 언제라도 쉴 수 있는 별장이 주어졌고 여러 고급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이들은 그야말로 동독의 엘리트 중 엘리트라고 할 수 있었다. 이들은 동독의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고 안정화하는 계층으로 존재했으며, 이에 따른 보상으로 엄청난 특혜와 지위를 누렸다. 이와 같은 공식 요원들의 활동은 대외적으로는 흔히 “밀고자 역할(Denunziantenrolle)”로 일컬어지는 비공식 요원들의 활동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공식 요원들은 비공식 요원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그들이 슈타지의 중심적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면 거대한 첩보망은 만들어 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동독 몰락 후, 비공식 요원의 슈타지 활동에 대해 수많은 자료가 공개되었고, 수많은 극적 사례들이 공개되었지만, 아직도 답하지 못한 질문들은 많다. 슈타지는 업무 추진을 위해 2만 여명에 달하는 연루자(Helfershelfer)들을 필요로 했는가? 이들은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했으며, 이들은 왜 그런 역할을 지망했나? 이들과 비슷한 밀고자와 배반자가 다른 국가, 다른 시대, 다른 독재 체제에도 존재했었는가?

이들의 정체는 사실상 “비공식 요원”이라는 명칭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 비공식 요원들의 임무는 듣고 본 것을 보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특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사람들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어내면서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동기를 캐내야 했고, 슈타지가 원하는 사상을 주입시켜야 했다. 다른 독재체제나 나치 정권 하의 비밀경찰이 “국민의 적,” “국민을 해하는 자”에 대해 감시나 감청 업무를 펼쳤던 반면, 동독의 슈타지는 밀고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접근, 의도적으로 세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두고 있었다. “요원”이라는 말에는 “동료 (Mitarbeiter)”라는 뜻이 담겨 있으나, 실제 그 뜻은 형해화했다. 모든 종류의 슈타지 요원들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지 못했다. 비공식 요원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해야 하면서도 상사의 지령을 모두 실행해야만 했다. 상사요원 앞에서는 항상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비밀이 없어야 했다. 그렇지만 상사요원들은 정반대였다. 비공식 요원은 비밀스러운 요원 모집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을 감시하는 정보도, 진행되는 작전 목표도, 자신에 대한 해고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었다. 비공식 요원의 상사들은 항상 불신에 기반한 이중계획을 세웠으며, 그들의 의도를 항상 숨겼다. 비공식 요원들은 차출되고, 사용되는 곳에 따라 변형되었다. 한낱 도구로만 쓰였을 뿐, 조직 내 요직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공식 요원들과 동료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비공식 요원들은 필요할 때만 동원되는 뜨내기 첩자나 스스로 이웃을 고발하겠다고 자원한 밀고자와는 달리, 상당기간 이전부터 미리 계획되고, 준비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장기적으로 관리되었다.

옌스 기제케 (Jens Gieseke)

### 공식 요원의 규모

슈타지 공식 요원의 수는 수십 년 사이 대대적으로 증가했다. 동독이 붕괴하기 직전(1989년 10월 31일), 공식 요원의 수는 총 91,000명에 달했다. 규모면에 있어 동독이 전 세계에서 인구수 대비 비밀요원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였다. 슈타지의 공식 요원 한 명당 인구 수는 180명으로 KGB(러시아의 국가보안위원회)요원 일인당 주민의 수가 600명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동독 공식 요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다.

1950년대 슈타지는 스탈린주의식 비밀경찰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1956년 16,000여명의 요원을 확보했다. 슈타지의 규모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사이 대대적으로 커졌다. 그와 같은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슈타지가 점점 찾아지는 동독 주민들의 서독과의 연락을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국제사회에서 동서 긴장완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동독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서독에 대해 부분적인 개방을 허용해야 할 상황이었다. 서독 사람들은 친지방문을 위해 동독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고, 서독 기자들은 동베를린에서 보도할 수 있게 되었다. 동독과 서독 청소년들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도 되었다. 그러자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은 사회 모든 영역이 노동자계급의 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적 분열책동”을 일삼게 될 것을 우려했다. 슈타지는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는 데는 감시와 억압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했다. 슈타지는 대규모의 요원을 늘려, 일상에서 벗어나는 주민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반쪽에만 사회주의가 뿌리 내린(Dietrich Staritz)” 양독간의 독특한 상황은 동독 사회주의통일당과 슈타지 지도부로 하여금 감시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왜냐하면 공식 요원들의 임무가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이었다. 반항세력에 대한 억압 및 비판적인 작가나 교회를 감시하는 것이 공식 요원들의 주임무였으나, 1960년대 이후 이와 같은 임무수행은 전체 임무 중 아주 작은 부분이 되었다. 전 국민에 대한 대대적 감시와 관료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업무분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슈타지 인력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국경에서의 여권검사원이나 반틀리츠(Wandlitz)에 위치한 정치국 고위층 밀집 지역 내 판매원도 슈타지의 관할 하에 둘 필요가 있었



다. 이와 같은 모든 시설 내 종사원들은 에리히 밀케의 명령을 따르는 슈타지 지부의 관할 하에 있었다. 그러나 1983년부터 밀케는 인력보강에 예전만큼의 박차를 가할 수 없었다. 동독의 경제적 어려움이 슈타지에게도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 간부정치

슈타지의 공식 요원들은 스스로를 “체키스트(Tschekist)”라고 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이 볼셰비키에 의해 1917년 설립된 러시아의 비밀정보기관인 체카(Tscheka, 공식명칭: 반혁명 및 사보타지 분쇄 전(全)러시아 특별위원회)의 전통을 잇는다고 믿고 있었다. 슈타지 요원이 사용한 혁명적 구호 역시 체카의 초대 대표였던 펠릭스 제르진스키(Feliks E. Dzierżyński)가 만든 다음의 구호를 인용한 것이었다.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심장과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만이 체키스트가 될 수 있다.” 체카는 30년대 NKVD(러시아 명칭: 국내 문제 해결 인민위원회)라는 새 이름을 가진 테러기관으로 변신하였고 “인민의 적”이라고 명명된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공식 요원들은 요제프 스탈린(Josef Stalin)이 말한 바와 같이 공산당 전위부대의 구성요소로 간주되었다. “간부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구호가 보여주듯이 간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슈타지는 간부 역할을 담당하는 요원 선발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정치적 노선이 확고하고 철저한 기밀유지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다. 일반적인 교육수준이나 기타 전문성은 그 다음의 고려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 중

요성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기준이었다.

동독의 거의 모든 슈타지 요원들은 직책에 상응하는 직업군인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직업군인의 형태를 띠지 않은 슈타지 요원은 소수의 민간요원과 펠릭스 제르진스키(Feliks E. Dzierżyński) 경비연대(일부 특수 직책)에서 복무한 기간제 요원뿐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간제 요원이란 동독 인민군에서 복무하는 대신, 3년 동안 특수 복무를 하는 군인을 말한다. 기간제 군인의 경우 기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발기준도 비교적 덜 엄격했다. 기간제 군인은 슈타지에 의해 직접 관리·감시를 받았다. 기간제 군인 중 소수만이 슈타지의 공식 업무에 투입되었다.

간부정치를 지탱한 최후의 보루는 약 2,200명으로 구성된 “특수 목적 투입 요원(Offiziere im besonderen Einsatz: OibE)”들이었다. 그들은 슈타지의 관리직에 있으면서 비공식 요원(IM)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은 비밀리에 “보안과 관련된 정치적인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대기업의 보안담당자, 국경관리, 인민경찰 같은 기관 내 중요한 직책을 맡거나 해외에 있는 동독의 대사관에 비밀관리로 근무하기도 했다.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슈타지 요원의 선발은 매우 엄격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선발은 슈타지에 의한 발탁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스스로 지원하는 자는 적의 첩자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슈타지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통일당의 당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슈타지 요원으로 발탁된 이후 사회주의통일당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했다. 다른 정당(기민당 CDU, 자유민주당 LDPD, 국민

민주당 NDPD, 민주농민당, DBD)의 당원인 경우에는 공식 요원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또한 과거 국가사회당(나치당) 당원이었던 사람도 자격이 없었다. 이데올로기적 노선과 함께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 중 하나는 서독과의 교류 여부였다. 적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슈타지 요원들뿐 아니라 슈타지 요원의 가족들까지도 서독과 개인적 교류가 없어야만 했다. 서독에 친인척이 있는 사람은 교류를 완전히 끊어야 요원이 될 수 있었다.

슈타지는 요원 확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슈타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였다. 1950년대에는 인민경찰에 소속된 젊은 인력이나 사회주의통일당 및 자유독일청년단(FDJ: Freie Deutsche Jugend) 출신의 청년들이 후보가 되었다. 그 외에도 비공식 요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들이 감시하는 각종 기업 및 기관, 그들의 생활 터전 주위에 적합한 후보들이 있는지부터 살폈다. 갓 징병된 군인들 중 슈타지 요원후보를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1980년대에는 나이가 어린 후보들 가운데 슈타지 요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심지어 사회주의통일당 당원 출신의 유력한 요원후보들도 슈타지 요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슈타지 요원이 된다는 것은 곧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되고 엄격한 규칙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그럴수록 슈타지는 (동독 인민군대와 함께) 학교 학생 중 적절한 후보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슈타지는 1981년부터 폴리테크 고등학교 7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직업군인 지원자” 모집을 적극 실시하고, 그 중 일정한 비율의 학생을 슈타지 요원으로 선발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1986년 약 1,200명의 슈타지 인력이 충원되었다.

## 슈타지의 인사관리구조

슈타지 공식 요원 체계의 가장 상위에는 오랜 경험을 갖고 있고, 국가보안성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간부들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구조는 1950년 공식 요원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존재했다. 슈타지의 간부들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거리투쟁과 각종 회의장 난동 사건 및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항쟁사건에 참가한 사람들을 교도소와 강제노동수용소에 구금시키거나 소비에트로 이주시키거나 군인신분으로 스페인 시민전쟁에 참가하였거나, 2차 세계대전 중 게릴라대원이나 비밀요원으로 임무를 수행한 이력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1945년 구소련 점령 당시 경찰을 공산주의적 이상에 따라 재구성하여 국가보안성을 만들었다.

슈타지의 핵심 간부들 중에는 통일 직전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1957년 이래 슈타지의 최고 우두머리이자 인민군 상장이었던 에리히 밀케(Erich Mielke, 1907~2000)였다. 그는 1931년 베를린에서 두 명의 경찰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구소련으로 피신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 스탈린주의를 인정할 적이 있는데, 이는 슈타지 내부 자료로 1984년에 녹음·보관되어 있던 음성자료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우리가 이곳 동독에 있지 않고, 내가 소비에트연방과 같은 행복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다면 분명 몇명은 총살 당했을 것이다. 혁명적 합법성은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Joachim Walther 편,

「밀케-독일 사냥꾼(Mielke-ein deutscher Jäger)」, 1995년 뮌헨, CD에서 인용)

공식 요원 자격을 갖춘 전직 공산주의자는 몇백 명뿐이었기 때문에 슈타지의 요원 확충은 1945년 이전 히틀러 시절 청소년기를 보내고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나치 제3제국의 멸망 이후 대부분 자유독일청년단(Freie Deutsche Jugend)에 가입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거의 모두 “프롤레타리아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인민학교 졸업 정도의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과거 공산주의자들은 따라야 할 모델(Vorbilder)이었다. 슈타지 부성장이었던 루디 미티히(Rudi Mittig, 1925~1994)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새로운 공화국을 수호하는 일에 기여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다. 이 일을 저해하는 적이 많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 국가안보보위성에 들어가기 위해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뢰할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물론, 당시 누구나 고민했을 것이다. 누구 밑에서 일을 할 것인가? 당시 나의 선배들은 모두 군대에서 역군이었다. 반파시즘적 저항투사였으며, 스페인 시민전쟁에도 참가했다. 파시즘에 대항한 적군(Rote Armee)과 투쟁을 벌였으며, 히틀러의 강제수용소에 갇히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다. 모두 파시즘에 맞서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의 삶과 반파시즘주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 그들은 나와는 달리 모두 파시즘 시대에 자신의 진가를 발휘한 사람들이었다.” (Rudi Mittig의 언급, Riecker, Schwarz, Schneider: 「슈타지 내부 문건(Stasi intim)」, 1990, p. 166~168)

상기 명시된 조건을 갖춘 슈타지 신입 요원들은 “계급투쟁의 지속적인 강화”를 주장한 스탈린의 사상을 통해 정치·사상적으로 무장한 채 슈타지 조직의 일상을 경험해 나갔다. 그들은 서독의

“적대적 기관”의 첩자로 간주되는 자 또는 첩자로 밝혀진 자를 수색하고 체포해, 며칠 밤에 걸친 심문을 해 자백을 받아내면서 제한없는 슈타지의 권력을 실제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런 과정을 거쳐 낮은 교육 수준을 높이고 범죄수사학적 지식을 보강, 진정한 요원으로 성장해 갔다. 이와 관련, 에리히 밀케는 1952년 다음과 같이 촉구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글을 쓸 줄 모른다 해도, 이기는 법을 알고 적을 파멸시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글을 잘 쓰고 유창한 말솜씨를 가진 자가 과연 얼마나 많은 적을 무너뜨렸는지 따져보자....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 승리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1953년 1월 28일 사회주의통일당 시단위 지도부, 당대회 의사록(Protokoll über die Kreisparteiaktivtagung); BstU, ZA, KL-SED570, Bl. 24.)

1960년대 이후 특히 1970년대부터 슈타지는 인력부족에 늘 시달렸다. “노동자계급” 출신의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투입된 신입요원의 절반 이상이 고위간부 출신 자녀들이었다. 그들의 부모는 슈타지 요원이거나 인민경찰, 인민군, 사회주의통일당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1978년 슈타지에 고용된 안드레아스 K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나는 아버지를 통해 슈타지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시도 단위 지부 대표였다. 지부 직원들의 단결심은 대단했다. 나에게 그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그것이 어린 시절 나로 하여금 슈타지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아버지가 지휘한 지부 직원들의 식구들도 모두 협조적이었다. 나는 어린 아이였지만 아버

지의 일을 도울 수 있었다. 어릴 적부터 지부는 참 친근하고 편안한 곳이었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할레(Halle)의 단위 지역 지부의 수용소에서 일하면서 적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다른 공식 요원의 자녀들처럼 먼저 경비원으로 일을 했다. .... 그러나 일을 하면서부터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내가 어릴 적 시도 단위 슈타지 지부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동료들로부터 느꼈던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 곳에는 오로지 돈 때문에 공식 요원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불편했다.”(Gisela Karau, 슈타지에 관한 기록(Satsiprotokolle), 프랑크푸르트, 1992, p. 155)

슈타지 요원 중 여성요원은 전체의 약 16~19%에 달했다. 여성요원은 비서와 같은 특정 역할만 담당했다. 실질적인 비밀요원 임무 중 여성은 정보평가 및 우편물 검열에만 투입되었다. 비공식 요원을 관리하는 고위급 관리직이나 심문을 담당하는 관리직에 여성이 투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관리 총괄직에 여성이 오른 적은 없었다.

### 슈타지의 자체 인식과 내부 분위기

요원 선발에 있어서의 특별기준과 그들이 “사회주의통일당의 창과 방패”라는 높은 신분적 지위와 자부심은 슈타지 요원들로 하여금 사회 최고위층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이는 1953년 슈타지의 총책임이었던 빌헬름 차이세르(Wilhelm Zaisser)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슈타지 공식 요원에게 지급된 임

금은 동독의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그들은 물자의 특별 구매혜택이 부여되었으며, 각종 특혜를 누릴 수 있게 했다. 그렇지만 슈타지 내부적으로는 요원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군대와 같은 계급서열을 따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담도 주어졌다. 슈타지를 탈퇴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탈퇴를 하더라도 평생 감시를 받아야 했다. 서독과 교류한 소위 “배신자”들은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처형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1981년에는 슈타지 요원이 간첩행위로 마지막 교살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동독 시민들은 슈타지에 대해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꼈다. 슈타지 요원들은 권력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다. 심지어 슈타지에 가장 가까운 권력기관인 검사나 인민경찰도 슈타지 요원들 앞에서 눈치를 보았다. 슈타지 요원들의 거만하고 잔인한 태도는 무엇보다 억압 대상자들을 심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났다.

1980년대가 되자 슈타지 요원들 사이에 불안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동독의 경제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지면서 “사회주의체제로서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은 당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당에 대한 반대세력을 과거 처럼 과격하게 다루지 말 것을 슈타지에게 지시했다. 정치범들은 종종 “석방거래의 대상”으로 서독에 팔려 나갔다. 동독을 탈출하는 사람의 수는 급증했고, 대주민 통제는 어려워졌다.

1985년 구소련의 대통령이자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tschow)의 개혁정치와 이에 따른 동서 적대관계의



종식은 동독의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1989년 동독 사회에 내적으로 확산되었던 불안감은 대규모 데모를 통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슈타지 요원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지만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그들의 지부들이 점령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았다. 중국에는 국가보안성이 해체되는 것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헬무트 뮐러-엔베르그스 (Helmut Müller-Enbergs)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첩자,” “밀고자” 또는 “정탐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독일통일 이후 이들 슈타지의 비밀 협조자들은 “비공식 요원(Inoffizielle Mitarbeiter: IM)”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이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여론과 사회 분위기를 파악하는 일을 수행했다.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지도부는 자체 권력이 어느 정도 위협받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면서, 동독 사회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에 대해 알고자 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슈타지 비공식 요원들이 담당했다. 그 밖에도 이들은 동독의 헌법과 이념에 반하는 세력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다시 말해 “정치이데올로기적 반항자”나 “정치적 지하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사회

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비공식 요원의 임무였다. 드문 경우이긴 했지만 살인임무가 부여되기도 했다. 비공식 요원으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군대였던 슈타지는 동독 내 가장 핵심적 대주민 억압도구였다. 슈타지는 비공식 요원이 없었다면 무능한 기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비공식 요원들은 어느 슈타지의 장(長)이 말했던 것처럼 동독 정권의 폐를 작동시켜주는 산소 같은 존재였다. “비공식 요원들은 우리의 호흡기관이나 마찬가지다. 호흡기관이 없으면 살 수도, 일할 수도 없다.” 동독 정권은 과거 제3제국(나치) 시절 비밀경찰과 같이 스스로 알아서 정보를 제공해주던 존재들에 의존하기 보다는 슈타지에 의해 잘 조직된 비공식 요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지되어야만 했다.

비공식 요원들은 실질적 위협이 존재하거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되었다. 비공식 요원이 담당했던 대상, 영역, 지역,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슈타지는 이들을 통해 동독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었다. 비공식 요원들의 업무가 시작되는 초기 슈타지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했다. “훌륭한 비공식 요원이 있으면 슈타지는 풀이 자라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 다 알아야 한다.” 그러나 슈타지는 이와 같은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동독 주민들은 사회 전체 영역에서 “엿듣고 엿보는” 기관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학교 친구나 회사 동료가 첩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안고 살아갔다. 슈타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실제로 동독 주민 100명 중 한 명은 비공식 요원이었다. 동독 내 비공식 요원이 가장 많았던 당시의 인원은 총 174,200명에 달하기도 했다. 비공식 요원 중 서독에서 활동하는 요원의 수도 3천명이나 됐다.

1980년대 비공식 요원은 25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자가 대부분이었다. 여성의 비율은 17% 정도였다. 비공식 요원 중에는 미성년자 요원도 1천 명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16~17세였다. 소수지만 11세의 어린 요원도 있었다. 비공식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요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명예직으로 비밀근무하는 데 동의해야 했다. 지원자들의 대부분은 확고한 신념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의 당원은 1/3 정도였다. 적지 않은 수의 요원이 경제적 이유에서 슈타지에 협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슈타지 비공식 요원들이 받는 보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높지는 않았다. 비공식 요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강압은 보편적이지 않았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 협력의사를 받아내야 할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일단 협조하기로 동의할 경우에는 대체로 4년에서 6년 정도 활동을 해야 했다. 그러나 비공식 요원으로서의 활동 중단은 스스로 원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했다. (다만, 자신이 원하면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활동 중단은 비공식 요원을 관리하는 자가 해당되는 요원의 활동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거나, 요원이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요원을 해고하게 되는 결과였다. 비공식 요원 직무에 세 번 이상 지원하는 사람은 세 번째 되는 시점부터 지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원거부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기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비공식 요원의 활동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뉘어졌다. ① 대부분의 비공식 요원들은 일정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② 일부 소수의 비공식 요원들은 “대서독 투쟁(Feindbekämpfung)” 명목으로 투입되었다. ③ 나

머지 비공식 요원들은 지원임무를 담당했다.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요원들은 대부분 명예직으로서 슈타지가 구축해 놓은 인적, 물적 지원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첫 번째 부류에 들었던 일정 지역의 보안을 위해 투입되는 비공식 요원은 슈타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영역에 우선적으로 선발·투입되었다. 선발된 요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또는 사회적 지위, 더 나아가 개인적 인맥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감시를 펴고,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힘을 썼다. 그들이 수행한 비밀임무는 내적 질서 파괴 및 내적 피해 예방을 통한 동독의 국가안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비공식 요원들은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슈타지의 작전수행에도 적극 협조했다. 또한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전략적 조치에 투입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업무에 투입된 비공식 요원은 “정치작전적 책임영역 침투요원(IM zur politisch-operativen Durchdringung des Verantwortungsbereiches: IMS),” “사회보안요원(Gesellschaftliche Mitarbeiter für Sicherheit: GMS),” “특별투입요원(Inoffizieller Mitarbeiter im besonderen Einsatz: IME)” 을 비롯, “지도부 비공식 요원(Führungs-IM: FIM)” 등으로 구분되어 불려졌다.

두 번째 부류의 비공식 요원들은 “대서독 투쟁”을 담당하는 비공식 요원들로 슈타지의 정예요원들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의심이 가는 사람을 직접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또한 “적”을 확인하고 감시·조사하여 “적”의 계획과 조치와 방법들을 알아내는 임무를 띠었다. 그 밖에도 “적대적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적을 심리적으로 억압, 파괴하고 축출하는 임무도 수행했다. “대서독 투쟁”을 담당했던 비공식 요원들

은 슈타지의 명령을 받아 서독 지역 정보기관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이들 요원들은 동독 정권 말기까지 3,900명이 존재했다. 이들은 적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적대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직접적 관리 및 처리를 담당하는 요원(Inoffizielle Mitarbeiter der Abwehr mit Feindverbindung bzw. zur unmittelbaren Bearbeitung im Verdacht der Feindtätigkeit stehender Personen: IMB)으로 불렸다. 세 번째 부류의 요원들은 비교적 제한적 역할을 수행했던 요원들로서 물적 지원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슈타지 요원과 고위급 관리들이 비밀리에 만날 수 있도록 방이나 아파트, 집을 내주거나, 그런 만남이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작전이 이루어지는 지역” 내 비공식 요원들 사이의 소통 그리고 서독 및 서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비공식 요원과 슈타지 사이의 소통을 위해 이들 비공식 요원들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사용되었다. 일종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던 이 요원들은 공식적으로 “비밀소통 보장을 위한 비공식 요원(IMK: Inoffizieller Mitarbeiter zur Sicherung der Konspiration des Verbindungswesen)”으로 불렸다. 이들이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음모주택(konspirative Wohnung: KW), 비밀음모대상(konspiratives Objekt: KO), 위장주소(Deckadresse: DA), 위장전화(Decktelefon: DT), 보안(Sicherheit: S) 등의 개념들이 사용되었다.





## 헬무트 뮐러-엔베르그스 (Helmut Müller-Enbergs)

사회보안요원(Gesellschaftlicher Mitarbeiter für Sicherheit: GMS)은 슈타지 소속 비공식 요원(IM)의 한 특수한 형태로,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형태의 요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슈타지의 기록에 따르면 동독 정권 말기 약 33,000명의 사회보안요원이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슈타지의 사회보안요원은 동독의 특수한 정치상황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1967년 사회주의통일당의 제1서기였던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는 전당대회에서 동독 사회가 “사회주의적 공동체”로 성장, 자발적으로 동독 정부를 지원하고 수호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슈타지도 이러한 동독의 내적 변화를 인식하고, 사회보안요원이라는 새로운 요원직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슈타지는 사회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독 정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시민들을 발탁

하고 그들을 지칭할 새 명칭을 찾기도 했다. 그 중에는 “독일 애국자(Deutsche Patrioten)”와 “좋은 사람(Gute Menschen)”과 같은 명칭도 있었다.

슈타지는 “사회주의 국가 및 법질서의 안전과 불가침성”에 기여할 새로운 형태의 요원을 발탁하는데 있어, “사회 내 다양한 인력의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기존의 비공식 요원에 대한 “의미있는 보충,” 그러나 ‘사회보안요원’은 기존의 비공식 요원과 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다. 기존의 비공식 요원과 달리 사회보안요원은 슈타지의 비밀조치들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작전수행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들의 핵심적 임무는 동독 사회 내 유포되어 있는 정부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고, 정부에 대한 정보를 동독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었다. 그들은 또한 요원으로서 대중 앞에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했기 때문에 일종의 모범시민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는 비공식 요원과 사회보안요원을 구분하기는 거의 힘들었고, 특히 동독 몰락 직전 몇년 동안은 두 형태의 슈타지 활동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슈타지 공조 파트너 (Partner des operativen Zusammenwirkens)

# 14

볼프강 템플린 (Wolfgang Templin)

카르스텐 뒸멜 (Karsten Dümmel)

오늘날 슈타지의 문건을 보면, 슈타지 요원들은 모든 분야에, 또한 모든 시기에 걸쳐 상호 공조적 파트너 관계에 크게 의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슈타지가 상호 공조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사회주의통일당이 추구했던 “국가적인 안전 (gesellschaftliche Sicherheit)”은 담보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슈타지는 인민경찰, 학교, 회사(지도부 및 인사부), 전문 및 일반대학, 우체국, 노조, 스포츠 협회 등 공공 성격을 띤 동독 내 모든 기관을 공조 파트너로 삼았다. 슈타지는 이들 공조 단체들을 이용, 동독 주민의 사회,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슈타지가 의심하여 주목하는 인물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그와 같은 조치들에는 근무지 제한, 가택 및 지역연금, 여행 및

휴가금지, 직장 및 주거지 수색, 체포 등이 있었다.

슈타지와 공조하는 파트너들은 부분적으로 직접 업무에 개입하기도 했다. 또한 슈타지가 추진하는 공작조치에도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슈타지는 이와 같은 활동을 “합동공작조치(operative Kombination)”로 명했다.

슈타지는 공식 요원(HM)과 비공식 요원(IM) 외에도 인물 감시 등 첩보활동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던 공조자나 지지자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 이들이 인물 감시로부터 수집한 정보들은 슈타지와 동독정부 자료실에 전달되어 문건으로 정리되었다. 인물 관련 정보는 대체로 각 인물의 “이념적 신뢰도,” 정치적 견해, 개인성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독에서는 보통 “노조”라는 단어를 들으면 노동자를 대변하고, 임금협상을 위해 투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를 떠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또 “청소년 단체”라고 하면, 보이스카우트, 교회 청소년반, 정당 지원 청소년 기구 등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동독에서는 달랐다. 동독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유독일노조(Freie Deutsche Gewerkschaftsbund: FDGB)”가 있었고 정부가 운영하는 청소년단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독일청년단(Freie Deutsche Jugend: FDJ)”이 있었으나 그 기능과 임무는 서독과 전혀 달랐다. 동독 대다수 일반 직장인은 「자유독일노조」에, 청소년은 「자유독일청년단」에 가입했다. 이들 단체들이 사업장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면 그 내용은 대부분 이념교육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노조의 활동에는 소위 “사회주의 노동교육”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와 관련된 활동이 개최되면 「자유독일노조」와 「자유독일청년단」 간 부들은 집회에서 언급된 의견과 비판 등을 적어 보고했다. 이를

통해 슈타지는 저항적인 의견을 수집하는 한편, ‘모난 돌’을 찾아내었으며, 소위 “집단윤리교육”을 계획했다. 이와 똑같은 방식이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이나 위성정당의 집회나 행사에 적용되었다.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간부들은 기본적으로 당원들을 의심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염탐·보고하는 일을 다반사로 했다. 철저하게 상명하복 방식으로 제출되는 보고서들은 슈타지가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내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슈타지는 사회주의통일당과 공공단체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슈타지에 전달되는 정보량은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날로 더 늘어났다.

정보는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슈타지가 획득하려고 했던 정보는 단순한 정보이상의 정보, 총체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정보였다. 이를 통해 슈타지는 효과적으로 주민을 통제·억압하고 싶었다. 또한 좀 더 효과적으로 반대자들을 숙청하고 싶었다. 동독에서는 당 간부, 청소년 단체와 노조 간부 등이 중요 인물로 여겨졌지만, 이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부류는 소위 “국가급 지도자(staatlicher Leiter)”로 불리는 기업체 간부, 동독 공공기관 간부들이었다. 서독에서 그렇듯이 시민들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는 독립적인 행정체계가 동독에는 없었다. 동독 정부의 행정은 법치국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다. 동독 정부는 사회주의통일당의 의지에 따라 조종되었다. 이는 기업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각 기업체의 노동자 및 종사원의 인사업무는 소위 “간부급 지도자(Kaderleiter)”가 맡고 있었다. 동독이 붕괴되고 난 후, 공공 간부, 정

부기관 직원 그리고 각 사업장과 기관의 간부급 지도자는 그들 나름대로 해오던 업무를 서독의 민주주의와 법치에 맞추어 지속하려 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는 그저 평상적인 인사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것이었고, “그저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그들이 어떻게 동독 슈타지와 협력했는지를 보면 곧바로 발각된다.

간부급 지도자가 관리했던 인사문건들은 관리대상이 되었던 해당 인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슈타지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었다. 만약 기업체 내 “골치 아픈 인사”가 거론되면 슈타지 요원은 기업체 간부급 지도자를 강제 출두시켜 대상자의 좌천, 전근, 기타 직장 내 징계 등의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간부급 지도자가 자발적으로 슈타지를 찾아와 문제에 대해 보고하기도 했다. 그 후 지목된 대상자가 동독 관청을 찾거나 행정업무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어느 때와는 전혀 다른 일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슈타지의 지목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관서에 출두했다고 하자. 다른 때도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을 방문할 때는 누구나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방문이 끝나고 나올 때는 아무런 사전 언급이나 정보없이 기존의 개인 신분증이 압수되고, 전혀 다른 대체 신분증을 받아 나올 수 있다. 대체 신분증은 소위 “PM 12” 증서로 경찰은 이와 같은 신분증 소지자를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만일 이 사람이 폴란드나 체코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었다면, 국경선에서 출입국 검사를 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출국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수도 있다. 이렇게 사전 통보나 해명 없이 내부적

으로 한 번 “행정적 결정”이 내려지면, 그 효력은 수년간 유지될 수도 있었다. 즉, 수년 동안 출국이 금지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조치의 배후에는 슈타지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슈타지는 이와 관련 전면에서 나서지 않았다. 왜냐하면 슈타지의 공조기관들이 대신 훌륭하게 협력해 주기 때문이었다. 특히, 전문문대학이나 일반대학 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과 공조협력이 잘 이루어졌다. 이들 교육기관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기회를 통해 통제하고, 저항적인 학부모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의도적으로 행했다. 학교 이사회나 능력 있고 신뢰성 있는 교사가 국가기관의 일부로 충성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슈타지의 이익과 욕구를 창출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체제에 순응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었다. 원래는 자녀와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였던 청소년 지원(Jugendhilfe)의 경우에도 실제 업무추진은 정반대였다. 청소년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청소년들을 보호시설로 보내거나, 강제 입양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교사, 강사, 전임강사와 교수들도 입학, 퇴학, 직업교육기회 부여 등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 국가와 슈타지 권력의 시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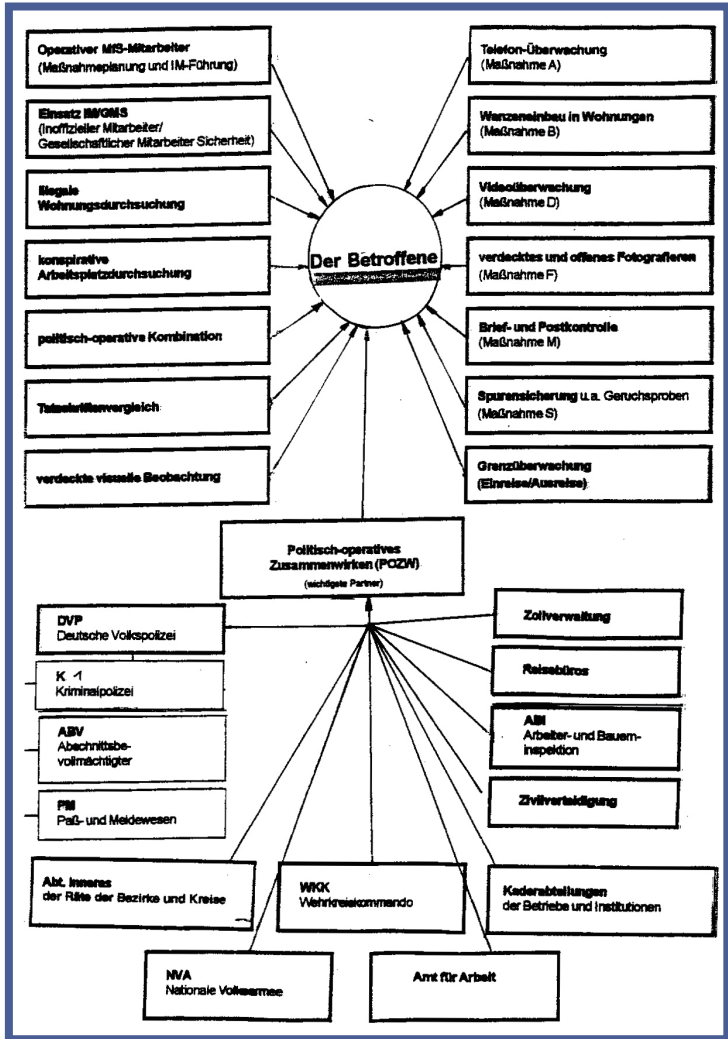
물론, 모든 대학강사, 공무원들이 권력의 도구가 된 것은 아니었다. 슈타지 문건에도 공조협력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지나지 않았다. 슈타지는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고등 및 중등교육기관 등에서 그 세력을 마치 문어발처럼 사방팔방으로 뻗쳐 그들의 공조조직을 만들었다. 심지어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에서까지도 그들에게 협조할 수 있는 공조 파

트너를 구하려고 했다.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은 주민들의 주거지역에 당 관련 단체들이 상주하게 했다. 다시 말해 소위 “주거지역 당조직(Wohngebietsparteiorganisationen: WPO)”이 슈타지의 공조 파트너였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주민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운영체제의 총괄을 맡고 있는 “주택연합본부(HGL: Hausgemeinschaftsleitung)”를 이용했다. 주택공동체본부는 나치 국가사회주의 당시 활용되었던 이웃 감시체계를 동독 방식으로 바꾼 것이었다. 이와 같이 주거지역 당조직과 주택연합본부를 슈타지가 철저하게 이용하면서, 이웃 엿탐은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웃에 급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온다던가, 그것도 서독에서 손님이 온다던가, 의심스러운 음악소리가 난다던가, 생활형태가 좀 어지러워 보인다고든가 …… 뭐든지 이들의 눈에 띄면 엿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얻은 정보들은 정식 슈타지 보고서에는 담기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공휴일에 국기를 달지 않는 이웃, 거주자들 사이에 만들어내는 공산당 선전·선동을 위한 벽보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이웃, 소위 “쉴보트닉(Subbotnik)”이라고 불리는 일요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웃들은 주위 다른 이웃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도록 했다.

주민들에 대해 억압적인 조치를 취할 때, 예를 들어 심문, 강제인도, 체포, 저항세력 및 정권비판자의 감금 등이 이루어질 때 슈타지는 인민경찰과 법조계로부터 공조를 끌어내었다. 물론, 슈타지가 얼마든지 단독으로 강제인도, 심문, 체포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 슈타지 내에는 미결수 조사시설까지 존재했다. 이는 슈타지가 절대로 “단순한” 첩보기관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슈타지는 조사시설에서 재판과정 및 결과를 특정 방



향으로 유도하고, 형량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동독의 판사, 검사들을 독자적인 사법부 내의 존재가 아닌 동독 사회주의통일당과 슈타지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 슈타지와 동독의 청소년 문제

토마스 아우에르바흐 (Thomas Auerbach)

1950년 슈타지가 설립된 이후부터 사회에서 말썽을 부리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슈타지는 국가청소년단체인 자유독일 청년단(Freie Deutsche Jugend: FDJ)의 행사를 감시하고 청소년 저항단체를 무력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를 보면, 슈타지가 동독 청소년들 사이에 결성된 대규모 단체가 정권에 대해 저항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1950년대 중반이었다. 그 때가 되어서야 슈타지는 비로소 청소년 문제를 정치·사회적 이슈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56년 2월 1일 슈타지 지도부 회의에 동독 인민군(NVA: Nationale Volksarmee) 창설(1956년 3월 창설되었음: 역자 주)이 동독 청소년들 사이에 일어났던 평화주의 물결에 의해 반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슈타지 부총책이었던 브루노 베아터(Bruno Beater)는 이를 「자유독일청년단」

과 동독의 어린이 단체였던 「선구자단(Pionierorganisation)」에 대한 충분한 정신교육이 군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어 베아터는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을 강조했다.

### “폭도, 소란단체, 클럽·패거리”

1961년 10월 19일이 되어서야 슈타지 총책이었던 에리히 밀케(Erich Mielke)는 슈타지 각 총국(HA)과 시도 단위 지부(BV) 대표에게 청소년 실태에 대한 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밀케는 슈타지에게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밀케는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 동독의 국방문제, 자유독일청년단(FDJ)이 주도한 “NATO-방송 반대운동(Blitz kontra NATO-Sender: 서독방송청취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비롯, 서독지역에서 수송되는 물품통관에 대한 “장애물 제거(Störfreimachung) 요구” 등에 대한 동독 청소년의 태도가 어떤 지에 대해 큰 흥미를 가졌었다. 그 후 밀케는 슈타지 산하기관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1963년 7월 4일 최초로 슈타지 전 기관에 “동독 내 청소년 집단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변화와 지하활동에 대한 정치·전략적 대처 방안”을 하달했다. 이는 1963년 3월 21일 사회주의통일당의 정치국에서 “청소년에 대한 신뢰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청소년코뮌니케」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하달한 지침서에서 밀케는 서독이 동독 청소년들의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동독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주의의 이상을 고취시킬 것”을 핵심적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서독

이 반공산주의 사상을 동독 청소년들에게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963년 1월에서 4월 사이 동독 내 청소년 및 청년 사이에서 발각된 국가에 대한 적대적 행위의 58%가 25세 이하의 청소년이 주동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밀케가 하달한 지침서에는 “폭도, 소란단체, 클럽·패거리”의 적대적 활동과 기타 “부정적 단체의 조직과 결성”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밀케는 무엇보다 슈타지의 비공식 활동을 25세 이하의 청소년들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1965년 10월 11일 동독 공산당 비서국 중앙위원회(Zentralkomitee: ZK)는 청소년 문제와 소위 “청소년 소란단체”라고 불리는 단체의 출현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문서로 작성한 바 있다. 본 문서에는 우선 「자유독일청년단」과 언론기관은 서독 사상이 침투할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말아야 하며, 굳은 신념을 가지고 서독의 사고방식을 거부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 몇 일 전인 1965년 10월 7일 동독의 건국기념일에 몇몇 비트밴드가 출현하자 문화성 장관은 “저속음악단체”와 “서구의 음악을 모방한 퇴폐적인 음악”을 즉각 수사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사회질서를 위협하고 노동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들은 강제수용소로 보내야 할 것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와 같은 명령이 내려지자 슈타지는 할 일이 많아졌다. 청소년 문제를 담당했던 제20실 2과(HA XX/2)는 청소년 관련 각종 사건과 현안들을 엄격하게 다스려나갔다. 베를린 리흐텐베르크(Lichtenberg)에서는 거리에서 “서성거리는 것”만으로도 20명의 청소년이 체포되기도 했다.

## 명령 제11/66호

동독 공산당 비서국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슈타지는 「슈타지-명령 제11/66호」를 발동, 신속하게 대응했다. 본 명령은 「업무지침서(Dienstanweisung) 제4/66호」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되었다. 상기 두 문건은 1989년까지 모두 그 효력을 유지했다. 업무지침서 제4/66호에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 수단, 목표, 담당기관 등을 상세히 명시해 놓았다. 슈타지 명령 제11/66호와 업무지침서 제4/66호는 이미 1960년대 말 프라하의 봄(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스탈린주의자 노보트니 정권에 대항하여 일어난 민주자유화운동, 소련군을 비롯한 바르샤바조약기구 5개국군 20만 명의 불법 무력침공으로 실패: 역자 주)과 동독 건국 20주년(1969년 10월 7일이었음, 동독은 그 후 건국 60주년 행사를 1989년 10월 7일에 거행했으나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음: 역자 주)과 같은 행사를 계기로 시행규정을 보강한 바 있다. 바르샤바 동맹에 의해 1968년 8월 체코슬로바키아에 군대가 진입하자 밀케는 이 사건에 대한 동독 청소년들 특히, 대학생들과 전문학교생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슈타지 총국 제20실(HA XX)은 “1968년 9월 21일 보안조치”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년들이었다고 연간보고서에 언급한 바 있다. 슈타지 명령 제11/66호 역시 제1차 시행규정에 의해 1969년 8월 8일 보강되었다. 밀케는 시행규정 발표와 함께 “퇴폐적 행동과 외모(지저분한 외모, 장발, 자극적 의상, 퇴폐적 파티 개최)”의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 단속할 것을 명령했다.

## 청소년 비공식 요원

슈타지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동독 청소년들의 대응과 저항 움직임을 파악했다. 이후 밀케는 각 기관 대표에게 동독 청소년 문제에 대해 공작 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밀케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유희진압의 반혁명사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동독 청소년들을 감시하고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비공식 요원(M)의 충원을 요구했다.

밀케의 이와 같은 요구가 현장에 얼마나 반영·실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1969년 1월 23일의 슈타지 종합평가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본 종합평가서에는 부모가 있는 “긍정적 가정”의 출신배경과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춘 청소년이 비공식 요원으로 가장 적격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 “부정적이고 불안정적인 성향의 청소년들”에 비해 그와 같은 출신배경의 비공식 요원들은 규율준수, 적극성,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반면, 부정적 인적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은 반국가적 행동 근거를 찾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했다. 종합평가서는 슈타지가 1989년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자, 청소년 문제와 관련, 비공식 요원의 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했던 요인들을 최초로 언급하기도 했다. 청소년 감시를 위해 슈타지는 별도의 정보원에도 크게 의존했으나, 이들 정보제공자들 중에는 신뢰성이 부족하고 슈타지의 개입으로부터 항상 이탈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 결과 1968년 비공식 요원 6명을 관리하던 슈타지 시도지부가 이들 요원들과 협력관계를 해지해야만 했던 경우가 있었다. 그 이

유는 이들 요원들이 “작전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성실성, 신뢰성, 안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었다. 협력관계가 해지된 정보원들은 모두 청소년을 관리하기 위한 슈타지 업무에 스스로 지원했던 사람들이었다. 더 나아가 슈타지는 18세 이하의 접선요원(Kontaktperson: KP)과의 협력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쉽게 발각·노출된다는 점과 객관적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또한 슈타지의 업무가 그저 스틸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업무를 위한 협력에 흥미를 빠르게 상실한다는 점 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경험상 그와 같은 접선요원(KP)의 투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종합평가서를 비롯, 당시 작성된 분석보고서에는 18세 미만의 요원에 대해서는 비공식 요원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시도 슈타지 지부(Bezirksverwaltungen: BV)들이 청소년들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할지 몰라 여러 방법을 “시험”하고 있음을 언급해 놓기도 했다. 이와 같이 슈타지 시도 지부들이 동독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불안정하고 미숙하게 보였던 이유는 슈타지가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18세 미만의 접선요원을 다루는 데 있어 필요한 고도의 전략과 경험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 소비에트 비밀경찰의 지원

1970년대 초 동독 청소년들 사이에 ‘떠돌이 생활을 하는 움직임(Tramperbewegung)’이 일어났다. 슈타지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움



직업 속에 자리잡고 있는 정신적 자유와 신체적 이동, 그에 따른 통제력 상실이 큰 문제였다. 슈타지의 청소년 관리는 개신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독 청소년들이 개신교회로 모여들었고 개신교의 공개행사에 큰 폭으로 참가했기 때문이었다. 청소년의 개신교 활동은 점점 정치화했으며, 이는 1980년대 초 평화, 인권, 환경단체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동기로 작용했다.

1976년 4월 슈타지 총국 제20실(HA XX) 대표 킨베르크(Kienberg)는 슈타지와 소비에트의 국가비밀정보원(KGB) 사이의 업무협약에서 동독 청소년의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한 바 있다. 동독의 청소년들이 “퇴폐적이고,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견지하면서 서독의 히피족과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장소에 대규모로 나타나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모여 서독의 라디오를 듣고, 동독의 정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교환하며, 술과 환각물질을 남용하고 있으며,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을 일삼는 서독의 생활방식을 흉내 내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적으로 부정적 면모를 보이는 동독 청소년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1974년 포그트란트(Vogtland)의 비트-페스티벌에는 반국가적 구호를 외치고 인민경찰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수백 명의 무임여행자들이 운집했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킨베르크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슈타지의 비공식업무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했다. 물론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청소년에 대한 대처가 계속 전개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연령적으로 부정적 영향에 물들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소비에트 국가비밀정보원이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소비에트의 경험은 어떠한지 궁금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킨베르크는 보고를 마쳤다.

### 청소년 문제의 전개과정

1980년대 초 슈타지는 급진적 성향의 청소년에 직면하게 되었다. 1970년대 방랑하던 청소년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비롯된 이들 펑크족들은 1980년대 들어와 사회주의통일당과 동독정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항했다. 이러한 현상은 슈타지가 청소년 비공식 요원을 선출할 때 명백하게 드러났다. 1980년대 청소년 실태에 대한 슈타지 분석보고서를 보면 청소년 문제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든 시도 단위 슈타지 지부는 전력을 다해 청소년 비공식 요원의 질적·양적 확대를 꾀했으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반면, 기존의 청소년 비공식 요원의 “해고비율(Abschreibungsquote)”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청소년 비공식 요원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슈타지와의 협력에 소극적이거나 접촉약속을 자주 어기고, 불만족스럽게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 비공식 요원과의 협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거나, 이들이 “적대적이고 부정적 사람”에 의해 물들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조사결과 슈타지 요원들이 청소년 비공식 요원을 정서적으로 충분히 돌보지 않았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부정적 청소년 단체들에 대해 슈타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들 단체들이 자체 보안

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회원들에게 각종 “테스트”와 “용기를 입증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결속력을 강화했기 때문이었다.

슈타지는 강제적으로 끌어들이는 비공식 요원들을 신뢰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자율적” 차원에서 협력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 부족한 청소년 비공식 요원을 보충하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펑크족 중심의 청소년 저항을 막기 위해 슈타지는 청소년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빼내는” 작전을 전개했다. 이들에게 그 동안의 활동을 용서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비공식 요원으로 회유했다. 더 나아가 재정적 또는 “물질적인 보상”을 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하지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1982년 슈타지의 시도 단위 지부가 관리한 비공식 요원 중 청소년 요원은 10% 정도에 그쳤다. 반면, 같은 해 전체 범죄행위 중 청소년 범죄는 47.49%를 차지했고, (정치적으로) 반국가 행위를 한 범죄의 경우 청소년도 25.86%를 차지했다. 그리고 국경지역 범죄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75%를 차지했다. 슈타지 분석에 의하면, 1984년 청소년 비공식 요원의 수는 증가하지 않았고, 각 요원의 임무수행능력도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의 비공식 요원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반증했다. 먼저, 슈타지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비공식 요원으로 두었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으로 슈타지에 협력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수가 줄어든 것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동독의 청소년들이 서방세계라는 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슈타지는 청소년 비공식 요원 확보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16~18세 청소년 사이에서 이미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베를린의 시도 단위 슈타지 지부에 속한 133명의 청소년 비공식 요원 중 1988년 한 해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수는 42명이나 되었다.

### 동독 극우세력에 대한 슈타지의 인식

1987년 이후 발간된 슈타지의 월간보고서, 활동계획서, 분석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슈타지가 극우주의, 신나치주의 성향을 띠는 청소년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 이전까지 슈타지는 거의 극좌파적 펑크족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다. 1987년 10월 17일 베를린 시온교회(Zionskirche)에서 열린 펑크공연장을 스킨헤드족이 급습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슈타지는 이 예기치 않은 사건 때문에 매우 당황했다. 슈타지의 장(長)인 밀케는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신나치주의와 관련된 과격한 사건 발생시) 총기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을 직접 발표할 정도였다.

극우주의 청소년 문제에 대해 슈타지는 왜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1988년 2월 2일 당시 슈타지의 부총책임이었던 미티히(Mittig)가 내린 지시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미티히의 지시 내용에는 스킨헤드족의 외모(대머리, 항공재킷, 스키니진, 군화)에 대한 묘사와 함께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미티히는 스킨헤드족은 성실하게 직업생활을 하며, 다른 부정적 청소년들과 달리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스킨헤드족은 군복무를 “독일인의 의무”

로 보기 때문에 군복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스킨헤드족이 동독사회에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규율과 질서, 안전과 국가방어 의지를 가장 중요시하는 동독 사회에서 이와 같은 극우파 세력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다. 슈타지는 이런 극우세력을 “광적인 축구클럽 팬” 정도로만 보았다. 극우세력에 대한 슈타지의 이러한 관대한 태도 때문에 극우세력은 로스토크(Rostock)나 호이에스베르다(Hoyerswerda)에서 외국인을 공격하는 등 종종 과격행위를 일삼을 수 있었다.

## 결론

수많은 슈타지 문건에는 단 한 번도 동독 청소년에 대한 감시가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고 나타나 있다. 슈타지는 청소년 문제 발생을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 차후 대응할 뿐이었다. 이는 동독의 많은 청소년들이 일반인과는 달리 대부분 동독체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거부했고, 저항했음을 알 수 있다.



## 아동 및 청소년 슈타지 요원 선발

카르스텐 뒸멜 (Karsten Dümmel)

1950년대 동독의 청소년들이 로큰롤에 심취해 있었다면, 1960년대는 록 앤드 비트의 시대였다. 음악적 취향과 함께 특정 패션도 유행했다. 바가지 머리, 장발, 수북한 수염, 니켈 안경테, 색 바랜 청바지, 파카, 수제가방 등이 동독 히피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사회주의통일당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반시민적이고 독특한 모습을 불안하고 불신의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젊은이들은 유혹되기 쉬운 계층이었고, 서방 세계 패션, 서방 세계의 철학, 이념에 이끌리기 쉬운 세대다. 다시 말해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사상을 띠기 쉽다는 것이다. 슈타지는 사회주의통일당의 사주로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서 정부에 충성하는 자는 크게 포상하는 반면, 반사회적이고, 튀는 행동을 하는 자는 공개적·비공개적으로 억압했다.

1966년 봄에 제시된 두 개의 슈타지 문건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업무지시 제4/66호이고, 다른 하나는 명령 제11/66호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과제가 제시되어 있었다. 동독 청소년을 “정치·이념적으로 전향시키고, 그들의 지하 활동을 퇴치”하는 것이 과제였다. 이를 위해 슈타지는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향후 “사회에 큰 위협이 될 범법행위”를 할 만한 14~25세 청소년의 이름을 모두 간추렸다. 그 다음으로는 비공식 요원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을 뽑아서 공작 대상이 되는 그룹에 침투시키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어내도록 했다.

실제 업무에서 “전면적인 전향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인물 및 그룹은 다음과 같다.

- 전과가 있는 청소년
- 석방 청소년
- 노동을 혐오하는 청소년과 여기 저기 일자리를 옮기는 사람
- 서독을 다녀온 자
- 고등학생 (인문고등학교로 추정)
- 불안정한 정치·윤리사상으로 반국가적인 행위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그룹
- 가정생활에 결함이 있는 청소년
- 대학생
- 교과 성적과 전공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 청소년
- 견습생
-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사회주의 교육과정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청소년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세력으로 집단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획자 및 우두머리”를 숙아내고, “반국가적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동시에 “적대적 행동”을 금지하거나 미리미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슈타지는 기언급했듯이 18세 이하의 비공식 요원으로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했다. 이와 같은 인적 네트워크는 1989년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다. 최근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슈타지에 종사했던 21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비공식 요원들은 12,000명에서 17,200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을 슈타지와 결속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또 다른 방법은 일반학교, 직업학교, 대학, 군대 등을 대상으로 차세대 슈타지 요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한 것이었다. 슈타지의 차세대 요원 양성을 위한 예비선발을 일반학교 제7학년부부터 시작했다. 본선은 8학년 때 시작, 늦어도 9학년이 된 해의 6월 15일을 넘기기 전에 완료해야 했다. 선발시 삼은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선발 대상자가 12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과 서독에 친척이 없어야 하는 것이었다. 선발대상이 되는 학생이 업무에 적합한지를 알기 위해 학교교장과 담임선생이 작성한 명단도 중요했다. 대상 학생의 평가항목에는 본인의 정치적 견해, 성적, 국가와 동독 사회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방과 후 활동, 해당 학생을 가르친 교사의 개인적 견해도 포함되어 있었다. 때론 슈타지와 가장 가까운 접촉을 하는 교과 교사(국민교육, 역사)와 교장의 견해도 중요했다. 이들은 군 및 시도 단위 슈타지 지부가 “사회보안요원(Gesellschaftliche Mitarbeiter für Sicherheit: GMS)”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앞서 소개된 방법 외에도 슈타지는 청소년 요원 확보를 위해 국가인민군(NVA: Nationale Volksarmee)의 자료들을 이용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슈타지는 청소년의 장기간 군복무, 직업장교(25년 근무),

혹은 직업하사관(10년 근무) 대상자에 대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지는 때를 같이하여 군에서 수집한 정보를 평가하고 이를 자체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했던 것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군간부의 모집이 전국적으로 일반학교 7학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슈타지는 이 시기를 틈타,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슈타지는 플라우엔(Plauen) 출신의 한 교사를 상대로 공작(코드명 “포럼”)을 한 바 있다. 슈타지는 이 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면서 공작을 전개했다. “해당 교사는 우리 당(사회주의통일당)이 내린 과제와 결정사항을 자신의 업무에 창의적으로 적용시킬 능력이 부족하다. 제9학년 5개 학급의 교련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교사로서 그는 직업군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 교사는 지식을 더 갖춰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더 잘 설득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시대나 장소를 막론하고 교사들 중에도 정의로운 소수의 예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적이고 저항시민으로서의 용기를 갖춘 교사들이 실제 얼마나 적었는지를 나타내주기도 한다.

청소년 요원으로서의 선발은 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수업 중에 면담실로 불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이 면담실에 들어서면 대부분 두 세 명의 남성이 민간 복장으로 앉아 있었다. 때로는 교장이나 전공교사가 합석할 때도 있었다. 대부분은 학생의 정치적 견해와 성적을 칭찬하는 자리였다. 이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교과목은 학생의 체육, 수학, 물리학 등 특정 과목과 학생의 부모에 대해서였다. 면담을 통해 학생에게 의도

적인 칭찬을 늘어놓는 이유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다수 중에 돋보이는 존재이며, 선택된 자임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불려간 학생은 외형적으로 직업군인 선발을 위한 몇 차례의 우회적인 면접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슈타지 요원으로 양성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 밖에도 대상이 되는 학생에게 작은 임무를 부여해 슈타지와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약간의 압력을 행사해 학생을 설득시키거나 슈타지 요원과 친해지게 만들어 슈타지에 묶어놓는 방법도 사용했다.

청소년들이 슈타지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나이는 14세 정도였다. 이때부터 청소년들은 슈타지 요원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관리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점차 미래지도자 혹은 후보로 키워지는 것을 느끼게 한다. 청소년 요원을 만나기 위해 슈타지는 그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성탄절과 생일에는 선물도 주었다. 박물관, 사관학교, 극장, 군사훈련장소, 영화관이나 연주회장 등도 슈타지 요원과 애송이 청소년 요원의 접선 장소로 사용되었다. 슈타지는 점찍은 청소년 요원이 18세가 될 때까지 그들로부터 매년 활동 동의서를 받았다.

미래 슈타지 요원 선발과 관련하여 사용했던 다른 방법의 하나는 “펠릭스 제르진스키 연대”(펠릭스 제르진스키 연대는 동독 국가보안성(슈타지)에 소속되어 있던 부대이름. 펠릭스 제르진스키(1877~1926)는 폴란드 출신의 혁명가이자 소련의 정치가였음. 소련의 비밀경찰 KGB의 창설자로도 알려져 있음; 역자 주) 혹은 동독인민군과 연결된 연락관(Verbindungsoffizier: VO)을 대상으로 한 모집이었다. 본 경비연대(Wachregiment)는 “동독 주요 지도자들의 신변보장”을 위해, 그리고 특정 시설과 건물에 대한 “군사작전의 안전”을 위해 투입되는 슈타지 소속 동독 인민군의 다른 형


태(Waffenrock)의 단위 군부대였다. 이 경비연대를 대상으로 하는 슈타지 요원의 선발은 “슈타지의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는 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간부로도 성장할 수 있는” 인물만을 대상으로 했다. 동독 인민군 연락관을 대상으로 하는 슈타지 요원의 선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선발된 젊은이들은 때로는 군복무가 완료되기도 전에 투입되기도 했고, 선발지역 또는 각 시도 슈타지 지부의 비공식 요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의무를 받았으며, 궁극적으로 정식업무에 투입되었다.

BSU  
000004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 Bereitschaftserklärung

Ich  

geboren am  wohne(n) in Schlei 

**KOPIE**

erhalte hiermit meine Bereitschaft, Berufsoffiziersbewerber/Berufsoffiziersbewerberin des MfS zu werden und nach der Facharbeiterausbildung bzw. dem Besuch der Erweiterten Oberschule als Berufsoffizier/Berufsoffizierin im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Dienst zu leisten.

Die sich daraus ableitenden Konsequenzen, insbesondere zur Vermittlung von Kontakten und Verbindungen in das nichtsozialistische Ausland einschließlich Westberlin und zur Wahl meines Umgangs- bzw. Freundeskreises sowie zur Parteiwahl, werden von mir anerkannt und beachtet.

Durch aktive gesellschaftliche Arbeit und bestmögliche Leistungen in Schule, Berufsausbildung und im FDJ-Bewerkskollektiv werde ich mich zielstrebig auf den Dienst im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vorbereiten und das mit entgegengebrachte Vertrauen rechtfertigen.

Mir ist bekannt, daß ich bei vorhandener Eignung sowie dem Vorliegen notwendiger Voraussetzungen durch das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Unterstützung bei der Vermittlung der Facharbeiterausbildung mit oder ohne Abitur oder zur Erweiterten Oberschule erhalte.

Änderungen in den persönlichen und familiären Verhältnissen werde ich dem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unverzüglich mitteilen.

Über meine Schweigepflicht bzw. die notwendigen Verhaltensweisen an der Schule und Ausbildungsstätte, gegenüber dem WKK der NVA sowie anderen Personen wurde ich belehrt.

Es ist mir bewußt, daß die von mir ungestörte Entwicklung sowie die Einstellung in das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nichtig werden, wenn die in den Einstellungsbedingun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festgelegten Voraussetzungen nicht oder nicht mehr vorhanden sind.

Mit der vorstehenden Bereitschaftserklärung unseres Sohnes sind wir einverstanden und werden die vorgesehene Entwicklung unterstützen.

**BSU**

  
Ort: Schlei  
Datum: 1.8.72

  
Unterschrift des Bewerbers

Schlei  
Ort

1.8.72  
Datum

  
Unterschrift der Eltern/  
Erziehungsberechtigten

**DER DUNDEBEAUFTRAGTE**  
Für die Verrichtung des Staatsicherheitsdienstes  
der Bewerben (Überprüfen) Gewerkschaften Mitglied  
- ASI, Gera -  
Kriegstein

BSU  
000005



우도 쉐어 (Udo Scheer)

세계의 모든 비밀경찰과 마찬가지로 슈타지 역시 자신의 정체를 최대한 숨기려고 했다. 슈타지의 집무처는 엄격하게 감시·통제 대상이었다. 슈타지 본부가 위치했던 베를린-호엔쇤하우젠(Berlin-Hohenschönhausen) 거리는 지도상으로 푹 끊어져 있다. 그 곳 겐슬러 슈트라세(Genslerstraße)를 둘러싼 20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부지 위에 있는 슈타지 구류시설은 지도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다. 이 곳에는 2,500명이 “정치적인 적”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던 “취조실”이 있다. 그 곳에서 가까운 베를린-리히텐베르크(Berlin-Lichtenberg)의 노르만넨슈트라세(Normannenstraße)에 위치한 슈타지 본부에는 약 7,000여 명이 근무했다. 슈타지의 시도 단위 지부도 마찬가지였다. 슈타지가 운영하는 구류소와 업무공간 등이 위치한 지역은 도심 속 작은 도시로 극장 및 각종 편의시설을

비롯하여 자체 병원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슈타지 직원들은 업무 시간 외에도 주로 자신들끼리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감시했다.

슈타지는 동독의 주민들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조심하게 하는 기운을 내뿜었다. 공개석상에서 누군가 비판적인 발언을 할 때에는 거의 반사적으로 “엿듣는 귀”가 없는지 주위를 돌아보고, 목 소리를 낮추거나 의식적으로 대화의 주제를 전환하게 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급적 슈타지가 소재한 지역을 피해 다녔다. 3m 이상 되는 높은 담장과 대규모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는 슈타지 건물내부는 보이지 않는다. 담장에는 감시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을 지나야 하는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하고 제복을 입고 있는 보초병과 되도록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했다.

슈타지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일반 주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슈타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활동들은 엄격하게 비밀에 붙여졌다. 1980년대 초 이후 슈타지가 사용한 거대한 부지와 수많은 건물들은 일반 주민들의 공포를 자아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거대했다. 예를 들어 가장 작은 주정부였던 튀링엔 내 시단위 슈타지 건물이 세워졌는데 그곳에만 2,361명이 근무했다. 슈타지 건물의 크기만으로도 그들의 감시활동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해 주었다.

국경일, 정당대회, 국민방문 등과 같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행사는 주로 베를린의 알렉산더광장(Alexanderplatz)과 같은 공공장소나 국경과 가까운 거리나 철도역 같은 곳에서 실시되었는데 이 때에는 슈타지의 명령에 따라 “민간 인력”까지 투입되어 교통 및 신원



조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졌다. 교통경찰에 의해 열차 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던 일반적인 신분증 확인 작업은 정치 행사의 방해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동독 탈출을 시도하는 자나 슈타지의 감시를 받던 저항인사들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주거지 및 대규모 행사의 안전과 통제를 위해 슈타지는 17만 5,000명에게까지 달했던 “인민경찰지원자(Helfer der Volkspolizei)”라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사법경찰은 15,000명의 “비공식 범죄경찰 지원요원(Inoffiziellen Kriminalpolizeilichen Mitarbeitern: IKM),” 특히 인민경찰 정치국 K1(약 2만3,000명)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들 사법경찰은 슈타지로부터 많은 업무를 위임받았거나 슈타지를 위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은 환경 및 평화 운동단체를 색출하고 형사법적인 처리를 담당했다.

정기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동독 주민들은 서베를린과 서독지역 사이의 동독 통행구간에 있는 몇 안 되는 주차 공간에 자동차가 늘 주차되어 있고 그 속에는 대개 두 명 정도의 남자가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고속도로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비슷한 형태의 감시가 고속도로 출구와 고속도로 위에 지어진 다리에서도 있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휴게소 주차장에도 마찬가지로 민간요원이 항상 보인다. 이뿐 아니다. 고속도로에는 항상 CCTV를 통한 감시가 이루어졌다. 미헨도르프(Michendorf)의 MITROPA 휴게소에는 고성능 망원경을 설치, 사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감시활동은 슈타지 총국 제8실(HA VIII, 감사조사담당)이 관장했으며, 세관업무 담당기관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들의 임무는 통행구간에서 동서독인이 접촉

하거나, 정보를 교류하고 금지 서적이나 잡지 등을 몰래 동독에 유입하는 것, 서독인을 차량에 동승하는 것(탈출 위험), 동독에 사는 친인척을 만나기 위해 서독 주민이 허락없이 통행구간도로를 이탈하는 것 등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통행구간 도로상의 교통량은 상대적으로 적어 슈타지의 감시활동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와 같이 거대하고 상호 잘 연계되었던 기관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을 완벽하게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그 어떤 대상자도 자신이 어떤 범주의 감시 대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다층적 감시체계가 개발되었다.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감시 대상은 친척방문 목적으로 서독이나 서유럽 국가를 방문하는 자,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서신교류를 위해 서유럽 국가로 편지를 보내는 자,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국가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자 등이었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자들은 일시적으로 서유럽 국가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자, 기독교에 적극적인 자,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탈출한 사람, 청소년과 “공작조치(ov)”의 대상이 되었던 자의 친인척 등이었다.

세 번째 범주에는 과거 국가차원의 중요업무나 국가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자들이 속해 있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약 3백만 명 정도였다. 여기에는 체육계, 문화계, 경제계, 학술계 등의 분야에 속했던 대표급 인사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국경지역관리에서부터 복재업무담당(첼라틴판 복사기, 청사진 복사기를 다루는)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기밀을 취급하는 분야의 종사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그들의 사상, 서

독과의 교류, 친인척 중 정치문제와 연류되어 있는지를 항상 감시받았다.

각 직업군의 고위직에 종사하거나 기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종사하는 자들은 슈타지의 연락책이나 전문 인력을 통해 임무를 부여받거나 그들에게 하등의 의문 없이 정보를 제공했다.

슈타지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증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동독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어 있었다. 슈타지에 대한 협조는 엄격하게 기밀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비공식 요원을 비롯하여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겼다.

슈타지가 존재했던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동독 주민에 대해서는 약 100만 건에 달하는 취조가 이루어졌다. 일단 “연행된” 사람은 체포영장 없이도 최대 48시간까지 취조를 위한 구금을 할 수 있었다.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된 사람이나 정치범으로 재판을 받은 자는 구금조치가 해제되기 전 비밀유지서약을 해야만 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1989년까지 가족에게까지 취조사실에 대해 침묵하기도 했다. 자신의 입에서 새나간 기밀이 슈타지의 귀에 들어가고, 주변의 사람들이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까지 위협에 처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침묵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동독의 경제는 슈타지가 관심을 가졌던 예민한 부문의 하나였다. 경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슈타지의 임무 중 하나도 동독의 경제가 “지장 없

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경제문제는 슈타지 총국 제8실(HA VIII)이 담당했다. 제8실의 임무는 산업과 연구 분야를 스파이의 행위와 태업으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계획의 실천에 있어 결림들을 찾아내 해소하고 기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보안감시를 하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슈타지는 거의 모든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완벽한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정도는 상상이상이었다. 비밀유지 노력은 “오로지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한 단순 노동자의 일지에서부터 “업무상 기밀”로 분류된 전화번호부를 비롯하여, 각종 “업무상 기밀자료,” “특별생산”과 관련된 “기밀”에까지 이르렀다.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기밀유지는 결국은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안상 이유”때문에 오히려 혁신적으로 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적극적인 지식교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화재사건, 기술문제로 인한 기계사고, 심각한 생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슈타지는 이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 슈타지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 계획 및 경영 오류 등의 원인을 밝히는 한편, 사회주의 통일당 내 담당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안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경제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군 단위 슈타지 지부도 특별히 설치된 “업무처리부서”를 통해 “무역과 급양”과 관련된 상황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기록·보고했다.

1982년 가을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지도부는 NATO가 서독의 군비증강을 결정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독도 군비확충에 나

설 것을 보고했다. 그러자 “모든 제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전쟁 발발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을 반영해주는 현상이었다. 슈타지는 어떤 종류의 상품이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하는지를 파악했다. 가장 부족한 종류의 상품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료품과 가공식품이었다. 슈타지가 식료품과 가공식품의 공급량을 늘려도,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우려했던 적이 있었다.

슈타지의 평가 및 정보담당 본부(Zentrale Auswertungs- und Informationsgruppe)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다. 이 본부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사회주의통일당 지도부와 정치국에 사회 분위기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 본부는 사회주의통일당 지도부에 동독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항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수많은 지식들을 제공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슈타지 군과 시도 단위 지부에서도 해당 지역 사회주의통일당과 비서국에 정보를 전달했다.

1968년 “프라하의 봄” 사건이 일어나자 슈타지 지도부는 동독 내 개혁세력과 체제 반대세력을 찾아내어 애초부터 저항의 “싹을 잘라버리는데” 전력을 다했다. 1980/81년 폴란드 자유노조(Solidarnosc)가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을 때에도 슈타지 평가·정보담당국은 똑같은 인식하에 동독 내 실태를 조사했다. 자국민을 불신했던 슈타지는 “그단스크의 사례(Gdanskter Muster)”를 본받아 1981년 헬무트 슈미트 서독 수상의 귀스트로(Güstrow) 방문에 맞춰 주민들이 쫓겨할 것을 우려, 17,000명의 슈타지 인력과 거의

맞먹는 수의 인민경찰을 동원하여 헬무트 슈미트 수상 방문을 보호했다.

슈타지의 평가 및 정보담당 총국은 동독 내 모든 부문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정보를 사회주의통일당 지도부에 제공했다. 정보는 점점 쇠퇴해 가는 경제, 턱없이 부족한 교통 인프라, 급양과 보건체계 문제, 사회주의통일당 정책에 대해 증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과 출국 움직임, 정부에 대한 저항 움직임 등에 관한 것이었다.

슈타지에서 근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특권층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었음을 의미했다. 슈타지 요원에게는 특별히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슈타지 요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었던 Lada(러시아 자동차 업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이름: 역사 주)와 Shiguli(러시아 Lada사의 1970년대 초까지의 명칭: 역사 주)차를 타고 다닌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과 구분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는 슈타지 요원에게 서독 폭스바겐(vw) 자동차회사의 「골프」라는 차가 지급되기까지 했다. 게다가 슈타지 요원들은 다른 일반 동독 주민들처럼 차를 주문한 후 10년~1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슈타지에 대해 한 가지 놀란 만한 사실은 슈타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이미지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기 위해 오히려 역이용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슈타지는 금지된 사적 독서토론회나 철학토론포럼, 환경과 평화를 애호하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슈타지 꼬나풀이라고 비난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신문지상에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인물

이 잘 알려진 슈타지 요원과 함께 있는 조작된 사진을 싣고, 그 사람에게 대해 좋지 않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친구사이를 이간시키고 불신을 유포시켜 해당 단체를 와해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슈타지의 공식 요원보다 비공식 요원(IM)이나 사회보안요원(GMS)의 이름으로 활동한 첩자들의 이미지가 더 나빴다. 슈타지는 대개 공작대상이 되는 인물이 사는 곳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슈타지 요원들을 배치, 작전을 전개했다. 이들 슈타지 요원들에 의해 일단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공작대상인물”은 일자리에서나 술집에서 외롭게 생활해야 했다.

1966년 동독의 시민권을 획득한 헬가 노박(Helga M. Novak)이라는 여류시인은 1950년대 자신이 쓴 “빈프리트 슈체라는 첩자에 관한 시(Tragoballade vom Spitzel Winfried Schütze in platten Reimen)”에서 슈타지 비공식 요원(IM)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밀고자이며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첩자는 자기 내면의 갈등 때문에 결국 목을 매 자살했다. 그가 자살하기 전 이렇게 외쳤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나라는  
첩자에 의해 유지되는 나라다.”





카르스텐 뉘멜 (Karsten Dümmel)

동독 주민으로 하여금 공식 요원, 비공식 요원, 사회보안요원이 되어 슈타지를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지금껏 슈타지 문건을 분석한 자료가 많이 나왔지만, 그 어느 것도 일치된 것은 없었다. 이와 관련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다른 동기를 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슈타지로서의 참여 동기가 그 어느 하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 가지 더 부연하고 싶은 점은 한 가지 동기가 주를 이루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른 동기가 지배적인 동기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의 동기와는 다른 동기가 지배적이 되는 소위 “동기연속(Motivketten)”적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각각 다른 형태로 나누어 슈타지 요원을 평가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정치적 또는 가치관에 입각한 신념에 의해 슈타지 요원으로 근무하려고 했던 자. 다시 말해 사회주의를 신뢰하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다.

두 번째로 보다 나은 사회주의를 꿈꾸고, 확신에 찬 것같이 행동 하지만, 현실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던 자. 이들은 국가와 사회가 사회주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지 않은 채 현실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사회주의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으며,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감춘 채 생활했다.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항상 새로운 삶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잠재적 분노를 표출하려는 경향을 보였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류에 속한 슈타지 비공식 요원들은 확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무로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서 주민을 고발·감시했다.

세 번째로 앞서 언급한 두 부류의 요원, 즉 확신에 차 있거나 부분적인 확신을 가지고 근무하는 슈타지 요원 외, 전혀 다른 형태의 부류가 있었다. 이들은 자기과시욕에서 그리고 밀고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했던 자들이다. 스스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지닌 이들은 권력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스스로 권력에 참여하고 권력을 가지려는 노력을 했다. 때때로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그들에

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는다든 판단을 할 경우, 현실사 회주의의 '실상'을 나름대로 알려주기도 했던 사람들이었다.

네 번째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부류에 속한 자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근무했던 요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직업적으로, 금전적으로 또는 슈타지 요원으로 서의 근무가 가져다주는 큰 이익을 갈망한 자들이었다. 이 부 류에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많 이 존재했다. 그들은 자신의 명석한 두뇌를 심분 활용하여 직업 적으로, 금전적으로 그리고 사상적 또는 비물질적 차원의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철저하게 비용과 편익을 따지며, 적절한 보 상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는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다섯 번째 부류는 인격이 파괴된 자들이다. 이들은 살아오면서 과거 어느순간 억압적 조치에 의해 삶을 희생당한 경험을 가진 자들이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을 밀고하고 배반했다. 이들은 자신들 내면의 권력욕과 저항적 사고 때문에 정신적 갈등을 겪곤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슈타지 요원으로 근무하려 했던 동기는 사회적 권력에 대한 참여와 개인적 권력의 확보에 있었다. 이들은 친구를 배반하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도와주는 것처럼 믿게 만들 었다. 즉, 두 얼굴을 가진 인간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편이 자 신의 아내를 밀고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대화를 감청하고, 형제가 형제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여섯 번째 부류는 소위 “보상의무”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요원들을 들 수 있다. “보상”이란 슈타지의 협박을 던질 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실제 죄책감이나 세뇌된 죄책감에 의해 행동한다. 이들은 슈타지만 이 알고 있는 자신의 범법행위를 타인에게 들키기 않기 위해 혹은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슈타지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슈타지에 대한 의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한 때 슈타지에 의해 구금된 경험이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 예를 들면 동독을 탈출하다가 체포된 자들, 군인, 동료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자들, 고가의 군사장비를 파손, 빚을 지게 된 자들도 있었다. 한 사례로 “파울루스”라는 코드명을 쓴 예나 출신의 슈타지 요원이 있었는데, 이 자는 세 번이나 강간행위로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자였다. 슈타지가 그를 고용한 이유는 그 사람이 슈타지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류와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부류는 슈타지에 피해를 입히거나 슈타지 조직을 파괴하기 위해 활동했던 자들이다. 이들은 수적으로 매우 적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자칫 간과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는 슈타지 요원이지만 서방 첩보기관을 위해 비밀리에 활동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예: 대서방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전달하거나, 공작을 펼치기도 했다. 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대부분 개인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일을 했다. 물론 그런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 중에는 베르너 테스케(Werner Teske)와 호르스트 가라우(Horst Garau) 등이 있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슈타지에 의해 살해당했다.

## 슈타지 요원 조건

오늘날에 와서 슈타지 비공식 요원이나 공식 요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은 억지로 차출되었거나, 무슨 조직인지도 전혀 모르고 발탁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슈타지의 비공식 요원으로 일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했다.

1. 의무이행각서: 각서의 내용을 직접 손으로 쓰거나, 미리 작성된 내용에 서명. 때로는 녹음을 통한 구두형태의 각서를 작성하거나 녹음된 내용을 전사(轉寫).
2. 인척을 포함, 모든 사람에 대한 묵비 의무
3. 가명사용의 선택
4. 접선 약속의 의무: 슈타지 간부 혹은 공식 요원과 비공식 요원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만날지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정하여 보고할 의무
5. 사건 및 인물에 관한 정보 및 보고서 제출
6. 슈타지 활동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금전 혹은 물품의 수용
7. 비금전적 생활지원에 대한 수용: 주거시설, 직업선택, 대학 진학, 직장 내 승진, 인문계 학교 진학, 동유럽 혹은 서방권 여행, 국외 체류, 자가용 할당, 대기 없이 받을 수 있는 건축허가 및 건설자재 등



카르스텐 뒸멜 (Karsten Dümml)

슈타지가 존립했던 40년 동안, 어떤 형태로든 슈타지 활동을 거부하는 자가 있었다. 이들 중에는 애초 비공식 요원 혹은 사회보안요원으로 선발되도록 조치가 취해졌거나, 슈타지 요원으로서 지원했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식을 버리지 않았던 용기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슈타지 요원으로서 활동해 달라는 권유나 계속 근무요구를 딱 잘라 거부하거나, 더 이상 슈타지와 종속 및 협력관계를 갖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었다. 슈타지가 자체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가졌던 시도는 열 번 중 여덟 번은 실패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슈타지 요원으로서의 활동을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첫 모집을 위한 면담 자리(본 책자 지그프리트 라이프러히가 쓴 글 참조)에서 용기 있게 거부의사를 밝힌 이들도 있었는가 하면, (자주 사용했

던 방법의 하나로) 수동적 자세를 견지한 채, 시간을 끌면서 확답을 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이 거부의사의 전형적인 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안 되는 것 같다,” “내 능력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현재 상황이 그런 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만든다,” “직장에서나 개인 사생활에 매일 일이 너무 많다” 등등.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이미 활동 중인 슈타지 요원의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슈타지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슈타지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스스로 위협에 빠지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본 책자 볼프강 템플린의 글 참조).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슈타지 활동의 중단을 통보한 용기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틴(Martin)」이라는 코드명을 쓴 슈타지 대도시 지부에서 근무했던 요원은 이와 같은 사례에 속한 슈타지 탈퇴자였다. 반면, 수동적 탈퇴자들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엉망으로 써 내거나, 접선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접선 자체를 무시하거나, 마치 눈치 없는 사람인 것 같이 슈타지와 의 일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등의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협력을 거부하거나, ‘탈퇴’를 시도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에 대해 장본인들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슈타지 활동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지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 사회주의통일당과 슈타지의 교회정책

클레멘스 폴른할스 (Clemens Vollnhals)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체제는 모든 사회분야의 획일화로 통했다. 동독에서 교회는 그 자체로서 이미 이질적인 존재였다. 동독에서의 교회는 유일하게 사회주의통일당의 직접적 지배를 받지 않은 대규모 기관이었지만, 교회가 견지한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은 무신론을 바탕으로 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위배된 것이었다.

1949년에 제정된 동독 헌법은 1950년대에 들어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이 개신교 및 카톨릭 교회에 대한 공식적 전쟁을 선언하면서부터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다. 그 즈음 교회에 대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한 세 개의 기구가 세워졌다. 1954년 설립된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내 교회문제부서(Arbeitsgruppe für

Kirchenfragen der SED)와 슈타지의 교회정책과(Kirchenpolitische Abteilung der Stasi), 1957년 초 만들어진 국가행정성 산하 교회문제담당처(Dienststelle des Staatssekretärs für Kirchenfragen) 등이 그것이었다. 이와 같은 기관을 통한 대교회 정책은 1989년까지 계속되었다.

행정차원에서 교회업무를 관할했던 부서는 국가행정성 교회문제 담당처였다. 그러나 이 기관은 공개석상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냈을 뿐, 교회에 대한 실질적 관할은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산하 교회문제부서가 담당했다. 이 부서는 사회주의통일당의 교회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사회주의통일당 정치국과 합의하에 확정했다. 여기에서 개발된 정책들의 형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교회를 적으로 공개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전략상 교회를 인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했다. 호네커가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는 공개적 대립보다는 포용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교회의 고위성직자들이 전하는 공식 교회정책은 슈타지의 비밀작전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회와 소규모 종교단체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비밀경찰과 같은 임무는 슈타지 총국 제5실 제4과(HA V/4)가 맡았다. 총국 제5실 제4과는 1964년 총국 제20실 제4과(HA XX/4)로 개편되었다. 1957년 초 슈타지 베를린중앙본부에는 종교단체의 통제임무를 담당한 25명의 직원이 있었다. 슈타지의 시도 단위 지부 내에도 종교단체를 관장한 임무수행 단위가 존재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70명이 근무했다. 이들이 맡았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교회의 구조를 파악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 위원회를 감시하는 것이었다. 그 후에는 “차별정책(Differenzierungspolitik)”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차별정책은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차원에서 “긍정적인” 교회세력을 파악·

지원하는 반면, “부정적·적대적인” 세력은 찾아내 그들을 중상모략하고 음모를 통해 제거하는 정책이었다. 이와 같은 이중적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슈타지는 교회 내 비공식 요원을 두었다.

1960년대 말 슈타지 베를린중앙본부는 138명의 첩자를 비공식 요원으로 채용했다. 개신교회를 담당한 부서 I에는 48명의 비공식 요원, 카톨릭 교회를 담당한 부서 II에는 44명의 비공식 요원을 두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대표되는 이단적 종교단체를 담당하는 부서 III에는 23명의 비공식 요원을 침투시켰다. 그 외 19명의 비공식 요원들은 1958년 설립된 부서 IV를 맡았는데, 이들은 서독과 관련된 정책, 즉 서독 지역과 서베를린과 연계된 교회정책을 조율하는 특수임무를 맡았다. 그 밖의 비공식 요원들은 시도 단위 슈타지 지부의 운영을 담당했다. 이 지역 교회를 담당했던 비공식 요원의 수는 전체적으로 수백 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교회 신도를 포섭하여 그들을 비공식 요원으로 “교육”하고, 슈타지 인력에 의해 그들을 통제할 업무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비공식 요원으로 발탁된 자는 자신이 슈타지 요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일종의 각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교회 신도를 상대로 포섭한 요원들에게는 이와 같은 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포섭된 요원들의 신분을 비밀리에 계속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슈타지 간부들에게 부여된 중요 임무 중의 하나는 그와 같은 교회 내 비공식 요원들이 보여주는 “믿음과 진실성”을 지속적으로 감시·심사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다른 비공식 요원을 투입하여 요원 서로

간을 감시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1979년 이후 요아힘 비간트(Joachim Wiegand)가 책임을 맡은 슈타지 총국 제20실 제4과(HA XX/4)에는 6팀이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했다. 부서 제I팀: 개신교회, 부서 제II팀: 카톨릭교회, 부서 제III팀: 이단종교단체, 부서 제IV팀: 평가와 정보, 부서 제V팀: 공작조치 및 정치적 저항세력, 부서 제VI팀: 공작지역(Operationsgebiet) 총괄. 1988년 6월 슈타지 총국 제20실 제4과(HA XX/4) 베를린 본부에는 44명의 정규 기획담당자가 근무했다. 그 밖에도 10명의 특수 목적 투입(Offiziere im besonderen Einsatz: OibE) 또는 정규 행정업무를 맡은 비공식 요원(Hauptamtliche Inoffizielle Mitarbeiter: HIM)이 근무했다. 그들은 국가기관이었던 국가행정성 산하 교회문제담당처(Dienststelle des Staatssekretärs für Kirchenfragen)와 내무성 내 투입, 주요 직책을 부여받고 슈타지의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 기관 산하 15개 시·도 단위 행정단위에도 약 120명의 슈타지 공식 요원이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했다.

1987년 슈타지 베를린 중앙본부에는 총 223명의 비공식 요원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여기에는 각 단위별 전문부서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최소 800명의 비공식 요원이 추가로 근무했다. 200여 개의 베를린 지역 단위 지부에 소속되어 비공식활동을 하는 요원들이 있었는데, 정확한 수는 파악할 수 없다. “교회 관련 업무”에 관여된 비공식 요원의 수는 전체 비공식 요원의 1% 미만이었다.

슈타지는 이상과 같은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분야에서 비밀경찰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당 지도부는 슈타지로부터

포괄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받았다. 슈타지는 국가의 교회정책 실천에 있어 중앙통제 및 조종역할을 담당했다.

슈타지가 동독 교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침투하였는지, 비공식 요원을 동원, 정치적 결정이나 교회 내부의 일에 개입,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된 논의도 큰 차이를 보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실한 것은 사회주의통일당과 슈타지가 교회를 상대로 추진한 “차별정책”에서 개신교회가 (규모 면에서 현저히 작은) 카톨릭교회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 카톨릭교회는 사회주의 통일당 정권과 현저하게 더 큰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구동독 시절 교회 내 비공식 요원의 활동형태와 규모를 파악한 자료를 보면, 슈타지 요원들이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슈타지 요원들 중에는 수십 년을 넘게 철저히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밀고한 사람에서부터 스스로 자신을 슈타지 요원이라고 공개하는 사람도 있었다. 개신교 목사와 카톨릭 주교 등 성직자를 대상으로 밀고와 첩자행위를 감행했다. 그들이 상대한 교회 인사들 중에는 다소 의외인 사람도 있었다. 예를 들어 슈타지에 비밀리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교회 관련 인사들 중에는 자신과 슈타지 사이의 협력이 오히려 국가와 교회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잘못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와 같은 ‘연약한’ 사교의 소유자 외에도, 의욕이 충만한 나머지 무턱대고 ‘저지르는 자’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교회정책을 세워 기여하겠다는 신념에 차 있었으며, 슈타지로부터의 지원을 얻는 데 힘을 쏟기도 했다. 그 밖에도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확신에 찬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이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진 “높은 이상”의 실현을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들 중에는 자기 직업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실망감과 개인적 악감정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여 슈타지의 임무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슈타지 업무와 관련, 강압적 방식이 사용된 사례가 드물었다. 그 보다는 사적인 관계, 불만스러운 현상 인식, 서로 신뢰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교감, 인정받고 싶은 욕망 등을 심리적인 차원에서 능숙하게 이용하여 장기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 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슈타지의 유능한 고위급 관리들은 비공식 요원의 생활 전반을 돌봄으로써 일종의 “정신적 후원자” 역할을 했다.

수많은 비공식 요원들이 자기착각에 빠져 슈타지를 위해 헌신했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슈타지 사이의 부끄러운 관계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슈타지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던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이 동료와 주민을 대상으로 첩자행위를 하고 슈타지의 임무를 수행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모름지기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외른 모테스 (Jörn Mothes)

1972년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여 인류의 발전과 성장문제와 관련,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 보고서는 지하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 인류에게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인 석탄과 석유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린 최초의 보고서였다. 전 세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은 이 보고서를 통해 미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폭발적인 인구증가라고도 제시한 바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과 식수의 확보가 전쟁과 평화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보고서에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사태를 대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무한한 경제성장이 행복을 보장해준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더 나아가 에너지와 지하자원의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전 세계의 식량과 식수의 분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도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독일어로도 번역되어 서독에서 출판되었다. 동독에서도 이 책이 자동차 문짝이나 외교관들의 코트나 빨래감 속 포장지 형태로 감춰져 은밀하게 동독에 유입되었으며, 동독 시민들에게도 그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 책은 동독에서는 공식적으로 금지된 책이었다. 사회주의통일당에 기반하고 있는 동독의 정권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원리나 목표에 위배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류의 미래와 생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불씨는 동독 주민들에게까지 옮겨졌다. 서로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할 것 없이 교회와 가정예배 모두 모여들어 '성장의 한계'에 대해 토론을 했다. 물론 이러한 모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회사, 학교와 관청 등에는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었다.

당시 동독에는 공공단체인 동독문화연합회(Kulturbund der DDR)가 있었다. 본 연합회는 여러 특별전문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었고 전문 위원회에는 많은 자연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 중에는 조류, 균류, 곤충, 해양생물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었다. 이들 과학자들은 각기 분야와 관련된 훌륭한 연구결과물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동독 정부는 자연과학자들이 포괄적이며,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생태학적 연구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조치는 동독이 몰락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동독문화연합회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통제된 자연환경협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따라



서 전 지구적인 문제나 인류가 직면한 정치 및 환경과 관련된 도  
전과제, 포괄적 차원의 환경보호 등에 관심을 가졌던 과학자들  
은 설 자리를 얻지 못했다.

환경문제가 1970~1980년대 개최된 다양한 기독교 차원의 국제  
회의에서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동독  
의 목사들은 현대신학이론에 입각하여 목회를 했다. 그들은 철  
저히 구약성서에 입각하여 신이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릴 권한  
을 준 것이 아니라, 자연을 수호할 의무를 주었다는 결론을 내  
렸다. 인간은 창조물의 일부일 뿐, 창조물의 정점에 선 존재가 아  
니라고 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스스로 자각하여 자연과학적 문  
제와 국가의 환경정책적 결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  
이라고 역설했다. 그 후 동독에는 성장의 한계와 연관, 자연과학  
적, 철학적 지식으로, 또한 신의 창조물을 수호해야 한다는 성서  
적 차원의 책임감으로 무장한 환경단체들이 동독에 최초로 등  
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루터의 도시로 알려진 비텐베르크(Wittenberg) 지역 소  
재 기독교연구소(Kirchliche Forschungsheim)는 환경단체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발전했다. 연구소 내 도서관에서는  
누구나 서독의 전문서적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  
해 교회에서 강연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강사목  
록도 제공했다.

1980년, 생태관련 최초의 기본 보고서인 “아직도 구할 수 있는  
지구: 환경위기와 기독교 신앙 그리고 실천방안(Die Erde ist zuretten-  
Umweltkrise, christlicher Glaube, Handlungsmöglichkeiten)”이 발간됐다. 자원봉사

자들은 이 보고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수 주간에 걸쳐 스텐실 글씨도안을 만들고, 성명서를 젤라틴판으로 복사해 편지봉투에 담아 발송했다. 환경운동 초창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일깨우는 일이었다. 환경단체의 이러한 노력은 슈베린(Schwerin)과 로슈톡(Rohstock)에서 결실을 맺었다. 1979년부터 이 지역 청소년들은 연중 여러 차례 모여 나무심기운동을 펼쳤다. 한 번에 최대 200명까지 모이기도 했다. 이들 청소년들은 사회주의적 “수보트닉(Subbotnik)” 전통 즉, 공공복지 증진 차원에서 토요일에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는 전통을 이용, 공공기업이나 수목관리사와 함께 대대적으로 나무와 덩불식물을 심었다. 그들은 나무심기운동이 환경보호운동의 상징이 되길 바랐고, 이 바람은 현실이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기독교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반국가적 행위라고 선언할 수 없어 고민하기도 했다. 나무심기 운동이 동독의 15개 도시와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자, 동독 정권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이 운동을 불법행위로 간주한 후 국가행사규정을 들어 금지시켰다. 정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활동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환경보호와 환경의식 확산을 위한 교회차원의 운동 외에도 환경 관련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슈베린 겨울 세미나(Schweriner Winterseminare zum Umweltschutz)”를 매년 개최하기도 했다.

환경단체가 동독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환경운동가들은 서독의 녹색당, 환경단체와 함께 발전된 평화운동단체와 제3세계 단체 등으로부터 새로운 자극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단체들과는 인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하려고 했다. 환경과 평

화운동, 평등한 세상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기독교 환경단체와 함께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한 동독의 독립환경단체들은 국가를 향해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독이 새로운 경제 및 에너지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외쳤다. 깨끗한 식수, 공장 굴뚝 거름장치 설치와 함께 효과적인 환경보호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1981년 이후 「세계환경의 날」(유엔이 세계 각국에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치적인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행사.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환경회의의 개최식에서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출범했음: 역자 주)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자동차 안타기(Mobil ohne Auto)” 운동에 동참했다. 환경단체들은 핵발전, 농업, 쓰레기, 건강한 식생활, 대안적 생활, 도시환경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베를린 시온교회(Zionskirche, 동베를린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교회차원의 성인교육을 위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한 교회였음: 역자 주) 지하 예배당에는 환경도서관이 설치되었다. 이 도서관에는 당시 금지된 서적 및 도서관이 자체 출간한 서적들을 비치했다. 동독 전역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잡지와 정보지를 비롯하여, 환경을 주제로 한 예술가들의 포토몽타주(Fotomontage)와 포스터가 쏟아져 나왔다. 드레스덴에서는 녹색십자가(Das grüne Kreuz)와 같은 환경 관련 상징 및 마크도 탄생하였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교회 발간물 형태로 제작·배포되었다.

작센 주 뢰타(Rötha) 지역에서는 야외에서 환경예배가 개최되었다. 순례행진이 노천광산을 둘러다보는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여러 교회를 거쳐 할레(Halle) 지역 화학공장을 통과하는 행진도 이어졌다. 오염된 잘레(Saale)강가에서 환경오염을 지탄하는 정치적 이벤

트로 거짓 낚시질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슈베린에서는 환경보호 지역을 관통하여 비스마르(Wismar)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공사를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났다. 당시 베를린 환경협회 회원들은 이 데모에 합류하기 위하여 슈베린으로 향하기 위해 모두 자전거를 타고 기차역에 모였다. 동독 정부는 자전거가 실린 열차 칸을 다른 칸과 분리시켜 데모대에 일반인이 합류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다. 포츠담 출신의 청소년환경운동가들은 성탄절예배 때 사용할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산성비의 피해가 심각했던 에르츠산지(Erzgebirge)에서 병든 소나무를 구해오려고 시도하다가 슈타지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 후 경찰과 슈타지는 환경단체의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동행·감시했다. 환경운동 관련 핵심 인물들은 정기적으로 소위 “내부 기관”이라고 지칭되는 “국가 기관”의 면담에 소환되어야 했다.

동독 환경단체들은 사회주의통일당의 강경 일변도의 이데올로기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다양성과 창의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환경단체들이 서로를 수용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만 창출해 내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전문 지식 토대가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메클렌부르크(Meckenburger) 환경단체는 “이제는 행동이다”라는 모토를 표방하는 베를린의 환경단체와 늘 갈등관계를 가졌다. 한쪽에서는 상대를 향해 목표가 정치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노선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반면, 비난을 받은 쪽에서는 상대를 향해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무모할 뿐이라는 비난을 가했다.

그 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슈타지는 그와 같은 단체간의 차이와 갈등을 “차별정책(Differenzierungspolitik)”에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슈타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다시 말해 슈타지가 각 단체나 단체의 회원이 반체제적인 성향을 구분해 내기 위해 이용했다는 것이다.

1986년 4월 일어난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의 방사능 유출사건은 동독 내 반핵운동과 환경보호운동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동독 내 환경운동은 “체르노빌 사건,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구호와 함께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바깥으로 나왔으며, 정치적인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동독의 슈텐달(Stendal)과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에 체르노빌 발전소와 동일한 형태의 핵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어 있었다. 동독 정부는 이 계획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동독 핵안전청 소속 연구원들도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복창했을 뿐, 전문가로서 그 어떤 의견이나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민이 용기를 갖고 데모, 반대운동 등을 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환경 및 정보정책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체념이 확산되면서 수많은 동독 주민들이 환경단체를 지원했다. 환경단체의 규모는 점점 커졌다.

환경운동의 정치화는 1988년 최고점에 달했다. 당시 비텐베르크의 기독교연구소는 슈타지의 공공연한 저지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치블렌드: 동독 우라늄 광산과 그 피해(Pechblende: Der Uranbergbau in der DDR und seine Folgen)”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서독의 방송에서는 동독 남부지역의 방사능 오염실태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동독 우라늄 광산 인력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병들고 죽어나갔는지가 공개되었다. 또한 “비스무트(Wismut)”라는 구소련의 한 주식회사가 동독에서 채취한 우라늄석이 형편없이 낡은 핵발전소에서 사용될 뿐 아니라, 핵폭탄 제조에도 사용되었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그러자 동독의 평화단체와 환경정책 관련 단체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독에 녹색-생태 네트워크(Das grün-ökologische Netzwerk)가 결성되고 서독의 녹색당과 별반 차이가 없는 활동을 했다.

당시 전 세계 기독교회 사이에는 교회일치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수많은 주제들과 동기화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냈다. 동독 지역에서의 교회일치운동은 무엇보다 환경 및 평화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이 환경 및 평화운동은 1989년 민주주의 시민혁명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사회주의통일당의 동독 정권은 환경단체들을 처음부터 국가의 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환경운동을 통해 동독 내 생활수준 개선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야말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동독 정부는 환경단체를 억제할 근거나 이유가 변변치 않았다. 결국 논리가 아닌 폭력적 방식과 슈타지의 힘을 빌어 환경운동을 막는 방법을 택했다. 슈타지는 1970년 말부터 거의 모든 환경운동가들을 대상으로 “공작조치(ov)”를 실시했다. 환경운동가들을 슈타지의 감시하에 두고 일거수 일투족을 사진찍고 그들의 집과 직장을 수색하고, 우편물 검사하고 전화통화를 엿들었다. 환경단체를 무너뜨리고 회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나 반대세력에 대한 공개적 폭력행사, 예를 들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실시했던 것처럼 적으로 설정된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납치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동독과 호네커 정권의 위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따라서 “소리 없는 파괴” 소위 “심리적 테러조치(Zersetzungmaßnahmen)”를 개발하여 적용했다. 슈타지는 “심리적 테러조치”를 통해 환경단체, 특히 단체를 주도하는 인물들을 “적대적이고 부정적 사람,” “반사회주의적·반국가적 사람”으로 몰았고, 중국에는 범죄자로 만들었다. 슈타지는 동독 형법의 정치적 조항들을 이용하여 엄청난 수의 인력을 동원했다. 또한 비공식 요원들을 거의 모든 동독의 환경단체와 생태서클에 투입시켜 비인간적 조치들을 실현시키는 데 노력했다.

슈타지는 동독 줄(Shul)이라는 지역에 소재한 “에큐메니칼 환경 연구회(Ökumenischen Arbeitskreis für Umweltfragen)”라는 단체를 “징계면담(Disziplinierungsgespräche)”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해산시켰다. 본 연구회의 가장 주축이 되는 인물들은 국영기업에 근무하는 7명이었다. 연구회 회원 중 이 사람들만 징계면담을 받았다. 슈타지는 면담을 통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구회 회의에 참가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결국 연구회에서 탈퇴했고, 연구회는 해산되었다. 슈타지는 이러한 과정을 철저히 계획하고 기록했을 뿐 아니라, 징계면담을 실시하는 담당자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까지도 만들었다.

다른 예로 슈타지는 베를린 환경도서관 주변에 거주하는 비공식 요원을 이용, 이 도서관이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신고를 하게끔 했다. 신고접수를 받은 슈타지는 도서관을 부분적으로 폐쇄

시킬 목적으로 위생검사 및 경영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슈타지 요원들이 서독 문헌의 서고를 줄이기 위해 책을 훔쳐 가기도 했다.

슈타지는 환경운동에 가입·활동하거나 환경단체의 활동을 위해 공간을 제공한 목사들을 체계적으로 중상모략했다. 쉘라이츠(Schleiz) 지역에서는 어느 한 목사의 가정을 상대로 5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심리적 테러조치를 실시했다. 결국 그 가정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출국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가정이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는 이 목사의 가정이 떠나야만 환경단체가 신속하게 해체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앞서 언급한 “피치블렌드”의 연구보고서의 저자도 “징계면담”을 통해 각종 직업적 제약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슈타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슈타지는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가 이룬 업적을 욕보이는 방법을 택했다. 슈타지는 한 “심사자(Gutachter)”에게 그가 쓴 연구보고서가 학술적 가치와 전문성이 없다는 평을 내리도록 주문했다. 그의 보고서에 대한 거짓 평가서가 작성되었다. 물론, 빈약한 근거와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이었던 그 평가서는 비전문가가 보아도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슈타지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은 1989년 이후 슈타지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슈타지는 사회주의통일당의 지시를 받아 동독 환경단체 회원들을 방문하려는 서독 및 동유럽 지인들의 동독출입을 금지시켰다. 이를 통해 서독이나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나 교류를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가들은 프라하나 부다페스트 같은 곳에서 접촉을 가졌다. 슈타지는 물론, 그곳에서도 그



들을 감시했다. 그리고 동독 환경단체 회원들의 출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환경운동을 위한 서독 단체들과의 협력이 어려워지고 위험해졌다. 환경운동가들은 협력을 위한 또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야만 했다.

슈타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갖은 방법을 동원, 동독의 환경단체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환경운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환경단체에 대한 “국가적 포용정책(Politik der staatlichen Umarmung)” 시기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사회주의통일당 정권은 환경단체와 환경운동가들을 상대로 전쟁할 것을 공개 선포했다. 그런 다음 많은 불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했다. 환경운동가들의 이력과 우정관계를 파괴했고 직장에서의 발전가능성을 차단했다. 동독에서 기본적으로 정착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국외로 추방했다. 사회주의통일당이 지향하는 정치적 목적과 이데올로기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단체들이 밝혀낸 객관적 사실들을 묵살했다. 정치적 권력을 동원하여 과학자들을 매수했고, 환경단체를 반대하는데 앞장섰다.

동독의 환경운동은 전체주의적 동독 정권의 대표적인 정치적 반대세력으로 간주되었으나 존속해 나갔다. 과거 동독에서 환경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소수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효과와 놀라운 결실을 가져왔는지 모른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환경운동이 동독의 정체되고 우울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자유가 제한된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지만 결속력과 연대정신을 북돋우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환경단체 내에 첩자와 배신자가 있었음을 실망스럽게 전하고 있다.



카르스텐 뒸멜 (Karsten Dümmel)

슈타지는 초창기에만 해도 동독의 다양한 문화영역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1950년대 중반까지 “저항단체”를 담당하는 제5실과 국가기관과 사회기관의 보안을 담당하는 제6실이 학술·교육·문화계 인사들을 감시했다. 1954년 이후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던 슈타지 총국 제5실을 새롭게 개편했다. 소위 선형원칙(Linienprinzip)에 따라 동독의 시·도·군 단위 행정구역별 총국제5실 산하기관들을 만들고 이 기관들이 각기 하급기관을 조직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문화를 감시하는 독립된 총국이 설립되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동독 예술가와 예술계는 아직 지속적 감시를 요하는 특별한 감시대상은 아니었다. 1960년대까지 문화담당 관리들은 간헐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대적 현

상들을 조기발견하고 대처하는 정도의 일만 수행했다. 슈타지는 일단 “예술가들의 이데올로기가 해이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비로소 이를 우려해 그들의 임무를 강화했다. 그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맞추어 처리했다. 헝가리에서 시민혁명이 발생한 이후였던 1956년과 1957년 슈타지는 볼프강 하리히(Wolfgang Harich)와 발터 얀카(Walter Janka) 중심의 예술가 활동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이완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고 개입하기 시작했다.

1961년 베를린장벽의 구축과 함께 슈타지는 예술과 문화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간헐적 관심만을 보였던 슈타지는 그 후 특히 문화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의주시했다. 1964년 3월 총국 제5실(HA V)과 산하부서들은 총국 제20실(HA XX)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제20실 및 산하부서는 1989년 말까지 존속했다. 그들이 맡았던 중요 임무는 지하정치활동(Politische Untergrundtätigkeit: PUT)과 적대적 이데올로기 거점(Feindlich-ideologische Stützpunkte: FIS)을 차단, 색출·퇴치하는 반면, 사회주의통일당과 자유독일청년단(FDJ)이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슈타지 총국 제20실(HA XX) 산하 세 개의 산하지부가 동독 전역에 걸쳐 각 분야를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총국 제20실 제4과(HA XX/4)는 교회와 종교단체, 총국 제20실 제7과(HA XX/7)는 체제반대기관과 예술가 및 언론, 제20실 제9과(HA XX/9)는 정치적 지하활동을 차단, 색출, 퇴치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총국 제20실 제7과(HA XX/7)는 다음의 분야를 관장하는 4개의 하위부서로 구성되었다.

1. 텔레비전 방송, 영화, 스튜디오 기술분야

2. 예술가 협회 및 문화부 관장 분야

3. 동독의 국영 통신사(Allgemeiner Deutsche Nachrichtendienst), 언론, 라디오, 스튜디오 기술 분야

4. 문학, 예술, 출판 분야

1969년 가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소위 “프라하의 봄”이라는 사회주의 모델 실험이 실패하고 1년이 경과할 즈음, 슈타지는 동독 문화계에 대한 감시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했다. 그 이전 시기였던 1968년 8월 25일(바르샤바 협약에 입각하여 체코슬로바키아에 군대가 투입 된지 사흘 후) 하달된 업무지침 610호에 따라 슈타지는 “체코슬로바키아 내 작가들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문건에 우선 예비적 차원에서 대응했다. 그 후 수일 이내 슈타지는 언론, 라디오, 텔레비전, 연극, 예술, 문학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보고서를 제출했다. 슈타지 명령 제20/69호는 제출된 정보보고서에 대한 “분석 작업(Aufklärungsarbeit)”도 관장했다. 슈타지 명령 제20/69호는 동독 내 문화계를 완벽하게 장악·통제하고자 하는 슈타지의 의지와 활동개시를 담은 것이었다. 슈타지의 목표는 형사소송에 사용할 증거들을 수집하고, 문화계를 완벽하게 감시함으로써 문제 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두었다. 시도군 단위 담당 슈타지 대표들은 자유직 기자, 작가, 배우, 예술가, 번역가 등에 대해 정기적인 감시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 외에도 8주마다 실태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했고, 반년 마다 담당영역과 관련된 상황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했다.

1971년 12월에 열린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ZK) 제4차 총회에서 호네커가 행한 연설(“금기 없는 문학”)을 계기로 1976년까지 이전에는 동독에서의 문화생활에 있어 생각할 수 없었던 몇 가지 외견상 자유화 시도가 일어났다. 통제가 완화되자 과거 슈타지의 통제나 제재대상이 되었던 내용의 공연과 출판행사들이 개최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와 같은 공연의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사회주의통일당에서 출당되거나 체포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예술가들이 누릴 수 있었던 해빙기의 날들(소위 사회주의 통일당의 문화 자유화 정책 표방기간)은 길지 않았다. 왜냐하면 1971년 12월 호네커의 연설은 “알곡과 쪽정어”를 가려내기 위한 사회주의통일당과 슈타지의 전술적 차원에서 했던 것뿐이었다. 오늘날 공개된 다수의 문건과 증언들은 사회주의통일당이 당시 예술가와 당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선전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의 통치를 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실추된 정권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회주의통일당과 슈타지의 기본원칙은 문화의 자유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기밀보안문서(Geheime Verschlussache: GVS)로 분류되었던 밀케 문건 제390/72호는 그와 같은 자유화가 동독 주민뿐만 아니라 슈타지 내부를 현혹시키기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추진된 것임을 알려 준다. 자국민에게 뿐만 아니라 슈타지 내부적으로도 극비문서로 취급되었는데, 밀케의 의도를 보여주었다. “금기 없는 예술(Kunst ohne Tabus)”에 대한 밀케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이는 새로운 문화정책을 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유화의 물결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문화와 예술분야와 계층에 부여된 과제를 풀기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주시하는

인물들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기본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5년 가을 정치 지하세력으로 간주된 문학인들을 관리하는 총국 제20실 OG과(xx/OG)가 신설되었다. XX/OG총국의 임무는 비판적이고 반체제적인 동독문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었다. 볼프 비어만(Wolf Biermann: 서독 함부르크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열여섯 살 때 스스로 동독으로 이주한 작가. 1959년부터 시와 노래를 쓰기 시작했으며, 1965년 첫 시집 ‘철사줄 하프’를 발표한 이후 악보가 있는 시집 일곱 권을 냈음. 1976년 동독 집권당을 비판하는 예술활동으로 동독에서 추방당한 사람으로 2005년 한국을 방문한 바 있음: 역자 주)이 국적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문화예술 분야를 관장하던 슈타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했으며, 통제를 가했다. 비어만의 국적을 박탈한 2개월 후 슈타지는 세 번에 걸쳐 “내부 저항세력에 공작조치(operative Bearbeitung der inneren Opposition)”를 위한 명령과 업무지침을 발표했다(1976년 11월 19일, 1976년 12월 22일, 1977년 1월 8일). 명령과 지침의 내용은 문화와 대중미디어 분야의 인사들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포괄적인 감시와 통제를 의미했다. 한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통제가 실생활에서 완벽하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슈타지는 각종 통제 심리적 테러조치를 통해 수백 명의 예술가들을 추방시키고, 개인의 삶을 파괴했다. 모든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잠재력이 슈타지에 의해 말살되었다. 이는 이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101826

11/1/68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Der Minister

Berlin, den 25. August 1968

Hauptabteilungen/selbst. Abteilungen  
Bezirksverwaltungen/Verwaltungen  
Leiter

Vertrauliche Verschlusssache

MKS 008 Nr. 610/68

..... Ausfertigungen  
21 Ausfertigung 2 Blät

Über Personen, bei denen aus überprüften operativen Hinweisen oder aus begründeten Verdachtsmomenten ein negatives oder feindliches Verhalten bekannt ist und die durch eine Tätigkeit in nachgenannten Bereichen Möglichkeiten zur Beeinflussung eines größeren Personenkreises haben, sind sofort ausführliche Einschätzungen in Auskunftsberichten durchzuführen.

a) Bereich Rundfunk und Fernsehen (einschließlich deren Studios)

- Redakteure
- Reporter
- Kommentatoren
- Sprecher
- im Sendebetrieb und Sendeablauf der Studioteknik Beschäftigte.

b) Kultureller Bereich

- Conferencier
- Theaterschaffende (Regisseure, Dramaturgen, Autoren usw.)
- Stadt- und Betriebsfunkredakteure.

c) Bereich Literatur, bildende, darstellende und unterhaltende Kunst

- Schriftsteller
- Grafiker
- Maler
- Bildhauer
- Schauspieler
- Sänger usw.

d) Beschäftigte in den Bereichen Rundfunk und Fernsehen, Filmwesen, Pressewesen und Verlagswesen, die unter a) bis c) nicht erfasst sind.

Unter den genannten Personenkreisen bzw. Bereichen sind auch die freiberuflichen Kräfte zu berücksichtigen.

Die Auskunftsberichte haben folgende Punkte zu enthalten:

- große Personalien;
- Einschätzung der beruflichen und politischen Entwicklung;
- politische Einstellung, gesellschaftliches Verhalten;



동독 문화 분야 슈타지 활동 명령서(견본)

내각평의회  
독일민주공화국  
국가보안성  
성장

베를린, 1968년 8월 25일  
기밀 문서  
MfS 008 번호 ....

총국/국  
시도 단위 지부  
소장

..... 작성처  
..... 작성일 총.... 페이지

작전 수행 관련 자료에 근거, 이하에 명시된 분야에서 의심스러운 행  
각을 하거나,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이라고 판단되거나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즉각 보고해야 한다.

a) 라디오 텔레비전 (스튜디오 포함) 분야

- 제작자
- 리포터
- 해설자
- 사회자/아나운서
- 방송운영 및 방송기술 관련 종사자

b) 문화 분야

- 사회자
- 공연 관련자 (감독, 극작가, 작가 등)
- 공공 또는 사립 언론사 편집자

c) 문학, 조형예술, 공연예술, 오락예술 분야

- 작가
- 디자이너
- 화가
- 조각가
- 배우
- 가수 등

d)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언론, 출판 분야에 종사하며, a)~c)에 언  
급되지 아니한 자

상기 언급된 분야와 업계에 종사하는 자유직업인(프리랜서)도 포함한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

- 개인 신상에 대한 포괄적 정보
- 직업상의 이력과 정치적 이력에 대한 평가
- 정치적 견해, 사회적 행동양식



요아힘 발터 (Joachim Walther)

“홀더린(Hölderlin),” “뷔히너(Büchner),” “카롤리네 슐레겔(Caroline Schlegel),” “실러(Schiller),” “괴테(Goethe)” 또는 “파우스트(Faust).” 이 이름들은 동독의 작가들과 문학가들이 자신의 필명으로, 존재를 감추기 위해 사용했던 것들이다. 밀고자인 자가 시인의 이름을 사용, 거대한 독일 문학사라는 바위를 돌덩이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슈타지가 동독의 문학과 문학가들에 대한 감시를 위해 들인 수고는 대단히 컸다. 동독 작가 1,000명을 감시하기 위해 1,500명의 슈타지 인력이 투입되었을 정도였다. (출판사, 신문사 편집실, 예술가협회 등과 같은) 문학과 예술분야의 요직은 슈타지 비공식 요원(M)이 차지했다. 동독 40년 역사에서 50명 이상의 작가가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최소 200명이 공작조치(OV)의

대상이 되어 감시를 받고 “처결”되었다. 이들의 저작활동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해를 받았으며, 심리적 테러의 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체제에 부적절하고 비판적인 문학이 국가에 치명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나친 우려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문학과 문학가를 지나치게 우려했던 슈타지는 억압적 수단을 사용했다. 동독 지배세력은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비록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예술과 문학을 반드시 감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이 있어야만 했다. 그것도 많은 인력이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많은 공식 요원과 비공식 요원이 투입되었다.

비공식 요원들은 슈타지의 “주무기(Hauptwaffe)”였다. 그들은 비밀정보원이라는 일차적 역할 외에도 “적극적인 조치(aktive Maßnahmen)”를 추진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적극적인 조치”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밀고자의 일반적인 업무영역을 훨씬 넘어 사람들의 명예스럽지 못하고 비겁한 의도 등을 염탐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슈타지의 비공식 요원에 대한 관례상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 “밀고자”는 이와 같은 포괄적 기능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표현이다. 19세기 중반부터 “첩자,” “정보원,” “밀고자” 등의 명칭은 비열함을 연상시키는 부정적 단어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슈타지는 요원들에게 붙여 줄 새로운 명칭이 필요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이름이 비공식 요원이라는 명칭이었다. 스스로 지원해서 슈타지에게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문학과 예술가는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직업적 성공, 질투, 권력추구, 인정욕구 등과 같은 저급한 차원에서 협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상적 믿음 때문에 협조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말해 문학과 예술가 중에는 슈타지에 협조하는 것이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올바른 길이라는 정치적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한 확신은 이데올로기적 허상이고 자기 착각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관습적이며 도덕적인 잣대를 쉽게 포기했다. 그들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부도덕한 것도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위한 새로운 사회주의의 도덕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말하는 “필연의 제국”(Reich der Notwendigkeit, 마르크스가 말하는 필연의 제국은 인간의 생존조건이 되는 물질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형태의 영역을 말함: 역자 주)을 넘어 공산주의의 “자유의 제국”(Reich der Freiheit,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유의 제국이란 인간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물질적 생산이 인간의 활동에서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신, 인간의 활동이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고 자신의 능력이 펼쳐지는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말함: 역자 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배반이나 밀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상주의적 약속은 권력남용의 방편과 동독 정권이 최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만행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희생자에 대한 자기합리화의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문학가 출신의 비공식 요원들의 활동이 그와 같은 이상과는 달리 전혀 고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 사례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우베”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한 동독 시인은 20년 동안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동료들을 밀고했다. 밀고 대상자 중에는 귄터 쿠너트(Günter Kunert), 사라 키르쉬(Sarah Kirsch), 카트야 랑게-뮐러(Katja Lange-Müller), 루츠 라테노프(Lutz Rathenow), 프란츠 뤼만(Franz Fühmann), 볼프강 힐빅(Wolfgang Hilbig) 등이 있었다. 클라우 포체(Klaus Poche, 1927.11~2007.1, 독일 작가, 영화작가, 삽화가, 동독에서 태어났으나 동독

정권의 문화정책을 비판, 1979년 동독 문인연맹에서 퇴출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여행허락을 받아 서독으로 왔음: 역자 주)가 쓴 한 소설에 대한 평가서에서 우베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클라우스 포헤가 쓴 ‘숨막힘(Atemnot)’이라는 작품은 동독에서 출판하기 부적절하다. 작가와 작품 그리고 작품의 의도 모두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베는 자기 동료가 반혁명 운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으로써 결국 동료가 슈타지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공작조치(ov)는 슈타지의 활동 중 가장 높고도 포괄적 형태의 임무수행방식이다. 매우 섬세하고 집중적인 밀고형태이자 적극적인 비밀경찰로서의 조치들을 담고 있다. 공작조치는 일반 사법재판과 비교될 만큼 효력이 강력했다. 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법재판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수사개시 여부를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도 대상자에게 제재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었으며, 판결 없이도 처벌이 가능했던 점이였다. 수사 자체가 비밀리에 이뤄졌기 때문에 대상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공작조치는 1970년대 중반부터 공식적인 수사나 재판보다 더 선호되었다. 사회주의통일당 지도부가 내부에 존재하는 “적”을 체포하지 않고, 가급적인 길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조용히 “무력화”하고 “파괴”시킬 것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작조치는 체포나 판결 없는 처벌로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분명 느낄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수도 없는 압력과 위협에 오랜 세월을 시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환각증세’를 갖고 있으며, 일종의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믿기도 했다.

이 또한 슈타지가 의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억압은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이들 피해자들은 그들이 겪은 수난과 고통을 구금일수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들이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동독이 몰락한 후 비로소 관련 자료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피해자 중에는 젊은 작가들이 많았다. 이미 작품을 출판한 경험이 있고 서독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그들의 선배들보다는 비교적 덜 보호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젊은 작가 중에도 그들이 쓴 시 때문에 수년씩 감옥에 구금되었던 작가가 적지 않았다. 한 젊은 여류작가는 2년간의 옥살이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본인이 쓴 12개의 시를 5명의 친구들에게 읽어보라고 준 것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슈타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G는 시의 형태로 쓴 12개의 글을 5명의 사람들에게 유포함으로써 공공질서를 무너뜨렸다.”

문학가나 작가만이 슈타지의 공작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다. 독서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문학작품 외의 것에 손을 대는 독자들도 대상이 되었다. 또한 금지되어 있는 작품을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도 체포 대상이 되었다. 칼마르크스시(Karl-Marx-Stadt) 지방 법원에서는 한 젊은이가 네 명의 친구에게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쓴 「1984년」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없이 2년 4개월의 구금처분을 내린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젊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슈타지가 일삼은 만행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더 들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 바이마르(Weimar) 시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중 하

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금지된 문학작품과 신과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론회였다. 대부분 월요일에 토론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월요모임(Montagskreis)”이라고 불렸다. 슈타지는 이 토론회를 주시했다. 곧 공식 요원에게 토론회를 해체시킬 것을 명했다. “영감을 주는 자(Inspirator)”라는 코드명의 새로운 공작조치가 발동됐으며, 관련 정보가 수집되었다. 슈타지의 목표는 토론회의 “완전한 해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하는 토론회에 적극적인 가담자들의 이름을 더럽히고 토론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주동자들을 완전히 소외시켜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나머지 참가자 전원에게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개입하여 길들이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슈타지가 사용했던 방법은 질투, 시기, 알코올 남용 등과 같은 개인의 성격적·윤리적 약점을 이용하거나 돈과 물질에 대한 집착, 두려움, 수다, 허영, 허풍 등의 특징을 악용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슈타지는 토론회 참가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했다. 슈타지는 “영감을 주는 자(Inspirator)”라는 심리적 테러 작전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가 적대적이고 부정적 활동에 대해 얼마나 단호하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었고, 엄격한 조사과정을 겪도록 함으로써 토론회 내부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중국에는 토론회를 해산시키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슈타지의 또 다른 공작조치에는 “서독과 서베를린으로의 의도적 이주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조치는 계획된 이주자를 대상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지도록 하거나, 상호의심과 불신을 갖게 하고, 특히 이주하려는 사람들 중 핵심이 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비공식 요원들을 시켜 특정 사



람들에 대한 소문, 암시적 발언, 의심을 퍼뜨리는 일도 추진했다. 서방세계로 이주하려는 집단이 체코슬로바키아와도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슈타지는 이들의 신분증을 압수, 체코슬로바키아와 접촉하는 것을 중단시켰다. 여기에도 공식 및 비공식 인력을 통해 이주자들에 대한 “정치적·작전적 공조체제”를 유지했다. 심지어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그들의 교육장에까지 작전을 전개했다. 이와 같은 슈타지의 전방위적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일 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영감을 주는 자(Inspirator)”라는 작전을 수행한 결과 「월요모임」은 해체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과거 월요모임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4개의 느슨한 소규모 평화모임으로 흩어져 그 존재가 사라졌다. 4개의 모임도 상호 견지하고 있는 모순과 차별, 공동의 이데올로기적 기본토대의 상실로 더 이상 외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단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개의 모임은 다시 6개의 가정모임으로, 그리고 공작조치에 의해 다시 2개 모임으로 축소되었다.



## 사례 : 게라 - 루산 문학공동체와 슈타지

카르스텐 뉘멜 (Karsten Dümmel)

1978년 초, 신도시 게라-루산 지역에 성 우르줄라(St. Ursula)라는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하위문화(Subkultur)가 형성되었다. 여러 작업공동체(Arbeitskreis: 연구회)를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는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는 총본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공동체의 창시자이자 게라 지역의 “무서운 아이”(l'enfant terrible)로 통하는 롤란트 가이펠(Roland Geipel) 목사는 1969년 봄 서독 마인츠에서 동독으로 이주한 사람이었다. 예나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게라-운터하우스(Gera-Untermhaus) 지역에 수습목사로 발령받았다. 그 후 그는 루산(Lusan)이라는 곳에서 작업공동체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갔다. 작업공동체가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면서 다른 도시에 있는 유사한 공동체와의 접촉이 늘어나게

되었다. 1978~1989년 사이 루산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공동체 (Junge-Leute-Kreis)들이 생겨났다. 이 공동체는 롤란트 가이펠 목사와 카르스텐 뒀멜이 이끌었다. 그 밖에도 많은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환경공동체는 마티아스 피셔에 의해, 문학공동체는 카르스텐 뒀멜, 1988년 이후엔 스테펜 쇤펠트에 의해 이끌어졌으며, 평화공동체 모임은 마티아스 피셔와 카르스텐 뒀멜, 해외여행공동체는 롤란트 가이펠, 영어공동체는 요아힘 슈미트, 평화·환경도서관 공동체 운영은 롤란트 가이펠과 카르스텐 뒀멜, 연극공동체는 안드레아스 브레이, 장애인공동체는 피터 가이게와 브리기테·마티아스 피셔, 다과공동체는 카르스텐 뒀멜에 의해 인도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공동체 모임들은 공개된 전통적인 청소년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모임의 형식은 자발적인 것이었다. 참여하는 데 있어 어떠한 신앙적 제약이나 전제조건을 두지 않았다. 이들 공동체들은 교회 내 전형적인 공동체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가대, 청소년회, 부녀회, 장년회, 어린이회 등과도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류도 활발하게 유지했다. 이들은 각 공동체 모임의 참가자 또는 회원으로서 구분없이 활동했다.

## 1970년대

문학공동체는 매주 집회를 가졌다. 모임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참석 인원의 수는 20명에서 60명 사이였다. 1970년대 말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동독 문학이 주제가 되었다. 그와 같은 문학 작품들은 동독 내에서 출판되기는 했지만 비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책들이었다. 이

하 소개하는 책들이 그와 같은 책의 일부다. 크리스티나 볼프(Christa Wolf)의 “크리스타 T를 회상하며(Nachdenken über Christa T),” “유년의 기억(Kindheitsmuster),” “그 어느 곳에도 없네(Kein Ort nirgends),” “카산드라(Kassandra),” 클라우스 쉐레징어(Klaus Schlesinger)의 “오래 된 영화(Alte Filme),” “베를린의 꿈(Berliner Traum),” 프란츠 뤼만(Franz Fühmann)의 “자이엔의 작은 소설(Saiäns Fiktschen),” “동지들(Kameraden),” 귄터 쿤너트(Günter Kunert)의 “오두막의 이름으로(Im Namen der Hütte),” 라이너 쿤체(Reiner Kunze)의 “파란색 봉인 편지(Brief mit blauem Siegel),” 슈테판 하임(Stefan Heym)의 “다윗왕 보고서(Der Köönig David Bericht),” “비방의 글(Die Schmähschrift),” 에리히 뢰스트(Erich Loest)의 “그의 길(Es geht seinen Gang)” 등이다.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문학작품들을 서로 빌려보고, 내용을 베끼기도 하고, 각자 서평을 적어 전달하기도 하고, 모임에서 낭독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작가를 직접 초청해서 만남의 시간을 가져 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공동체 낭독회에 초청되었던 주요 작가 들로는 라이너 쿤체, 에리히 뢰스트, 디트리히 페츨트(Dietrich Petzold), 베틀나 베그너(Bettina Wegner) 등이었다. 1980년대 낭독회에 초청된 작가들은 루츠 라테노프(Lutz Rathenow), 프레야 클리어(Freya Klier), 슈테판 크라브치크(Stephan Krawczyk), 울리히 플렌크도르프(Ulrich Plenzdorf) 등이 있었다. 그 외 요하네스 R. 베허(Johannes R. Becher) 문학연구소 소속 대학생들과의 교류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들 대학생들은 루산 지역으로 와 참석자들과 함께 책을 읽거나 낭독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 밖에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작가, 음악가, 연구자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베를린, 그라이츠(Greiz), 할레, 예나, 라이프치히, 잘펠트(Saalfeld), 차이츠(Zeitz) 지역에 있었던 공동체들은 그

들이 견지하는 종교적 혹은 비종교적 성격을 가리지 않고 서로 친구가 되어 활발한 왕래를 가졌다.

## 1980년대

1980년대 초 문학공동체는 자체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었다. 가이펠 목사와 미하엘 비플러(Michael Wypler) 목사 사이에 정기적인 만남과 약속이 이루어졌으며, 각 공동체의 대표들 사이에서도 잦은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문학공동체는 가톨릭 교회단체, 게라 연극단, 게라 인형극단, 공원(Park)극장 등과 서로 연계하자는 의견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도 늘어나게 되었다. 러시아와 소련 문학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일도 많아졌는데, 문학공동체에서 거론된 러시아어권 작가들 중에는 도스토예프스키(Dostojewskij)에서 톨스토이(Tolstoi), 아이마토프(Aitmatow), 아흐마토프(Achmatowa), 예세닌(Jessenin), 예브투셴코(Jewtuschenko), 트렌드라리라고프(Trendrjakow), 파스테르나크(Pasternak), 라스푸틴(Rasputin), 츠베타예바(Zwetajewa)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다른 한편으로 서독 출신 근대 작가들에 대한 토론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작가로는 바흐만(Bachmann), 뵐(Böll), 프리트(Fried), 프리쉬(Frisch), 그라스(Grass) 등이었다. 고전적 변절자(Renegat) 문학도 있었는데 비어만(Biermann), 파우스트(Faust), 폭스(Fuchs), 퀴스틀러(Koestler), 오웰(Orwell), 사미아틴(Samjatin)의 작품 등이 다뤄졌다. 특히, 서독의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블라우보이렌(Blauenbeuren), 함부르크, 헤르네(Herne), 루체른(Luzern) 지역에 있는 서독의 자매교회가 책을 구입해 몇몇 용기 있는 목사나 공동체의 회원들이 동독으로 몰래 반

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장애인 공동체 회원들도 문학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휠체어를 타야만 움직일 수 있었던 장애인 공동체 회원들은 소위 “짧은 국경 나들이(Kleiner Grenzverkehr)”를 통해 서독의 호프(Hof)시와 서베를린시를 방문, 모든 도서관을 살살이 뒤져 동독에서의 금서들을 밀반입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매결연을 맺었던 교회도서관 공동체와 환경도서관 공동체가 작성한 구입희망도서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벤(Benn), 프로이트(Freud), 프롬(Fromm), 카프카(Kafka) 등 동독에서는 오랫동안 “문학유산(literarische Erbe)”으로 인정받지 못해 점점 사라졌던 세계고전문학 또한 위의 방식을 통해 교회 도서관 서가를 채울 수 있게 되었다.

### 동서독 기독교 공동체 및 유대인 공동체간 네트워크

서독 헤르네(Herne)와 보훔(Bochum) 출신 대학생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컴팩트 문학 세미나는 문학모임 중에서도 가장 긴밀한 공동체 모임이었다. 이 모임에서는 동서독 출신 회원 약 3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여러 문학작품들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토론 대상이 되었던 작품들은 슈테판 하임(Stefan Heym)의 “다윗왕 보고서(Der König David Bericht),” “검은 산(Schwarzenberg),” “콜린(Collin)” 등 다양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컴팩트 문학세미나도 위의 세미나를 본 때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자매교회와 함께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문학공동체를 비롯한 각 공동체들은 보훔,

헤르네, 하팅엔(Hattingen)의 개혁파 유대교회 회원들도 알게 되었다. 사실 이미 1980년대 초 동베를린 내 개혁파 유대교회 회원들과 개별적인 교류가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각종 금서, 예를 들어 그렌즈팔(Grensfall), 아리아드네파르릭(Ariadnefabrik) 아우프리스(Aurisse), 라디스(RADIX-Blätter), 댄머룽(Dämmerung) 또는 미카도(Mikado) 등 금지된 잡지들을 서로 돌려보거나, 파발꾼을 통해 동베를린이나 라이프치히 등 대도시를 거쳐 게라나 예나 같은 소도시까지 배달했다. 그 중에는 서독의 보훔, 헤르네의 유대교회 공동체에서 온 두 명의 대학생이 게라 평화위크숍의 두 대표에게 「하얀장미(Weiße Rose)」, 「크라이자우어(Kreisauer)」, 「7월 20일의 남자들」과 같은 저항 도서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또는 “짧은 국경 나들이”를 통해 서독으로 온 사람들에게 밀반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스-조피 솔(Hans-Sophie Scholl)과 관련된 책은 이미 동독에서 출판된 바 있지만, 1980년대 당시 위 공동체가 이와 같은 책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책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과거 「하얀 장미」의 회원들이 다섯 장 분량의 전단지로 만들어진 이 책(「하얀 장미」)의 내용을 마티아스 피셔(Mathias Fischer)와 카르스텐 뫼멜은 한 장 분량으로 줄여 자체적으로 복사했다. 이 전단지는 「하얀 장미」의 주요 쟁점들을 담았는데, 그 내용은 1980년대 동독의 구체적인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다. 특히, 나토의 “이중 결정(Doppelbeschluss)”이 이루어져 동서독에 핵무기를 장착한 미사일이 배치되는 상황 하에서 1985년 소위 “10일간의 평화(Friedensdekade)”라는 행사를 알리기 위해 5~8페이지에 이르는 전단지 500부 이상이 제작되었다. 이 전단지는 도처에 소재하고 있던 공동체 회원들의 구식 타자기에 의해 그 내용을 일일이 똑같이 다시 쓰는 방식으로 복사되었다. 당시 약



2,500장에서 4,000장 정도의 전단지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단지들은 게라와 그라이츠(Greiz)의 「10일간의 평화」 개막 행사에 튀빙엔 주(州) 교회 회원들에 의해 뿌려졌다. 한편, 구소련 정부에 비판적인 작가였던 레프 코펠레프(Lew Kopelew)와 친분을 가졌다는 점 때문에 1981년 소련을 떠나야 했던 유태인 레프 드루스킨(Lew Druskin), 리디아 드루스킨(Lydia Druskin)도 게라-루산 문학공동체를 지지했다. 드루스킨 부부는 튀빙엔에 있는 유태계 러시아 망명자 단체에 가입하면서 안드레아스 뒀멜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같은 해였던 1985년, 안드레아스 뒀멜은 동독 국적을 박탈당하고 서독 튀빙엔으로 추방된다. 슈타지가 안드레아스 뒀멜이 이끈 라이프치히 기독교학생회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해체”시키고자 취한 조치 때문이었다. 서독으로 온 레프 드루스킨과 리디아 드루스킨은 롤란트 가이펠, 마티아스 피셔, 카르스텐 뒀멜 등과 점차 두터운 친분을 쌓게 된다. 처음에는 편지 교환만 있었으나, 전화로도 통화하고 롤란트 가이펠 목사 등이 있는 동독으로까지 방문하기도 했다. 드루스킨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 문학공동체는 도서와 잡지만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서독측 변호사들이 보내는 정보도 전달받을 수 있었다. 한편, 1987년 프랑켄 지방의 호프시 장애인 공동체 책임자가 동독 관보 2부(部)를 유태계 러시아 망명자 회원에게 전달한 적이 있었다. 이 관보는 호프시에서 이미 100장 가까이 복사된 바 있었다. 이 관보는 동독 교회 법률 자문자로부터 임시로 빌린 것이었기 때문에 복사 후 원본은 밤이 되기 전 동독으로 되돌려 보내져야 했다. 이렇게 하여 복사된 관보는 몇 주 후 외교관 차량 짐칸에 넣어져 국경도시인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보내졌다. 복사된 관보에는 동독 공병군의 자격으로 총기없이 군복무할 수 있는 구체

적인 규정과 동독 국적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 등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하여 동독 여러 지방교회들의 몇몇 용기있는 목사와 교인들이 복사된 관보를 퍼트린 덕분에 동독 정부의 정보 독점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군복무를 거부하려는 사람이든, 출국 신청을 해서 동독을 떠나길 원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용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각 항목별로 따져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헬싱키에 있었던 유럽안보회의(CSCE) 결의문,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유엔인권선언문 등도 조달해서 볼 수 있었다.

### 음악, 공연, 조형 예술

1980년대에는 동독 예술인조합 주최가 아닌 자체적으로 기획된 그림 및 사진 전시회 그리고 금지된 노래를 부르는 작곡가, 만담가, 록그룹, 민속음악그룹 등으로 구성된 음악회가 정기적으로 열렸다. 주요 출연진들은 슈테판 크라프치(Stephan Krawczyk), 페터 뮐러(Peter Müller), 마틴 모르그너(Martin Morgner), 그룹사운드 “아이스볼프(Eiswolf),” “리트에얼리히(Liedehrlich),” “룸판치 바가분두스(Lumpazi Vagabundus)” 등이었다. 케르스틴 비스너(Kerstin Wiesner)와 팔코 비스너(Falko Wiesner)는 수년 전 베티나 베그너(Bettina Wegner)와 디트리히 페츨트(Dietrich Petzold)가 했던 것처럼 바르샤바와 크라카우 계토에서 불리던 유태 노래들을 소개했다.

## 슈타지의 시각

슈타지가 교회단체, 공동체들의 활동을 그저 지켜보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슈타지는 거의 모든 공동체 회원들에게 접근하여 비공식 요원이 될 것을 회유하거나, 공동체에 직접 요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슈타지가 접근 대상으로 삼은 대상자는 공동체 회원뿐 아니라, 감독, 신학자, 목사들도 있었다. 공동체의 주요 인물, 그리고 이들의 주변 인물들 까지도 슈타지 총국 제20실 4과(HA XX/4) 혹은 제20실 7과(HA XX/7)에 의해 심리적 테러를 당했다.

슈타지가 평가한 심리적 테러의 내용을 보면, “심리적 테러 조치는 파괴분자들의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 여러 정치적·작전적 활동에 의해 적대적이고 부정적 인물이 견지했던 견해와 신념은 영향을 받게 된다. 대상자의 견해와 신념이 흔들리고, 점차 나약해지거나 적대적이고 부정적 인물들 간에 모순과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순과 차이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심리적 테러의 목적은 적대적이고 부정적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하게 차단하고, 완전히 제거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단체를 해체시키고, 무력화하고, 와해, 고립시키는 것이다.”

심리적 테러시 슈타지가 사용했던 지침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대외적 명성, 체면, 위신을 다음과 같은 점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하락시킨다. 즉, 진실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로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어야 하나, 만약 진실이 아니더라도 믿을 만하고, 반증할 수 없는 정보를 통해 신용

을 떨어뜨릴 수 있어야 한다.

- 자신감을 떨어뜨리기 위해 대상자가 직장과 사회에서 실패하도록 체계적으로 계획한다.
- 특별한 생각과 모범되는 인물을 동원, 끈질긴 설득을 통해 신념을 무너뜨리거나 자신의 견해에 대해 의심을 하도록 유도한다.
- 불신을 야기하고 단체 사이의 상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 단체의 회원인 경우, 개인적 약점을 이용해 그룹 내 경쟁구도를 유도·강화하고, 이를 역이용한다.
- 내부 문제가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단체의 적대적이고 부정적 행위에 제한을 가한다.
- 지역적이며 시간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단체 회원간의 상호 관계에 제한을 가한다. 예를 들어 근무지 제한, 거리가 먼 근무지로의 좌천 등이 있다.
- 익명 혹은 가명의 편지, 전보, 전화 등을 이용, 압박하거나 실제 있었거나 조작된 위도 사진을 이용하여 망신을 준다.
-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헛소문을 계획적으로 퍼뜨린다.

슈타지는 게라-루산 교회, 연극단, 인형극단, 공원극장, 가톨릭 사제관에서 공동체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축소시켰다. 슈타지가 행했던 통합적·개별적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수를 대상으로 마틴 모르그너(Martin Morgner)와 프랑크 카르브슈타인(Frank Karbstein) 등에게는 “ZOV 무대(ZOV Bühne)”라는 코드명의 공작 조치, 롤란트 가이펠, 팔코(Falco), 케르스틴 비스너(Kerstin Wiesner), 프랑크 카르브슈타인(Frank Karbstein), 카트린 칬머(Katrin Zimmer), 마티아스 피셔(Mathias Fischer) 등에게는 “OV 촛불(Kerze)”이라는 코드명의 공작조치”를 행했다. 또한 볼프강 헨쉬(Wolfgang Häntsch), 마틴 모르그너(Martin Morgner), 아를레테 지베르트(Arlette Siebert), 발터 슈테그

마이어(Walter Stegmaier), 게랄트 자우어(Gerald Sauer), 루츠 플라토(Lutz Flato) 등에게는 “OV 예술인 공동체(Künstlergemeinschaft)”라는 코드명의 공작조치, 볼프강 헨취(Wolfgang Häntsch), 발터 슈테그마이어(Walter Stegmaier), 루츠 플라토(Lutz Flato) 등에게는 코드명 “OV 마스크(Maske)”라는 공작조치, 미하엘 벨라이테스(Michael Beleites)에게는 코드명 “OV 곤충학자(Entomologe)”라는 공작조치, 안드레아스 뒴�멜(Andreas Dümmel)에게는 “OV 형제(Bruder)”라는 코드명의 공작조치가 취해졌다. 개별적 조치로 롤란트 가이펠에게는 “OPK 자유공간(Freiraum)”이라는 코드명의 인물공작조치(Operative Personen-kontrolle), 안드레아스 블라이(Andreas Blei)에게는 코드명 “OPK 사진사(Fotograf),” 카르스텐 뒴�멜(Karsten Dümmel)에게는 코드명 “OAM 청소부(Putzer)”라는 공작조치를 취했다. 위에서 제시한 조치들은 슈타지가 여러 단체들의 지도자나 회원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서독으로 거래되어 보내졌으며, 국적을 박탈당하고, 추방되었다. 또한 동독의 타도시로의 이주를 강요받았으며, 직장에서 좌천되었고, 도시 내 구금 혹은 가택연금 조치에 취해졌다. 여행이 금지되었으며, 베를린에 머물 수 없게 만들었으며, 수년 동안에 걸친 심리적 테러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OV 반지(Ring)”과 “OPK 작가(Schreiberling)”라는 코드명의 공작조치 대상이 되었던 그라이츠(Greiz) 지역 출신 시인 귄터 울만(Günter Ullmann)은 1980년 대 자신이 생활 속에서 느꼈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우리에게서 희망을 앗아가지 마오.”

슈타지 :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나?

“우리에게서 희망을 앗아가지 마오.  
지금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어도  
우리 목을 두른  
지평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후베르투스 크나베 (Hubertus Knabe)

슈타지가 해체된 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슈타지는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 슈타지가 서독사회에 대해 어떻게 했을 것인가란 의문이 들 때마다 슈타지에 대한 기억은 되살아난다. 슈타지는 서독의 어디에까지 손을 뻗었던 것인가? 사회주의 통일당은 비밀 요원들을 이용하여 서독의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혹시 독일의 각종 정당, 노조, 협회 건물의 지하실에는 서독에서 활동하다가 죽은 요원들의 “시체”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통일 후 독일은 과거 서독에서의 슈타지 활동에 대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연방주에서는 슈타지 관련 과거청산 과정에서 동독 사람들에 대한 일방적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고, 슈타지와 서독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항의의 목소리가 높다.

슈타지의 활동이 서독에서도 상당히 활발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슈타지는 서독에서의 임무수행을 “작전지역 내 임무수행”이라고 불렀으며, 이를 처음부터 슈타지의 주요 임무로 설정했다. 서독지역에서는 200여 개의 서로 다른 슈타지 산하 부서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국경지대 군부대 관련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곳은 제1실(HA I)이었으며, 제22실(XXII)은 “테러보안”을 담당했던 곳이었다. 이들 부서는 서독에서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공작조치(OV)”를 실시했으며, 비공식 요원(IM)으로 구성된 자체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다.

수십 년 간 총국 A(Hauptverwaltung A: HVA) 국장을 지낸 마르쿠스 볼프(Markus Wolf)의 주장과는 달리, 서독에서의 슈타지 활동은 단순한 정보수집에 그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평화유지”를 위한 활동은 더더욱 아니었다. “사회주의통일당의 창이자 방패”였던 슈타지가 서독에서 벌였던 활동들은 사회주의통일당의 궁극적 목표였던 “노동자계급의 적(Klassenfeind)”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1950년대 슈타지는 서독에서 습격, 납치 등과 같은 “특수 작전”들을 서슴없이 감행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무엇보다도 동독 주민들의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당시 동독 주민들은 서독 사민당 동독지부(Ostbüro der SPD, 1946년 동독에서 사민당과 독일 공산당이 사회주의통일당으로 강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한 동독 사민당 당원이 추축이 되어 설립한 반공산주의 비밀단체로, 동독 탈출 및 반공산주의 운동 등을 지원했다: 역사 주)와 같은 서독의 관서나 동독으로 보내지는 RIAS(독일의 미국점령지역에서 동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 동독 주민들에게 자유세계의 가치를 전달하고 서방세계에서 일어나는 주요 정보들을 제공했음: 역사 주) 방송과 같은 미국의 소리방송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슈타지의 위협적인 방식은 1960년대가 되면서 사라졌다. 1960년대 초부터 사회주의통일당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자 적극 노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슈타지는 대서독사업 방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서독에서의 슈타지 활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슈타지는 서독 정부와 정치가들이 “파시즘적”이라고 소문을 내거나, 산업스파이를 이용, 서독 내 분란을 일으키는 방식을 사용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서독 지역 내 적대적 기관과 세력에 대한 정보수집과 정찰에 보다 집중했다. 왜냐하면 슈타지는 당시 서독의 긴장완화정책(Entspannungspolitik)을 동독을 보다 더 교묘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슈타지는 많은 비용을 들여 있을지도 모르는 위기와 전쟁 상황에 대비했다. 그 일환으로 각종 방해공작과 살인을 담당할 “특공대(Einsatzgruppe)”를 서독에 들여보냈으며, 서베를린 지역에는 수십 개의 슈타지 시지부를 추가로 설치, 고정 인력을 배치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슈타지는 과연 서독의 정치권과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 1972년 빌리 브란트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실시되었을 때, 슈타지는 율리우스 슈타이너(Julius Steiner) 기민당(CDU) 의원에게 슈타지 정보총국(HVA)의 재정으로부터 5만 마르크를 보내,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수상의 불신임 투표를 막았다. 이와 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슈타지가 서독 정치에 얼마나 유연하게 또 깊숙이 관여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 후 2년이 지난 다음 브란트는 사퇴했는데, 브란트의 보좌관이었던 귄터 귀욤(Günter Guillaume)이 동독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때에도 동독의 슈타지가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

사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독에서 일어난 다른 여러 사건에도 슈타지의 개입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슈타지 정보총국의 문서들이 거의 대부분 폐기되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발견된 슈타지 관련 문서만으로도 슈타지와 관련 서독의 역사가 “공개된” 것 외에 “베일에 감춰진”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슈타지의 대서독 활동의 역사는 먼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동독은 이미 1950년 슈타지가 설립되기 전 과거 소련과 독일 공산 세력 사이에 이루어졌던 비밀협력 관계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첩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것이 다름아닌 슈타지의 전신인 사회주의통일당 본부 산하 비공식 첩보 기관(inoffizieller Apparat)이었다. 이 기관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부르노 하이드(Bruno Haid)에 의해 서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회주의통일당의 적들을 “적극적으로 조치(aktive Maßnahmen)”할 수 있도록 조직되었다. 그 후 1951년 말쑤 사회주의 통일당에게 서독의 정보를 제공하던 “당정찰대(Parteiaufklärung)”라는 명칭의 동독 정보수집망은 신설된 대외정보기관(Außenpolitischer Nachrichtendienst: APN)으로 이관되었다. “당정찰대”라는 기존의 동독 정보수집망에는 서독 자민당(FDP) 대표 로타르 바이라흐(Lothar Weirauch) 뿐만 아니라, 사민당(SPD) 부대표였던 요세프 브라운(Josef Braun) 등과 같은 서독의 정치인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슈타지 문서관리국에 보관되어 있던 빛바랜 서류철 속 문서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그 밖에도 서독에는 함부르크에서 동독 요원으로 활동하던 “함부르크 파트(Hamburger Teil)”와 “베스퍼 파트”(Vesper Teil, 베스퍼는 서독연방 하원 의원 출신으로 동독으로 건너가 동독의 주요 인사가 된 정치인임: 역자 주)가 있었으며, 서베를린에서만 “주재”하는

정식요원과 3명의 직원, 당과 행정관청에서 하급관리직에 잠입하여 근무하는 26명의 접선요원을 두고 있었다.

1952년 동독의 국가원수였던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는 사회주의통일당에게 정보를 제공하던 서독 내 동독의 정보수집 네트워크였던 “당정찰대”를 해산시킬 것을 명령했다. 서독 정부의 첩보원들이 이 정보수집 네트워크에 침투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정보 총국장이었던 마르쿠스 볼프(Markus Wolf)는 더 큰 규모의 대서독 첩보기관을 구축, 자신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두었다. 그는 “서베를린 내 첩보활동을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52년 말까지 두 명의 신규 주재요원과 2~3명의 정보수집가를 발탁하고, 4~5군데의 접선장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동독은 동서독 전역에서 활동하는 정당과 동독의 대중기관에 “합법적 주재관(legale Residentur)”을 배치시키고, 이들 주재관들로부터 서독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통일당의 농업 분야 관리였던 쿠르트 피벡(Kurt Vieweg)으로 하여금 “전독 농림업 협의회(Gesamtdeutschen Arbeitskreis der Land- und Forstwirtschaft: GAK)”와 관련,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케 했다. “첫째, 전독일 농림업 협의회 내 합법적으로 주재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리한 인맥을 형성하고 둘째, 독일사회당(Deutsche Soziale Partei: DSP: 게레케(Gereke) 박사에 의해 창당)과 독일사회당이 발행하는 신문 “독일의 길(Der Deutsche Weg)” 및 코르테(Korte) 박사가 창간한 신문 “우리 농부들(Wir Bauern)”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코르테와 게레케는 당시 서독 내 농업 관련 주요 정치인들이었다.

볼프의 첩보기관은 곧 동독의 슈타지로 편입되었고, 에른스트

볼베버(Ernst Wollweber)가 슈타지의 새 수장으로 임명되었다. 1950년대 중반 슈타지의 대서방사업은 구소련의 지원 하에 그 임무가 보다 강화되었다. 볼베버는 1953년 6월 항쟁에 따른 충격 이후 “슈타지의 목표인 적대기관의 파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보수집활동이 강화되어야 하며, 동독의 비밀정보원(Geheime Informatore: GI)과 비밀직원(Geheime Mitarbeiter: GM)을 통해 적대적 행위의 주체에 대한 정보와 적의 의도, 계획에 대한 파악이 항상 가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개방되어 있던 서베를린은 볼베버가 가장 주시하던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볼베버는 서베를린에 특수부서(Spezialabteilung)를 신설했다. 이 특수부서의 임무는 “요원들을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확장, 서베를린의 상황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보고를 하게하고, 서베를린에 소재해 있는 위협적인 기관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이었다.

슈타지의 비밀정찰 기구는 1955년 하반기 이미 100명의 신입 요원으로 채워졌고, 그 중 대부분이 “적진에서의 임무수행”을 명받았다. 슈타지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요원들을 서독으로 들여보냈고, 그 중에는 독일 수상의 보좌관이 된 귄터 귀욤(Günter Guillaume)도 있었다. 그는 사민당(SPD) 내 “우파”의 정보를 수집하라는 임무를 띠고 서독에 투입되었던 사람이었다. 빌헬름 그로나우(Wilhelm Gronau)를 슈타지에 끌어들이는 것 역시 성공적인 전략이었다. 그는 당시 서독의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총재였던 빌리 리흐터(Willi Richter)의 개인 비서가 되었고, 1972년 체포되기 전까지 동서독을 포괄하는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로나우는 사민당 동독사무소(Ostbüro der SPD)에 소속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록·보관되어 있는 사민당의 캐비닛 비밀번호를 알아내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이었다. 그 후 동독에서는 사민당 동독사무소(Ostbüro der SPD)를 지원하던 인적 네트워크가 해체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슈타지가 개입했던 대서독사업의 방식이 어떠했는지는 “베닉(Wenig)”이라는 비공식 요원의 활약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1955년 그는 당시 자를란트(Saaland) 주정부 수상이었던 요한네스 호프만(Johannes Hoffmann)과 그 측근들을 “정치적 불안에 빠뜨리라”는 명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독일통일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현장에 호프만 자를란트 주정부 수상 앞으로 편지폭탄을 보내되, 반드시 수상이 편지를 직접 열어볼 수 있게 잘 꾸며서 보내라는 명을 내렸다. 다행히 편지 봉투가 제대로 봉해져 있지 않은 것이 우편배달부에게 발견되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베닉은 1954년 공식 요원자격으로 서독에서 비공식 요원으로 구성된 팀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이 “위장테러”가 실패하자 마르쿠스 볼프는 베닉을 임무수행을 위해 다시 함부르크로 불러 그곳에서 슈타지 요원직을 수행하게 했다.

슈타지는 “적으로 간주된” 서독 정치인의 사회적 신뢰와 위상을 떨어뜨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에리히 밀케(Erich Mielke)는 그가 슈타지 수장직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1958년 9월 서독의 전독성(Gesamtdeutsche Ministerium)과 전독성 장관인 에른스트 레머(Enrst Lemmer, 기민당)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유용한 모든 자료·문서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워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전독성과 전독성 장관을 겨냥한 이 작전의 작전명은 “레머의 꼬리(Lemmerschwanz)”였다. 볼프 정보 총국장은 사민당(SPD)의 정치인 빌리 브란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1959년 3월 라이프치히에

사는 브란트의 친척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과거 빌리 브란트가 게슈타포(Gestapo)와 연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 체포된 브란트의 친척은 브란트가 서베를린 시장으로 재임 당시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일련의 사실,” 다시 말해 “언론을 통해 브란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하자 풀려날 수 있었다.

1960년대 서독 정치인들에 대한 흑색선전과 서독 내 선동과 불안조장은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의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이 담당했다. 그 중심에는 알베르트 노르텐(Albert Norden)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슈타지 전략을 직접 지휘했다. 서독 정치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경우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나치정권과 연루되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를 위해 슈타지는 자체 “문서보관실을 통해 표적으로 선정된 서독 정치인과 나치정권 사이의 연루점을 샅샅이 찾았고, 필요할 경우 슈타지가 자체적으로 서류를 조작, 증거를 보강했다.” 증거를 조작한 사실은 후에 두 명의 슈타지 요원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렇게 조작된 “정보”는 서독 언론에 보내지거나 동베를린에서 개최되는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되었다. 슈타지가 1950년대 초 나치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독 기민당(CDU)의 거의 모든 주요 정치인들이 슈타지의 나치정권과의 연루 가능성 주장에 부담을 가져야 했다. 예를 들어 하인리히 뤼브케(Heinrich Lübke)는 1964년 독일대통령으로 재선출되기 하루 전날 “파시즘적 강제수용소 건설관리자”였다는 것으로 공개적인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물론 이 주장에 대한 “증거”는 슈타지가 만들어 제공한 것이었다.

슈타지는 서독에서 대개 “작전(Aktion)수행”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을

미쳤다.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서로 순서에 잘 짜맞춰진 세부개별적인 여러 조치들의 도움을 받았다. 작전 명 “투명(Klarheit)”을 예로 들어보자. 본 작전을 위해 작성된 13페이지짜리 계획서를 보면 슈타지가 1958년 서베를린 시의원 선거 때 사회주의통일당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본 계획서에는 “주요 당선 후보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져 있었다. 이의 대상이 되었던 후보에는 “레머(Lemmer), 암렌(Amrehn), 브란트(Brandt), 립슈츠(Lipschitz), 오닝(Ohning), 슈베들러(Schwedler), 하이니츠(Heynitz), 슈베니케(Schwennicke) 등”이 있었다. 이 계획서에는 그 밖에도 소수당의 시민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나중에는 소수당 후보(“필요할 경우 시민후보를 매수”)가 “서베를린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자신의 표를 사회주의통일당에게 준다”고 발표하게끔 배후조종을 하는 것도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슈타지가 원하지 않는 기민당 후보에게 시민들이 표를 몰아주지 못하도록 기민당 지역대표가 직접 공개편지 형태로 쓴 것처럼 보이도록 위조한 후, 예를 들어 “미국의 공격계획에 기민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팩스로 동독 언론에 보내,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민당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나머지 39가지 조치들도 사민당, 기민당, 독일노총 등에 파견된 요원들로 하여금 각 조직의 핵심인물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토론을 이끌어내는 식의 조치들을 담고 있었다.

상기 사례와 비슷하게 1960년 사회주의통일당은 소위 “독일계획(Deutschlandplan)”이라는 작전조치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본 작전계획을 통해 슈타지는 사민당과 독일노총 내 동독 비밀요원

(Geheim Mitarbeiter)의 활동을 지원했는데, 이 계획은 “서독 정부 내 과거 친나치주의자라고 의심을 받는 사람, 경제계 인사,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오버랜데르-흑색선전(Oberländer-Kampagne, 서독 정치인에 대한 동독의 흑색선전 중에는 서독의 테오도어 오버랜데르(Theodor Oberländer) 장관에 대한 흑색선전이 가장 대표적임. 오버랜데르-흑색선전은 히틀러와 나치정권과의 연루를 근거로 서독 인사들을 비방하는 동독 전략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음: 역자 주)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서독 인사 중에서는 특히 그롭케(Globke)와 제봄(Seeborn) 등과 같은 인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1961년 슈타지는 서독 정부를 비방하고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여러 도시에 “J”라는 작전을 꾸몄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아이히만(Eichmann, Karl Adolf, 1906.3.19~1962.5.31, 독일의 나치 친위대 장교.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및 독일 점령하의 유럽 각지에 있는 유대인의 체포, 강제이주를 계획·지휘했음. 독일의 항복 후 아르헨티나로 도망,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짜 이름으로 은신하고 있다가 1960년 5월 이스라엘의 비밀정보 모사드에 의해 체포당해 이스라엘로 압송되었음. 1961년 12월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나치 독일이 저지른 유대인 600만 명의 학살 책임을 추궁당한 끝에 사형판결을 받고 1962년 5월 교수형에 처해졌음: 역자 주)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본 작전계획을 통해 홀러코스트(Holocaust,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등에서 전기와 가스 등으로 유대인 및 피점령 국민들에게 행한 대량 학살: 역자 주) 생존자를 반유대주의자라고 선동했다. 또한 유명 반유대주의자들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냈다. “너희 유대인들의 짓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너희를 가스실에서 충분히 죽이지 못했다. 사라져라. 아니면 우리가 너희를 찾아 없애주겠다. 유대인들은 꺼져라! (독일 나치 친위대 어느 대원)” 슈타지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마저도 조작했다. 슈타지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작성하



여 공개했다. “나는 독일계 유대인이다. 내가 독일계 유대인임을 꼭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 의미로 왜곡되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끔직한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 발신자는 과거를 가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들쑤셔 내는 자다.”

1966년 슈타지는 위의 예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특별부서들을 설치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구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와도 긴밀하게 협력했다. KGB와의 협력 사실은 슈타지의 수장 밀케가 1967년 슈타지와 KGB 대표들과 협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동년 4월에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건들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 문건들은 구소련이 1966년부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자신의 “주적(Hauptfeind)”인 미국과 서독 및 그들의 동맹국에 맞서 싸울 의지와 준비를 갖췄다는 점을 알게 해주었다. 구소련은 특히 서독에 대응하기 위해 동독과 함께 여러 가지 “작전”을 수립했다. 이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독 정부의 대표적 인사들의 명예실추,” “적극적인 보수주의 인물이나 기관에 대한 흑색선전” 및 “사민당(SPD)의 우파 지도층 인사에 대한 비방” 등이 있었다.

구소련과 공조한 ‘작전’ 중에는 코드명 “법정(Tribunal)”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에 대해 서독 주민으로 하여금 반감을 갖도록 조장하는 것이었다. 본 작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슈타지가 “미국이 서독 정부와 협력하여 베트남전에서 폭력을 일삼았다는 인상을 주는 문건을 만들면, KGB가 이 문건을 러셀위원회(Komitee Russell, 미국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범죄를 국제법에 따라 심판하기 위해 영국의 철학자 버틀랜드 러셀(Russell, B.)이 제창

하여 발족한 위원회. 이에 따라 열린 법정을 ‘러셀국제법정’이라고 했음. 각국의 법학자, 평화운동가 등이 모여 평화와 인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규탄하는 장소가 되었음: 역사 주)에 노출시키는 방법”을 통해 미국과 서독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구소련과의 공조를 통해 실행된 작전에는 “타이푼(Taifun)”이라는 것도 있었다. 슈타지와 KGB는 이 작전을 통해 서독의 수상 키싱거(Kiesinger)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했다. 키싱거가 계획했던 1967년 가을 인도 방문을 비방하는 것이었다. 또한 “10월 혁명” 50주년을 맞아 사민당의 주요 인사였던 베너(Wehner)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작전”도 있었다. “사막화(Verwüstung)”라는 작전도 있었는데, 서독의 “ABC 대량살상무기(원자 Atom, 생물 Biological, 화학 Chemical의 준말: 역사 주) 및 미사일 생산계획을 공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작전은 2년 후 마르크스 볼프(Markus Wolf)가 상관에게 다수 주요 슈타지 비공식 요원이 (기자회견, 텔레비전 등과 같은) 공개석상에 등장한 것이 작전의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보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독 정치권에 개입하기 위하여 슈타지는 비공식 요원들을 동원, 서독의 “진보주의” 단체와 운동에 개입, 이들 단체들과 운동을 조종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까지 잘 보존된 “1969년 3월 5일 서베를린에서 개최된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를 저지하기 위한 슈타지 작전 계획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연방대통령 선출을 위해 열리는 연방회의에서 구스타브 하이네만(Gustav Heinemann)이 가장 유력한 연방대통령 후보였다. 슈타지는 “서독의 재야권(Außerparlamentarische Opposition: APO)의 활동을 지원하고, 베를린 시장이었던 슈츠(Schütz)에 대한 개인적인 비방과 정

치적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연방회의의 개최와 준비를 방해”할 계획이었다. 슈타지는 재야권 단체들이 그들이 원하는 통일된 행동을 취하도록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압력을 가했다. 심지어 데모와 시위의 성격이나 구호에까지 영향을 주기도 했다. 또한 팸플릿 제작과 기타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를 돕고, 대표적인 재야권 세력이었던 서베를린의 공화당 클럽(Republikanischer Club)이 발표한 “서독 정부의 베를린 도발과 그로 인해 서베를린 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당함에 대한 호소문과 선동자료” 제작을 지원했다. 더 나아가 슈타지는 1967년 학생운동이 일어났던 시기 발간된 재야권 소식지 “베를린 특보(Berliner Extradienst)”를 이용하여 연방회의의 개최를 저지·반대하는 기사를 내고 슈츠 상원을 비판하고 “서베를린이 입을 피해”를 퍼뜨렸다. 또한 비공식 요원 “프레디(Freddy)”를 이용, “독일 통신사(dpa)”를 통해 유포하려고도 시도했다. 이와 관련 볼프는 본 작전계획에 “자민당 지도부와 당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내용을 친필로 첨가하기도 했다.

이 작전계획서에는 “서베를린과 서독 내 재야권과의 인맥을 형성하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본 작전계획을 위해 슈타지는 베를린 학생운동 본부에 대한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데만 비공식 요원 17명, 접선요원(Kontaktperson: KP) 11명을 투입했다. 베를린 학생운동에 투입된 비공식 요원 중 3명은 20년 이상 서독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자이츠(Zeitz)라는 요원은 서베를린 대학의 교수와 시민연대의 간부가 되었으며, 유타(Jutta)라는 요원은 서베를린 재정성 연락사무소 직원이 되었다. 1969년 볼프는 본 작전계획이 “절대로 발설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작전대상이 되

는 기관(예: 연방하원의원)에 배치되는 개별 비공식 요원에 대한 정치적 차원의 조정과는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작전계획서에는 또한 사민당 지도부와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었다. 즉, “서독의 대통령 하이네만(Heinemann)과 수상 브란트(Brandt)가 하이네만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서신을 동독공산당 서기장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가 보내줄 것을 요망했다”고 만들어서 그것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니네 신문(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이 보도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1980년대 초 슈타지는 서독에서의 미사일 반대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의 일환으로 1981년 8월 슈타지 제2정보총국(HVA-II) 대표가 “서독 평화운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컨셉”을 제시했다. 이 컨셉은 서독 내 “슈타지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만들어 슈타지 특수 “지휘부(Leitstelle)”가 중앙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볼프에 따르면 “평화를 위한 장교들(Generäle für den Frieden, 슈타지가 배후에서 조종하던 평화운동단체: 역자 주)”이라는 단체만 해도 슈타지 정보총국으로부터 연간 10만 마르크 정도를 지원받았다. 슈타지 지도부는 서독 연방하원이 서독 내 나토의 미사일 배치를 결정하기 몇 달 전 에리히 밀케(Erich Mielke)에게 다음과 같은 건의를 했다. “서유럽 국가, 특히 서독 내 미사일 배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를 슈타지가 제공하는 재원과 수단을 통해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슈타지는 미사일 배치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사민당(SPD)과 민자당(FDP) 인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과제였다. 이와 같은 조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슈타지는 어떤 대상(당 간부, 주정부

지구당, 당 기반)을 지원할 지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했다.

다른 한편, 슈타지는 특별한 방법을 동원, 동독에 대해 비판적인 서독의 기관과 개인에 대처했다. 1985년 밀케는 150개의 동독에 “적대적”인 단체와 기관을 발표하면서 이런 단체와 기관의 지도층과 저변에 스며들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의도, 전략들을 조기에 포괄적으로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그와 같은 단체와 기관이 “동독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할 것”을 명령했다. 예를 들어 자료로만 61권에 달하는 “중앙공작조치(Zentralen Operativvorgang: ZOV)”를 이용, 서독 프랑크푸르트의 “국제인권사회(Internationale 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e: IGMF)”가 일반 대중에게 극우적이고 파시즘적 단체로 비취지게끔 조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리프슈타트(Lippstadt)에 본부를 두고 있는 “건너편에서의 도움요청(Hilferufe von drüben: Hvd)”이라는 단체에는 80명 이상의 비공식 요원을 투입한 바 있다. 80명의 비공식 요원은 슈타지의 문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리프슈타트와 동독 사이의 일체의 연결을 감시할 것을 지시했다.

슈타지는 무엇보다 “동독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서독 거주 동독출신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명예훼손과 흑색선전을 일삼았다. 이는 볼프 비어만(Wolf Biermann), 위르겐 폭스(Jürgen Fuchs), 롤란트 얀(Roland Jahn)과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전 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슈타지는 언론기자들과 친구, 정치모임에서 롤란트 얀이 돈에 눈이 멀어 동독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일명 썰기(Keil)작전”). 예를 들어 슈타지가 만든 슈피겔(Spiegel)지 표지에 얀의 얼굴을 천 마르크짜리 지폐와 합성시킨 폴라주(Collage) 그림을 그리고 제목에는 “동독과의 사업(Das Geschäft mit der

DDR”이라고 달아 보내기도 했다. 양을 고용하려고 고심했던 독일연방 녹색당은 슈타지 HVA/II 총국이 ‘녹색당’에서의 근무를 방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슈타지가 서독의 정치분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개별 사례로만 확인될 뿐이다. 그러나 당시 관련된 자료들은 슈타지가 서독사회 거의 모든 핵심기관과 단체의 심장부에 비공식 요원들을 심어놓고, 임무를 부여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84년 사회주의통일당 지도부는 “서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우리가 서독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슈타지에 대한 과거청산은 결코 동독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독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 문제였다.

## 요약

동독은 작전지역에 의거하여 광범위한 정보업무를 수행했다. 정보업무를 핵심적으로 담당했던 기관은 슈타지와 슈타지 산하 총국, 동독 인민국 정보국이었다. 총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서독인이 동독 슈타지를 위해 비공식 요원으로, 대부분 정보수집 활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도 사회주의통일당(SED)은 서독의 사민당(SPD), 노동조합 및 기타 기관의 주요 인사들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동독의 대서독 사업은 사회주의통일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 대서독 활동의 초창기에는 서독에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독을 위한 보다 유리한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주력했다. 여기에는 서독의 정당과 미디어, 개별인사들의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시 말해 공산주의의 모습을 띠지 않은 동독과의 공조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 밖에도 사회주의통일당(SED)은 서독의 대학생운동, 노동조합운동, 평화운동에 영향을 주고, 서독의 주요 정치인인 한스 글롭케(Hans Globke), 하인리히 뢰브케(Heinrich Lübke), 오이겐 게르스텐마이어(Eugen Gerstenmaier), 헤베르트 베르너(Herbert Wehner) 등에 대한 흑색선전을 주동했다.





## 슈타지와 네오나치스 : 불인정의 상호관계

# 26

베라 렉스펠트 (Vera Lengsfeld)

1987년 10월 17일 동독 시온교회(Zionskirche)에서 열린 펑크 콘서트 (Punk-Konzert)장이 신나치주의자들에 의해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신나치주의 문제가 최초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 약 30명의 스킨헤드족이 자전거 체인과 파이프로 무장한 채 공연장에 뛰어들어, “독일 교회에서 유대인들은 다 꺼져라!” “직 하일(Sieg Heil, 나치의 승리구호: 역자 주!)”이라고 외쳤다. 그런 후 콘서트를 찾은 관람객들을 구타하기 시작했다. 스킨헤드족은 콘서트장을 빠져 나와 도망치는 사람들을 추격하여 인민경찰이 보는 앞에서 두들겨 뺐다.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뛰어 들어가 도움을 청해도 소용이 없었다. 범인들은 머리를 밀고, 항공재킷에 군화 스타일의 부츠를 신어 금방 눈에 띄었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았겠지만 전혀 의외였다. 이와

같은 스캔들은 순식간에 베를린 전역에 퍼져나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

정부에 비판적인 저항세력들까지도 동독 지도층이 견지했던 반파시즘적인 원칙을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반파시즘주의는 동독정부의 독트린이었으며, 모든 젊은이들에게 주입된 항체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눈앞에서 벌어졌던 사건은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 것도 없는 허상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것은 무엇인가?

공식적으로는 서독에서 온 스킨헤드족들의 습격이었다는 해명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다시 말해 콘서트장 공격은 동독의 위상에 흠집을 내기 위해 서독 적대세력이 연출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슈타지 문건이 공개된 이후 당시 설명과는 전혀 달랐다. 실제 사건의 발단은 동베를린에 소재했던 “스푸트니크(Sputnik)”라는 디스코텍에서 동독의 스킨헤드족들이 벌였던 행사였다. 당시 디스코텍에서는 스킨헤드족들이 동독 인민군에 10년 동안 명예롭게 복무할 회원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고 있었다.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사람들을 집단 구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스킨헤드족들이 콘서트장을 습격했고,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구타했던 것이다.

스킨헤드족이 동독 인민군에 자원입대를 하는 것은 권장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아주 드문 일도 아니었다. 군 입대와 관련, 가장 어려운 근무지가 낙하산 공수부대였다. 만약 자원자가 군복무를 위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신체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

는 사람은 그가 속한 집단에서 무시를 당하고 배척되었다. 동독 인민군은 극우단체가 폭력적인 성향을 강화해 나가게 만드는 매력적인 대상이었다.

슈타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965년과 1980년 사이 동독의 극우세력이 배후에 존재했던 폭력사건은 모두 730건이었다. 이와 같은 규모는 인민군 전체 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공개된 숫자라는 것이다. 공개되지 않은 사건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인민군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65년에서 1970년 사이 동독 인민군과 극우 청소년단체 간에 100회 이상의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토론에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 (Mein Kampf)”과 “민족의 감시자(Völkischer Beobachter)”를 읽으면서 제3제국의 “홀륭한 먼”에 대해 논의했다. 괴벨스(Goebels)의 연설도 들었다. 토론회가 개최되는 수가 증가할수록 점점 더 많은 인민군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는 다른 예로 동독 브라덴부르크 공군 34 헬기대대 1중대 소속 하사관 여섯 명이 일 년 동안이나 부대에서 모두 히틀러식 경례를 하도록 만든 적이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독일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 Partei: NSDAP, 1919년부터 1945년까지 히틀러 하에서 존재했던 독일의 정당.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반공주의, 전체주의와 군국주의 정책을 내세웠으며 사회주의를 절충. 이른바 ‘아리아인’, ‘독일인’의 우월주의를 주장했음. 국가보다는 민족을 우선했다는 차원에서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으로 불리어지기도 함: 역주 주)의 후예”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들이 속한 비행중대의 전투정신(Kampfmoral)을 “해체(Zersetzung, 본 책자에서는 ‘심리적 테러’로 번역: 역주 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해체”라는 개념은 슈타지를 상징하는 핵심 개념이다. 슈타지는 이 개념을 정치적 적이 없어질 때까지 맞서 싸우는 행위에 대한 동의어로 사용했다. “해체”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유추해볼 수 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슈타지 자체도 극우주의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1981년 슈타지의 정보에 따르면 슈타지 산하 “펠릭스 제르진스키 연대(Wachregiment Felix Dzerzynski)” 내에서도 극우주의 조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펠릭스 제르진스키 연대” 내에서도 히틀러식 경례가 오갔다. 나치친위대(SS)와 히틀러의 “영웅적 업적”에 도취되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군대 내 히틀러를 추종하는 “갈색단체(Braune Gruppe)”라는 것이 따로 조직되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 슈타지는 교회가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개방하게 되면 교회가 네오나치 극우자들의 공격대상이 될 것을 들어 교회를 시민단체로부터 격리시켰다. 다수의 신나치주의자들은 슈타지의 비공식 요원으로도 활동했으며, 이들은 특히 유태인 출신의 저항세력 제거에 투입되었다.

물론 극우주의가 군대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동독의 학교에서도 극우주의적 사상이 움텄다. 1970년대 이후 학교 내 극우주의 관련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슈타지는 반년 동안 동독 학교 내 “신파시즘”과 관련된 사건이 600건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또한 공개된 사건에 대한 통계일 뿐이다. 슈타지는 1980년대 극우주의 성향을 가진 청소년의 수가 38개 단체,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동독의 청소년 저항운동 단체들은 동독 내 신나치주의자들의 수를 2,000명 정도로 추정했다. 청소년들은 서로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추정은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슈

타지는 내부보고서를 통해 동독에 “파시즘적 성향의 표출”이 점점 증가한다고 했다. 동독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극우주의적 폭력사건은 증가했다. 동독이 무너졌던 해 “파시즘적, 인종주의적, 군국주의적 성향의 표출” 때문에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신고된 건수는 188회에 달했다. 이를 통일 후 신연방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브란덴부르크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동베를린 33건,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31건, 작센 26건, 작센안할트는 14건, 튀링엔은 11건을 기록했다.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신나치주의자들이 핑크족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잘 융화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사회주의 노동자 집단 내 주목받는 일원이었고, 종종 우수노동자로 지명되기도 했다. 휴가기간에는 동독 청소년군사 단체인 “스포츠·기술협회(Gesellschaft für Sport und Technik: GST)”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서독의 군사스포츠단체의 정형을 따라 만들어졌던 GST는 그들의 연습장을 서독 네오나치 군사스포츠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물론, 동독의 극우 청소년 단체들이 서독의 신나치주의 단체들과 이렇다할 연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동독의 극우주의는 외부로 유입된 것이 아니었다. 동독 사회주의 바탕 위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동독 극우주의 성장은 반파시즘을 주창한 사회주의 통일당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밖에도 동독의 정보체계와 교육시스템이 기만적이라고 인식했던 데도 원인이 있다. 이와 관련, 아이젠펠트(B. Eisenfeld: 동독출신역사학자이자 동독 반체제 인사: 역자 주)는 “사회주의통일당의 선전과 활동은 날조와 비밀로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명백한 사실마저도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통일당 서기장이자 국가평의회 의장 호네커

(Honecker)는 동독의 소비에트화를 추진했다. 이 정책은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를 폭발시켜 결국 동독이 서독과 통일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당시 동독 주민들에게 독일은 비록 분단된 국가이긴 하지만, 이것을 극복해 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동독의 신나치주의들은 정부에서 가장 금기시 했던 독일통일을 공산주의자와 외국인에 대한 투쟁과 함께 그들이 실천해야 할 목표의 중심에 두었다. 외국인에 대한 극우주의적 성향의 표출은 구소련 군대와 베트남 사람 정도였다.

동독 정권이 설립된 이후 동독에는 극우주의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 어떤 논의도 없었다. 오히려 그보다는 극우주의를 감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베를린의 시온교회에서 발생한 집단구타 사건도 주민들의 대대적인 항의가 일어나고 나서야 법의 심판대에 올려졌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이 “젊은이들의 단순 우발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었다고 치부하여 비교적 낮은 강도의 처벌을 선고하려고 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항의에 부딪히자 형량이 높아졌다.

사회주의통일당은 극우주의의 피흘리는 과격행위가 발생하는 데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통일후 민사당(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PDS,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SED의 후신·역자 주)/좌파당(Die Linke, 독일의 민주사회주의 정당. 독일 연방하원 내 5개 정파 중 가장 좌파적인 색채를 가진 정당. 2007년 6월 16일 PDS와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 간의 통합으로 창당되었음. 2009년 연방선거에서 11.9%를 득표, 독일 연방하원의 총 의석수 622석 중 76석을 차지하여, 원내 4당이 되었음: 역자 주)으로 발전한 사회주의통일당은 신연방주에서의 극우주의의 등

장은 실패한 통일정책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거짓이라는 것은 과거 동독이 남긴 수많은 증거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동독에서 스킨헤드족의 등장이 그 이전 수십 년 동안 무르익은 동독 극우주의의 결과였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 슈타지 행동의 결과

지그마르 파우스트 (Siegmar Faust)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10년이나 20년이라는 세월은 한 순간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 개인에게 있어서 10년이나 20년은 끝없이 길고 납처럼 무거운 시간이다. 특히 “인간을 가공했던 기관”(슈타지에 대한 Sieghard Pohl의 표현, Sieghard Pohl는 동독 출신 화가이자 출판인, 라이프찌히에서 수학했으며 여러 번 슈타지에 의해 구속되었음, 1965년 정치범 석방가래에 의해 서독으로 이주했음: 역자 주)에 의해 휘둘려졌던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1950년과 1990년 사이 동서독 주민 수백만 명과 외국인들이 슈타지를 경험했거나 그들로부터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왜냐하면 실제 수십만 명은 밀고자, 정보원, 첩자 등과 같은 비공식 요원(Inoffizielle Mitarbeiter)이나 아예 공식적인 직책을 얻어 “보이지 않는 전선의 전사”로서 동서독 주민들과의 접촉이나 공식적인 일자리를

통해 이익을 얻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용감하게 슈타지와 결별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부분을 논의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 시각, 다시 말해 사회주의통일당의 군사적 도구였던 슈타지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의 피해, 그리고 동서독 통일 이후 슈타지로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결과가 어떠했는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슈타지에 의해 구금되고 억압을 당하고 심리적인 테러를 당한 그들이 최근까지 어떤 후유증을 겪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희생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구금, 억압, 심리적 테러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심리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슈타지의 범죄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최근까지도 “외상후 장애”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나타내는 증상을 예를 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친구와 연인/배우자와의 정상적 관계형성 장애
- 만성 피로
- 폐쇄적인 공간에 대한 외관적, 비동기적 공포
- 만성 수면장애
- 반복되는 악몽
- 집중력 저하/근로능력 상실
- 우울증
- 감정의 기복

- 인간성의 지속적 변화
- 심신상관에 의한 고통압
- “극복하지 못한 과거”에 대한 집착
- 협동 장애
- 슬퍼하지 못함

슈타지 요원들 중 소수는 용기를 갖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처벌까지도 받겠다는 사람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동독공산당 정치국원이었던 귄터 샤프브스키(Günter Schabowski, 1989년 11월 9일 동독 주민들에게 대한 서방권으로의 여행 자유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실수로 당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했던 장본인: 역자 주) 같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사회주의통일당의 이데올로기가 실패한 이유와 동독의 현실에 대해 철저하고도 진지하게 분석·평가한 사람들이었다. 슈타지의 중책을 맡은 인물들 중에는 동독의 몰락 직후 죄책감과 수치심, 공포와 심적인 혼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슈타지 소속, 대부분의 억압자와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매었던 장본인들은 새롭게 정립된 통일독일의 민주질서에 정착했다. 구 동독 당시 일반인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봉급을 받았던 그들은 통일 이후 직책에서 물러난 이후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좌파당(Linke)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 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신인 민사당(PDS)에 소속되어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과거 사회주의통일당(SED)에 뿌리를 둔 이 정당에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공공예산이 새어나가고 있으며”(Hubertus Knabe, 본 책의 집필자의 한사람, 후미 필자 소개란 참조: 역자 주) 막강한 정치기관으로 독일의회와 유럽의회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해대변기관으로서의 존재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생존하고 있는 최소 십만 명의 슈타지 희생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좌절할 뿐, 더 이상 대규모 길거리 데모나 고속도로 점거와 같은 행동을 취할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이는 바로 슈타지가 피해자들에게 가했던 “업적”이다. 그들은 사람의 자의식(Selbstbewusstsein)을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체”라는 심리적 테러를 통해 당사자들을 이간시켰다. 그 결과 그들의 친구와 동료, 학우, 형제자매 간에는 지금까지도 불신이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 슈타지 문서 : 공작조치 Sinus 1과 Sinus 2

# 28

프레야 클리에르 (Freya Klier)

프레야에게,  
언제쯤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언제쯤 (슈타지 문서조사를 위해)  
베렌슈트라세에서 볼 수 있나요?  
그럼 이만!  
j.

1992년 1월 초 위그겐 폭스(Jürgen Fuchs: 1950~1999 동독의 반체제 인사, 예나대학에서 사회심리학 수학, 재학시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에 가입했으나, 체제저항 시와 산문을 발표한 것 때문에 사회주의통일당에서 축출되었음. 그 후 동베를린 교회에서 저항 활동을 계속하다가 체포·투옥되었음. 국제적인 항의로 출옥되었으며 1977년 가족과 함께 서독으로 이주. 역자 주가 나에게 보낸 새하얀 엽서의 내용이다. 베렌

슈트라세(Behrenstraße)? 이제는 그 곳이 커피숍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폭스와 내가 가우크-관청(슈타지 문서관리청으로 초대 청장이었던 요아힘 가우크(Joachim Gauck)의 이름을 따서 만든 기관: 역자 주)에서 조사하기 시작한 첫날, 우리는 이미 동독역사의 더러운 웅덩이를 한참 동안이나 코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베렌슈트라세. 시적이며 예민한 감성을 가진 내 남편 슈테판 크라브치크(Stephan Krawczyk)는 신문지상에 공개된 슈타지 첩보문서들을 최초로 보면서 슈타지가 사용한 언어 때문에 벌써 정서적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남편은 우리 둘이 조사하기로 한 “Sinus 1과 Sinus 2”라는 슈타지 공작 관련 문서를 나에게 던져주었다. 이 문서는 우리가 동독에서 보낸 마지막 2년 동안의 기록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었다. (나머지 기록들은 아직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 “Sinus 1과 Sinus 2” 두 개의 자료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문서 속 페이지 끝머리마다 등장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베렌슈트라세」에서 보냈는지 모른다. 나를 언급해 놓은 그 사람들을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비열한 문서들을 들여다 보면서 느꼈던 그 강렬했던 감정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것은 역겨움, 사람을 압도하는 역겨움이었다. 우정이라는 가면으로 자신의 정체를 가리고,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도사리고 있었던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실망감은 오히려 별 것 아니다. 아니 직업상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 인간의 타락이나 사악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타지가 80명의 요원도 모자라, 우리 딸아이에게 붙일 청소년 요원

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문건에서 접했을 때 나는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다. 14살 난 딸 낫자(Nadja)에 관한 보고서를 들여다보았다. 슈타지가 딸아이에게 적합한 비공식 요원을 구하는데 운동을 잘하거나 예술적 재능이 탁월한 젊은이로 절대로 16살 이상은 안된다는 것 등이었다.

딸 아이로부터 압수한 일기장에는 문서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온 몸에 진드기가 파고드는 듯한 소름끼치는 언어로 나열된 코멘트들이 달려있었다.

그들은 엄청난 수고를 했다. 질보다는 양에 치중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두 마리의 쥐를 잡기 위해 수십 마리의 구멍 뚫는 쥐를 풀어 놓은 꼴이었다. 그러나 슈타지 비공식 요원들은 항상 한발 늦었다.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보고할 뿐이었다. 슈타지는 나에게 늘 불만으로 가득차 있었던 것을 기록해 두었다. 교회를 담당한 슈타지 분과는 교육을 담당한 슈타지의 것을 가져가 보고했고, 지하세력을 담당한 슈타지는 문화를 담당한 슈타지의 것을 가져가는 식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를 날려 보낼까 궁리했다. 나는 이 문서들을 보면서 과거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험해야만 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문화 분야에 종사했던 두 명의 내 동료가 비겁하게도 열성적 사회주의통일당 당원이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동생같이 생각했던 슈누르(Schnur)라는 친구가 사람을 죽이는 독약을 제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카린(Karin)”이라는 이름도 발견했다. 비공식 요원이었던 “카린”은 심리학자였다. 내 남편 크라브치크와 클리어스(Kliers)의 정신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남편의 심리를 파괴하기 위해 여러 개

의 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 모델은 내 남편에게 인위적인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방법을 담고 있었다. 즉, 내 남편을 강제 이주시킨 후, 절도범으로 몰고, 결국에는 우리 부부를 갈라놓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었다. “카린”의 상상력은 섬뜩한 전율을 가져오는 수준이었다.

문서에서는 반가운 흔적들도 발견하게 되기도 했다. 용기를 내었던 많은 목사들과 교회 근무자들에 관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나의 청소년기에 관해 슈타지 총국이 수집한 자료가 소수의 단편적인 자료였으며, 그나마도 추측에 가까운 자료뿐이었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다름아닌 나와 함께 청소년기를 보냈던 수많은 친구들 특히, 가까웠던 친구들 중에는 그 누구도 나를 고자질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비밀유지를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들 부모에게조차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 동독 시절의 모든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4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보면.

슈타지의 문서터미에서 빠져나와도 마음이 끈적끈적했다. 나는 평소보다 더 자주 공원에 가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되었다.

가장 신경을 거스르게 했던 건 기자들이었다. 슈타지 문서를 열람한 나에게 막무가내로 들이댔다. 그러나 그들 중 동독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듯 했다. 내가 40년의 동독 역사를 4분에 담은 인터뷰를 거절하겠다



고 하자, 바이에른 주에서 온 어느 기자 모습의 반체제 투사는 나에게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협박했다. 나는 그 순간 그 동독 사람에게 달려가 과거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Franz Josef Strauß, 당시 기사당 당수. 1980년대 중반, 동독의 경제상황을 고려, 19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 역자 주)가 제공했던 수십억 마르크의 크레딧 문서더미를 내동댕이치는 생각을 했다. 그 자는 잠시 얻어맞은 개처럼 바라보다가 전투심 가득 찬 모습으로 슈타지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았다.

언론에서는 이미 성명들이 쏟아지고 있었고, 늘 미소를 잃지 않았던 슈톨페(Stolpe)는 쏟아지는 성명에 파묻힐 지경이었다. 아직 문헌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동독 출신 시민들이 구성한 한 합창단이 다음과 같은 가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너희는 끼어들 수 없다. 너희는 여기에 살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노래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서쪽에서는 이러한 노랫말이 들렸다. “우리는 끼어들 수 없다. 우리는 그 곳에 살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가사에 이어 다음과 같은 가사가 이어졌다. “내가 그 곳에 있었다면 나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른다”.

나는 모든 자료를 낱낱이 찾았다. 그리고 누가 남에게 뒤질세라 의기양양 슈타지 명령을 수행했는지 알 수 있었다. 누가 자기 명예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 명예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양심을 지켰는지도 알게 되었다. 용기, 비굴함, 있는 힘을 다 소진하며 변혁을 시도했는지 모두 한 덩어리 기억으로 되살아났다. 무엇보다도 여러 주에 걸쳐 조사를 하는 동안 동독의 실

체가 힘없이 드러났다. 그들이 첩자와 정보원이었든, 공식 요원이었든, 비공식 요원이었든, 어떤 교육수준을 가졌던 가릴 것 없이 그들 모두가 동독이라는 웅덩이 속에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이 동독을 고스란히 반영한 존재였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가우크의 시대는 끝나고, 비르틀리(Birthler, 가우크의 후임자: 역자 주) 시대가 열렸다. 그러는 동안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어느새 누군가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그 때 모든 것이 그렇게 끔찍했던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사람들이 통일된 독일에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려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독일 의회에 앉아 “좌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변호사가 되어 여전히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나 부동산중개업자 되어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 과거 첩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변호사로서 그들에게 희생에 당했던 사람들을 무참하게 법정에서 세우곤 한다. 통일조약에서 대충 넘어간 사법 관련 조항들을 바로잡기에 지난 20년의 세월이 부족했다는 말인가? 그들은 민주주의를 레몬을 짓이기 듯, 짓밟고 있다. 자기 자식들에게는 “유럽 법”을 전공하게 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후에 자신들의 일에 개입시킬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과 반대편에 있다. 늘 행복한 기분으로 살고 있다. 그들은 고깃국물의 기름과 같이 어떤 집단에서도 상류층에 속해 똥똥 떠 헤엄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맞는 모습인가?

위르겐 폭스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썼을 것이다.

“언제쯤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언제쯤 만날 수 있나요? 그들이 유럽으로 손을 뻗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라고.

안타깝게도 그의 자리는 텅 비어있다.

(위르겐 폭스는 1999년 5월 9일 희귀한 혈액암으로 4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 0 3 8 4 5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t für Nationale Sicherheit  
Der Leiter

Berlin, 22. 11. 1989

Geheime Verschlusssache  
GVS-e002  
Nr. 26189  
80. Ausf. Bl. S. 1 bis 6

Amt für Nationale Sicherheit  
Bezirksamt  
Leiter

**KOPIE**

**BSTU**

Reduzierung des Bestandes registrierter Vorgänge und Akten sowie weiterer operativer Materialien und Informationen

Zur Gewährleistung des zuverlässigen Quellenschutzes und der Geheimhaltung spezifischer operativer Mittel, Methoden bzw. Arbeitsergebnisse sind folgende Maßnahmen zur differenzierten Auslagerung bzw. Vernichtung von registrierten Vorgängen und Akten sowie weiteren operativen Materialien und Informationen in den Kreisämtern/Dienststellen bzw. in den Fachabteilungen/selbständigen Referaten der Bezirksämter durchzuführen:

[...]

5. IM-Vorlaufakten, soweit diese noch nicht aus den Kreisämtern/Dienststellen ausgelagert wurden, sind in Abstimmung mit der Abteilung XII des Bezirksamtes in eigener Zuständigkeit zu vernichten, wenn keine operativ bedeutsamen Aufklärungsergebnisse vorliegen, keine Kontaktierung erfolgte und der Kandidat nicht den zukünftigen Erfordernissen der Arbeit des Amtes für Nationale Sicherheit entspricht.

6. DV/DPK, soweit diese noch nicht aus den Kreisämtern/Dienststellen ausgelagert wurden, sind in die Abteilungen XII der Bezirksämter auszulagern. Handelt es sich dabei um DV/DPK, die im wesentlichen nur auf Arbeitsergebnissen der Linien 26, III und IV basieren, bei denen keine strafprozessualen bzw. anderen der Öffentlichkeit bekanntgewordenen Maßnahmen erfolgten und die keine Verdachtshinweise entsprechend der zukünftigen Aufgabenstellung des Amtes für Nationale Sicherheit enthalten, können lageabhängig in Abstimmung mit der Abteilung XII in den Bezirksämtern bzw. in eigener Zuständigkeit vernichtet werden.

[...]

Alle Mitarbeiter sind zur unbedingten Geheimhaltung über die Vernichtung bzw. Auslagerung von registrierten Vorgängen und Akten sowie weiteren operativen Materialien und Informationen anzuhalten.

Auftretende Probleme und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r Realisierung dieser Weisung, die einer zentralen Klärung bedürfen, sind an die ZAIG, Gen. Oberst Schwock, Telefon: 2 38 78, zu richten.

Anlage  
Schwanitz  
Generalleutnant

## 통계수치

	동독	서독
색인카드	약 40,000,000건 (전체)	
F 16 실명목록카드	약 5,100,000건	약 360,000건
F 22 진행분류카드	약 1,100,000건	약 70,000건
문건	약 180,000m	
시단위 행정처(BV)	15	
읍면단위 행정처(KD)	209	
공작대상물 소재 행정처	7	
공식 요원(HM)	약 91,000명 (1989년) 최대 106,000명 (1980년대)	
특수 목적 투입요원 (OibE)	2,232명 (1989년)	665명 (1989년)
비공식 요원(IM)	약 174,200명 (1989년) 약 600,000명 (1950~1989년)	약 36,000명 (총인원 추정) 약 3,000명 (1989년)
사회보안요원(GMS)	약 33,000명 (1989년)	
비공식 사법경찰 지원요원(IKM)	15,000명 (1989년)	
인민경찰 산하 K1 특수임무요원 (정치분야 투입)	2,300명 (1989년)	
13~25세 어린이 및 청소년 비공식 요원 (IM)	약 13,000~17,500명 (1989년)	
공작착수준비조치 (OAM)	연간 약 8,000건	
인물공작조치(OPK)	연간 약 8,000건	
일반공작조치(OV)	연간 약 5,000건	



## 참고문헌(발췌)

- Aretz, Jürgen / Stock, Wolfgang: Die vergessenen Opfer der DDR. 13 erschütternde Berichte mit Original-Stasi-Akten. Bergisch Gladbach 1997.
- Barck, Simone / Lokatis, Siegfried: Zensurspiele. Heimliche Literaturgeschichten aus der DDR. Halle 2008.
- Baron, Udo: Die verführte Friedensbewegung. Zur heute nachweisbaren Einflussnahme von SED und MfS. In: Die Politische Meinung 48 (2003) 407, p. 55-61.
- Benda, Ernst: Persönlichkeitsschutz und Stasi-Akten. Sankt Augustin 2000. (Zukunftsforum Politik, 9)
- Bibliographie zum Staatssicherheitsdienst der DDR. Stand: Dezember 2008 / Die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erlin 2008.
- Biermann, Wolf: Die Gespenster treten aus dem Schatten. "Das Leben der Anderen". Warum der Stasi-Film eines jungen Westdeutschen erstaunen lässt. In: Die Politische Meinung 51 (2006) 442, p.32~36.
- Buchstab, Günter (ed.): Repression und Haft in der SED-Diktatur und die "gekaufte Freiheit". Dokumentation des 14. Buchenwald-Gesprächs vom 22. bis 23. November 2004 in Berlin zum Thema "Häftlingsfreikauf". Sankt Augustin 2005.
- Dümmel, Karsten: Identitätsprobleme in der DDR-Literatur der siebziger und achtziger Jahre. Frankfurt/M. 1997.
- Dümmel, Karsten / Schmitz, Christian(ed.): Was war die Stasi? Einblicke in das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der DDR(MfS). Sankt Augustin 2002. (Zukunftsforum Politik, 43)
- Eichner, Klaus et al.(ed.): Kundschafter im Westen. Spitzenquellen der DDR-Aufklärung erinnern sich. 2nd rev. ed. Berlin 2003.
- Ellmenreich, Renate: Frauen bei der Stasi. Am Beispiel der MfS-Bezirksverwaltung Gera - ed. by Landesbeauftragte des Freistaates Thüring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Erfurt 1999.
- Engelmann, Roger / Joestel, Frank: Grundsatzdokumente des MfS. Berlin 2004.
- Feind ist, wer anders denkt. Eine Ausstellung über die Staatssicherheit

- der DDR / Die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2nd ed. Berlin 2009.
- Fricke, Karl Wilhelm: "Offensive Desinformation". Stasi-Geschichtsrevisionismus und historische Wahrheit. In: Die Politische Meinung 51 (2006) 442, p.10~14.
- Fricke, Karl Wilhelm: Stacheldraht gegen "Landesverrat". Über den selbst ernannten Kampfauftrag des DDR-Regimes gegen Flucht und Ausreise. In: Die Politische Meinung 51 (2006) 441, p.66~70.
- Fricke, Karl Wilhelm: Läderte Legenden. Der Nimbus der DDR-Staatssicherheit. In: Die Politische Meinung 50 (2005) 421, p.41~46.
- Fricke, Karl Wilhelm: MfS intern. Macht, Strukturen, Auflösung der DDR-Staatssicherheit. Analyse und Dokumentation. Köln 1991.
- Geiger, Hansjörg / Klinghardt, Heinz (ed.): Stasi-Unterlagen-Gesetz. Kommentar. Enl. and rev. by Martin Budsinowski, 2nd rev. ed. Stuttgart 2006.
- Geipel, Ines: Zensiert, verschwiegen, vergessen. Autorinnen. In: Ostdeutschland 1945~1989. Düsseldorf 2009.
- Geipel, Ines: Verlorene Spiele. Journal eines Doping-Prozesses. Berlin 2001.
- Gieseke, Jens: Mielke-Konzern. Die Geschichte der Stasi 1945-1990. Stuttgart 2001.
- Gieseke, Jens: Die DDR-Staatssicherheit. Schild und Schwert der Partei. Bonn 2000. (Deutsche Zeitbilder)
- Gieseke, Jens: Die hauptamtlichen Mitarbeiter der Staatssicherheit. Personalstruktur und Lebenswelt 1950-1989/90. Berlin 2000. (Analysen und Dokumente, 20)
- Grafe, Roman: Das Selbstbehauptungsrecht eines Unrechtsstaates. Die Prozesse gegen Stasi-Mitarbeiter wegen der Tötung des Widerstandskämpfers Michael Gartenschläger. In: Die Politische Meinung 51 (2006) 442, p.15~18.
- Grande, Dieter: Kirche im Visier. SED, Staatssicherheit und Katholische Kirche in der DDR. Leipzig 1998.
- Grau, Andreas: Vom Aufsteiger zum Überläufer. Der Fall des CDU-Abgeordneten und DDR-Spions Karlfranz Schmidt-Wittmack. In: Historisch Politische Mitteilungen 14 (2007), p.213~230.



- Grindel, Reinhard: Aufarbeitung verbessern. Zur Überführung der Stasi-Akten in das Bundesarchiv. In: Die Politische Meinung 53 (2008) 458, p.5~8.
- Henke, Klaus-Dietmar/Engelmann, Roger(ed.): Aktenlage. Die Bedeutung der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für die Zeit-geschichtsforschung. Berlin 1995. (Analysen und Dokumente, 1)
- Henke, Klaus-Dietmar/Suckut, Siegfried(ed.): Anatomie der Staatssicherheit. Geschichte, Struktur und Methoden/Der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Abteilung Bildung und Forschung, Berlin 1995. (MfS-Handbuch)
- Herbstritt, Georg: Bundesbürger im Dienst der DDR-Spionage. Eine analytische Studie. Göttingen 2007. (Analysen und Dokumente, 29)
- Hollitzer, Tobias(ed.): Wie weiter mit der Aufarbeitung? 10 Jahre Stasi-Unterlagen-Gesetz. Bilanz und Ausblick. Leipzig 2002.
- Knabe, Hubertus(ed.): Gefangen in Hohenschönhausen: Stasi-Häftlinge berichten, Bonn 2009. (Schriftenreihe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002)
- Knabe, Hubertus: Die Akte "Rosenholz". Warum Deutschland eine neue Stasi-Debatte bevorsteht. In: Die Politische Meinung 49(2009) 410, p.71~76.
- Knabe, Hubertus: Die Täter sind unter uns. Über das Schönreden der SED-Diktatur. Berlin 2007.
- Knabe, Hubertus: Verfehlte Vergangenheitsvermittlung. Zur Zukunft der Stasi-Akten-Behörde. In: Die Politische Meinung 51 (2006) 442, p.19~24.
- Knabe, Hubertus: Der diskrete Charme der DDR. Stasi und Westmedien. 3rd ed. Berlin 2001.
- Knabe, Hubertus: Die unterwanderte Republik. Stasi im Westen. Berlin 1999.
- Knabe, Hubertus: West-Arbeit des MfS. Das Zusammenspiel von "Aufklärung" und "Abwehr". Berlin 1999. (Analysen und Dokumente, 18).
- Lengsfeld, Vera: Virus der Heuchler. Innenansicht aus Stasi-Akten. Berlin 1992.
- Macrakis, Kristie: Die Stasi-Geheimnisse. Methoden und Technik der DDR-Spionage. München 2009.

- Mätzing, Heike Christina: "Lückentexte". Das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in aktuellen Schulbüchern. In: Die Politische Meinung 52 (2007) 448, p.53~58.
- Marxen, Klaus et al.(ed.): Strafjustiz und DDR-Unrecht. Dokumentation. Vol. 6: MfS-Straftaten. Berlin 2006.
- Mertens, Lothar/Voigt, Dieter(ed.): Opfer und Täter im SED-Staat. Berlin 1998. (Schriftenreihe der Gesellschaft für Deutschlandforschung, 58)
- Mothes, Jörn: Zur Zukunft der Landesbeauftragten für die Stasi-Unterlagen. In: Deutschland-Archiv 41(2008) 2, p.283~294.
- Mothes, Jörn(ed.): Beschädigte Seelen. DDR-Jugend und Staatssicherheit. 3rd ed. Bremen 2007.
- Müller, Uwe/Hartmann, Grit: Vorwärts und Vergessen! Kader, Spitzel und Komplizen. Das gefährliche Erbe der SED-Diktatur. Berlin 2009.
- Müller-Enbergs, Helmut: Die Entschlüsselung der Akte "Rosenholz". Über die Kunst, DDR-Spione zu enttarnen. In: Die Politische Meinung 50 (2005) 423, p.75~78.
- Müller-Enbergs, Helmut(ed.): Inoffizielle Mitarbeiter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Teil 1~3. Berlin 1998~2008.
- Neubert, Ehrhart: Ein politischer Zweikampf in Deutschland. Die CDU im Visier der Stasi. Freiburg/Br. 2002.
- Neubert, Ehrhart: Geschichte der Opposition in der DDR 1949-1989. 2nd rev. and enl. ed. Bonn 1998. (Schriftenreihe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346)
- Pries, Dorit: Stasi-Mitarbeiter in deutschen Parlamenten? Die Überprüfung der Abgeordneten auf eine Zusammenarbeit mit dem Staatssicherheitsdienst der ehemaligen DDR. Berlin 2008.
- Reiprich, Siegfried: Der verhinderte Dialog. Meine politische Exmatrikulation. 2nd enl. ed. Berlin 2001. (Schriftenreihe des Robert-Havemann-Archivs)
- Scheer, Udo: Jürgen Fuchs. Ein literarischer Weg in die Opposition. Berlin 2007.
- Scheer, Udo: Vision und Wirklichkeit. Die Opposition in Jena in den siebziger und achtziger Jahren. 3rd ed. Berlin 1999. (Forschungen zur DDR-Gesellschaft)
- Schnell, Gabriele: Jugend im Visier der Stasi. Potsdam 2001.

- Schöne, Jens: Erosion der Macht. Die Auflösung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in Berlin. Berlin 2004. (Schriftenreihe des Berliner La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19)
- Schwan, Heribert / Heindrichs, Helgard: Das Spinnennetz. Stasi-Agenten im Westen. Die geheimen Akten der Rosenholz-Dateien. München 2005.
- Stadt, Jochen / Voigt, Tobias / Wolle, Stefan: Operation Fernsehen. Die Stasi und die Medien in Ost und West. Göttingen 2008.
- Suckut, Siegfried: Das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in der DDR-Geschichte. In: Zehn Jahre deutsche Einheit. Eine Bilanz, Opladen 2000, p.125~137.
- Suckut, Siegfried/Weber, Jürgen(ed.): Stasi-Akten zwischen Politik und Zeitgeschichte. Eine Zwischenbilanz. München 2003.
- Süß, Walter: Staatssicherheit am Ende. Warum es den Mächtigen nicht gelang, 1989 eine Revolution zu verhindern. Berlin 1999 (Analysen und Dokumente, 15)
- Vollnhals, Clemens(ed.): Die Kirchenpolitik von SED und Staatssicherheit. Eine Zwischenbilanz. 2nd rev. ed. Berlin 1997. (Analysen und Dokumente, 7)
- Walther, Joachim: Sicherungsbereich Literatur. Schriftsteller und Staatssicherhei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rev. ed. Berlin 1999.
- Wanitschke, Matthias: "Anwerben" oder "Zersetzen". Über das kollektivistische Menschenbild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der DDR. Erfurt 2004.
- Wiegmann, Ulrich: Pädagogik und Staatssicherheit. Schule und Jugend in der Erziehungsideologie und -praxis des DDR-Geheimdienstes. Berlin 2007.
- Wilke, Manfred: Wieslers Umkehr. Eine Besprechung des Filmes "Das Leben der Anderen". In: Die Politische Meinung 51(2006) 442, p.25~31.
- Wilke, Manfred: Umgestaltung in der Erinnerungspolitik. Zur Zukunft der Stasi-Unterlagen-Behörde. In: Die Politische Meinung 50(2005) 428, p.39-42.

## 인터넷 사이트(발췌)

“동독: 신화와 현실”이라는 아데나워재단(Konrad-Adenauer-Stiftung)이 운영하는 사이트 상에는 동독에 관한 정보, 동독-신화에 대한 반대 증거들,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는 관련 텍스트, 비디오 및 오디오 자료, 역사달력, 퀴즈코너, 수업자료, 행사안내 등이 소개되어 있다.

<http://www.DDRMythen.de>

아데나워재단의 전자도서관을 통해 관련 문헌 검색도 가능하다. 키워드, 인물, 기관 별 검색이 가능하다. 전자도서관을 통해 재단이 간행한 전자간행물 열람도 가능하다.

<http://www.kas.de/bibliothek>

연방소속 구동독 국가안전보위성 문서관리국

<http://www.bstu.bund.de>

사회주의통일당 독재 청산 연방재단

<http://www.stiftung-aufarbeitung.de>

베를린-호엔신하우젠(Berlin-Hohenschönhausen) 기념관

<http://www.stiftung-hsh.de>

로베르트-하베만-협회

<http://www.havemann-gesellschaft.de>

사회주의통일당-국가 연구회

<http://web.fu-berlin.de/fsed>

희생자단체

<http://www.buergerbuero-berlin.de> (Bürgerbüro e.V.)

<http://www.buergerkomitee.org> (Bürgerkomitee “15. Januar” e.V.)

<http://www.help-e-v.de> (Help e.V.)

<http://www.stasiopfer.de> (Spurensuche e.V.)

<http://www.uokg.de> (Union der Opferverbändekommunistischer  
Gewaltherrschaft)

<http://www.vos-ev.de> (Vereinigung der Opfer des Stalinismus)

## 발행인과 필자 소개

### 토마스 아우에르바흐 (Thomas Auerbach)

1947년 라이프치히(Leipzig) 출생. 전기기사, 교육자, 디아콘(Diakon), 교회교육자, 사회교육가. 1970~1976년 예나 개신교회 소속 청소년 지도자. 1976년 슈타지에 의해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1977년 동독에서 강제 추방. 1978~1993년 종교교사 및 서베를린에 위치한 전독문제연구소(Das Gesamtdeutsche Institut) 소속 성인을 위한 정치교육 강사 역임. 1993년 이후 베를린에 위치한 연방소속 구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BStU)의 교육연구부 연구원. 1998년 베를린 공과대학교(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소속 사회교육학 연구소 초빙강사. 2006년 이후 연방소속 구동독 국가안전보위성 문서관리국(BStU) 슈베린(Schwerin) 사무소 소장.

### 카르스텐 뒀멜 (Karsten Dümmel)

1960년 츠빅아우(Zwickau) 출생. 작센(Sachsen)과 튀링겐(Thüringen)에서 성장. 전기기사. 대학입학자격 시험인 아비투어(Abitur) 통과. 1978~1988 교회 활동공동체 설립위원 및 대표역임. 1980~1984년 대학응시(입학 거부당함). 1984년 해외여행 신청(56회 신청). 슈타지의 정신교육 및 심리적 테러조치 대상자. 1988년까지 창문담이/보조원으로 좌천, 여행금지, 주거도시내 연금(軟禁), 통신 및 접촉제한 대상자. 1988년 초 정치범 석방거래를 통해 서독으로 이송. 튀빙겐(Tübingen)에서 수사학과 독문학 전공. 폴란드 유학. 1996년 수사학 박사학위 취득. 미시간/앤아버(Michan/Ann Arbor, 미국) 및 튀빙겐 대학강사. 1997~2000년 아테나워재단(Konrad-Adenauer-Stiftung e.V.) 라이프치히(Leipzig) 사무소 연구원. 2001~2004년 아테나워재단 슈투트가르트(Stuttgart) 교육원 원장. 2004~2008년 아테나워 재단 세네갈(Senegal) 소장. 2008년 8월 이후 아테나워재단 함부르크(Hamburg) 교육원 원장. 독일연방공화국 작가협회(Autorenkrei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회원.

## 지그마르 파우스트 (Siegmar Faust)

1944년 도나/작센(Dohna/Sachsen) 출생. 예술교육학 및 사학 전공, 라이프치히(Leipzig) 요하네스 베허 문학연구소(J.-R.-Becher-Institut für Literatur)에서 수학. 정치적 이유로 두 번의 학업 기회 모두 박탈당함. 1968년부터 슈타지 공작 대상자. 철도역사 노동자, 계측보조원, 농장노동자, 계절성 식당종업원, 화물차운전자, 모터보트 운전 보조원, 야간 경비원, 운수노동자, 승강기 운행원. 1971~1972년 및 1974~1976년 “반국가 선동”을 이유로 슈타지 수용소에 구금, 400일 이상 코트부스(Cottbus) 수용소 지하 감방에서 독방생활. 1976년 동독 탈출. 작가, 시나리오작가, 연사. 잡지 “구동독의 오늘(DDR heute)” 및 “저편 기독교인들(Christen drüben)” 편집장. 1989년 이후 최초로 자유 선거를 거쳐 구성된 동독 인민의회 원내 독일사회연합(DSU: Deutsche Soziale Union) 자문위원. “사회주의통일당의 범죄 규명을 위한 기록센터(Dokumentationszentrums zur Aufklärung der SED-Verbrechen)” 공동설립자. 베를린 슈타지 문건 조사를 위한 주정부 및 기념도서관 자문위원. 1996~1999년 작센(Sachsen) 주정부 슈타지 문건 조사 담당자. 1999년 6월 이래 작가, 독일연방공화국 작가협회(Autorenkrei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회원, 자유독일작가협회(Freier Deutscher Autorenverband: FDA) 회원. 각 희생자 단체 이사. 2008년 이래 슈타지 중앙구치소였던 베를린-호엔쇤하우젠(Berlin-Hohenschönhausen) 기념관 안내원.

## 엔스 기제케 (Jens Giseke)

1964년 랑겐하겐(Langenhagen) 출생. 하노버(Hannover)에서 사학, 정치학, 법학 전공, 포츠담(Potsdam)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1993~2008년 슈타지 문건 조사를 위한 연방담당자의 학술조교, 슈타지-문건 조사를 위한 연방담당국 소속 교육연구부 프로젝트팀장. 2006년 4월 포츠담 현대사연구센터(Zentrum für Zeithistorische Forschung: ZZf) 객원연구원. 2008년 이래 현대사연구센터 프로젝트팀장.

### 프레야 클리에르 (Freya Klier)

1950년 드레스덴(Dresden) 출생. 3세 당시 아버지가 체포됨으로써 고아원에서 성장. 1968년 서독으로 탈출 시도 실패, 16개월 동안 구금 판결을 받음. 초기 석방된 후 1970~1975년 라이프치히 연극대학교(Theaterhochschule Leipzig) 및 드레스덴 국립극장(Staatstheater Dresden)에서 연극 공부. 1978~1982년 베를린 연극연출연구소(Institut für Schauspielregie Berlin)에서 연출 공부. 1980년 동독 평화운동(DDR-Friedensbewegung) 단체 공동설립. 1984년 연출가상 수상. 연출금지를 당하고, 1988년 슈테판 크라브치크(Stephan Krawczyk)를 비롯한 다른 시민운동가들과 함께 체포되어 국적을 박탈당함. 2007년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학교 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작센주 메달(Sächsische Verfassungsmedaille) 수상. 현재 작가이자 영화감독으로 베를린에서 활동.

### 후베르투스 크나베 (Hubertus Knabe)

1959년 우나(Unna) 출생. 브레멘(Bremen)에서 사학과 독문학 전공, 베를린에서 박사학위 취득. 서베를린 개신교 아카데미 학장. 1992~2000년 베를린 소재 슈타지 연방문서관리국 연구부 연구원. 구동독 및 동유럽에서의 저항운동에 관한 다수의 연구보고서 발간. 독일연방하원의 위임으로 슈타지의 대서방사업 조사 실시. 2001년 이래 베를린-호엔 쇤하우젠(Berlin-Hohenschönhausen) 기념관 관장.

### 베라 령스펠트(Vera Lengsfeld)

1952년 튀링엔 존더하우젠(Sonderhausen) 출생. 라이프치히 및 베를린에서 사학과 철학 전공. 동독학술원(Akademie der Wissenschaften der DDR) 연구원. 노선이탈로 인하여 당으로부터 심사를 받음. 학술정보연구소(Institut für Wissenschaftliche Information)로 강제 이직. 판코프 평화회(Pankower Friedenskreis) 및 동독 독재의 탄압을 받는 자들을 위한 시민위원회(Bürgerbüro für die Verfolgten der DDR-Diktatur) 공동 결성. 1988년 립크네히트

(Liebknecht) 및 룩셈부르크(Luxemburg) 데모에 참가시도 때문에 체포됨. “폭동시도” 이유로 재판을 받음. 한달간 구금되어 있다가 서독으로 추방. 영국에서 거주하며 캠브리지의 세인트존스대학(St. Jones College)에서 철학 전공. 1989년 11월 동독으로 귀향.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원탁회의(Runder Tisch),” 헌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독과 동독의 통일과정에 참여. 1990~2005년 독일연방하원 의원. 2005년 이후 베를린 판코프에서 작가로 활동. 1990년 아헨평화상(Aachener Friedenspreis) 수상, 2008년 연방공로훈장 수상. 온라인 블로그 칼럼니스트로 활동. 다수의 책을 출판하고 여러 신문과 잡지를 위한 기사 작성.

### 외른 모테스 (Jörn Mothes)

1962년 슈트랄스운드(Stralsund) 출생. 1978년 슈베린 개신교 청소년회 회원. 1979년 메클렌부르크와 튀링엔의 평화 및 환경단체 회원. 1983~1989년 로스톡 대학 및 예나 대학에서 신학 전공. 발전정책과 환경 연구회 회원. 1989년 메클렌부르크 개신교 루터파 주정부 교회의 비카르(Vikar: 목회실습생). 1989년 노이에스 포럼(NEUES FORUM) 시민운동단체 가입. 1989~1990 게라와 예나 슈타지 해체 시민위원회 위원. 1990년 구동독의 국립공원프로그램 스태프(staff) 및 뮌리츠(Müritz) 국립공원 소장. 1993년 슈베린에 신설된 주정부 소속 슈타지 문서관리 담당책임자로 진출. 문서관리국 부국장 역임 후 1998~2008년 슈베린 슈타지 문서관리국 국장. 현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교육과 학문화부 산하 “문화국” 근무.

### 헬무트 뮐러-엔베르그스 (Helmut Müller-Enbergs)

1960년 할테른(Haltern) 출생. 1985~1989년 뮌스터와 베를린에서 정치학, 사회학, 철학 전공. 1989~1992년 베를린 자유대학 구동독 연구부 학술 연구관. 1992년 이래 베를린 소재 연방소속 슈타지 문서관리국 산하 교육연구부 연구원. 2007년 켐니츠 공과대학교(Technische Universität Chemnitz)에서 박사학위 취득. 2007/2008년 미국 미시간대학



교(Michigan University) 방문교수, 2008/2009년 덴마크 시단스크 대학(Syddansk Universitet) 방문교수.

### 멜라니 피펜슈나이더 (Melanie Piepenschneider)

1962년 브라운슈바이크(Braunschweig) 출생. 마인츠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정치학, 언론학, 법학, 사회학 전공. 마인츠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1991년 마인츠 대학 소속 청소년유럽연구팀 부팀장. 1991~1998년 상트 아우구스틴(Sankt Augustin) 소재 아테나워재단(Konrad-Adenauer-Stiftung e.V.) 유럽연구부 부장. 1998~2008년 베를린 소대 아테나워재단 아카데미 원장. 1991~2006년 마인츠 대학, 쾰른 대학, 보훔 대학,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강의. 2008년 이래 베셀링(Wesseling) 소재 아테나워재단 정치교육국 대표, 유럽정치연구소 이사, “외교정치 및 안보정치 매거진(Zeitschrift für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 “학교 밖 교육(Außerschulische Bildung)”의 편집 위원회 회원.

### 지그프리드 라이프리히 (Siegfried Reiprich)

1955년 예나(Jena) 출생. 1972년 위르겐 폭스(Jürgen Fuchs) 및 루츠 라테노프(Lutz Rathenow)와 함께 문학 및 시학 연구회 결성. 1976년 동독 대학에서 퇴출. 그 후 슈타지 공작대상자. 사무보조원, 전보전달원, 트럭운전자로 근무. 1981년 서베를린으로 추방됨. 평화운동에 참여하고 동독의 평화운동을 지원. 킬(Kiel)에서 해양학과 지질물리학 전공. 에베르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 장학생. 남극의 “게오르크 폰 노이마이어(Georg von Neumayer)” 연구기지 연구원, 킬 대학교, 포츠담 지질연구센터(Geo-Forschungs-Zentrum Potsdam) 근무, 베를린 소재 독일연방하원 소속 학술연구관. 2001년 이래 베를린-호엔쇤하우젠(Berlin-Hohenschönhausen) 기념관 부관장. 사회주의통일당(SED)정권 희생자들을 위한 각종 단체와 모임 활동.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정권 피해 복구협회인 베를린 시민위원회(Bürgerbüro Berlin e.V.) 이사.

### 우도 쉐어 (Udo Scheer)

1951년 뮌헨(München) 출생. 1960년 동독으로 이주. 1970~1974년 예나 대학교에서 기계설비제작 엔지니어링 전공. 디플롬(Diplom). 1975년 금지 모임인 예나 문학회 회원, 슈타지 공작대상자. 1989년까지 동독에서 자신의 문학작품 출판이 억압됨. 설계기사. 1990~1993년 게라 소재 엘렉트로니콘(electronic GmbH)에서 (회사 파산 때까지) 근무. 1993년 이래 프리랜서 작가 겸 출판가. 독일연방공화국 작가협회 회원 및 해외 독일어권 작가를 위한 P.E.N. 센터 회원. 1980년대 구 동독에서의 저항과 투쟁, 평화운동에 관한 시와 산문 및 시사 작가. 현재 튀링엔 슈타트로다(Stadtroda)에 거주.

### 볼프강 템플린 (Wolfgang Templin)

1948년 예나(Jena) 출생. 도서관학 전공.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철학 전공. 1970년 사회주의통일당 입당 후 당의 대학지부 간부로 활동. 1976~1977년 폴란드 거주 후 폴란드 저항세력과 접촉. 다양한 동독 노동자단체 회원. 1985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 (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공동설립. 1983년 사회주의통일당 탈당 후 다수의 저항단체 설립에 참여. 1988년 초 체포되어 강제출국 됨. 1989년 가을 “라운드테이블(Runder Tisch)” 일원으로 서독과 동독 통일을 위한 작업에 참여. 1991년 동맹 90(Bündnis 90) 공동설립. 1993년 동맹 90과 녹색당의 합당 후 탈당. 1994년 “8월 13일 연구회(Arbeitsgemeinschaft 13. August)” 회원 및 “체크포인트 찰리 박물관(Haus am Checkpoint Charlie)” 근무. 1996년 이래 자유작가로 활동. 동독 역사, 통일 과정, 중유럽 및 동유럽의 발달에 관한 다양한 서적 집필. 성인 대상 정치교육 관련 각종 프로젝트 참여.

### 클레멘스 폴른할스 (Clemens Vollnhals)

1956년 출생. 근대현대사, 뮌헨대학에서 사회경제사, 정치학 전공. 1989~1992년 뮌헨 시대사연구소(Institut für Zeitgeschichte) 연구원.

1990/91년 뮌헨 공과대학교 강사. 1992~1997년 베를린 소재 연방 소속 슈타지 문서관리국의 교육연구부 위원회 팀장. 1998년 이레 드레스덴 공과대학교 산하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 연구소(Hannah-Arendt-Institut für Totalitarismusforschung e.V.) 부소장, 2007년 소장. 각종 재판과정의 자문요원으로 활동.

### **요아힘 발터 (Joachim Walther)**

1943년 쾨니츠(Cheumnitz) 출생.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문학 및 예술사 전공. 베를린 소재 출판사 “아침(Der Morgen)” 편집자 겸 발행인, 검열문제로 강제 사임. 1976년 문학지 “열정(Temperamente)”의 편집자, 1978년 편집부 해산. 1983년 이레 프리랜서로 활동. 1984~1989년 메클렌부르크로 귀향. 1990년 재설립된 동독작가협회 부대표이자 독일작가협회(Verband deutscher Schriftsteller) 회원. 1991년 독일연방공화국 PEN-센터 회원. 1996~2001년 독일연방공화국 작가협회 대표. 현재 베를린 그윈하이데(Grünheide) 거주.

